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6월 16일(음력4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478호

"부부금실 절에서 찾아요"

마곡·범어·직지사 등 부부·가족수련회 반응 좋아

조계종 포교원 '부부성장프로그램' 보고서 발간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지?'

부부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간다.

급증하는 이혼율, 그에 따른 자녀탈선과 가정해체. 가족 구성원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단절에서 오는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 불교가 그 멍석을 깔고 있다. 사찰에서 불교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부부나 가족 문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최근 이혼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부부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부성장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주 마곡사, 김천 직지사 등 개별 사찰들도 부부·가족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과 사찰들이 이처럼 부부관계 및 가정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부갈등과 가정위기 해소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을 자연스럽게 사찰로 이끌어 불교적 정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포교목적도 있다.

'부부성장 프로그램'은 포교원이 특성화 포교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연구·개발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공증된 남여의 차이점 인식과 올바른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성제' '인생 그래프 그리기' '위아공존(We are 共存)' 등. 특히 사성제 프로그램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고집멸도'를 고-부부갈등 이해하기, 집-갈등 원인 통찰하기, 멸-갈등 해결하기, 도-바람직한 부부대화법 익히기 등으로 응용해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련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은 공주 마곡사와 부산 범어사, 경기 흥국사 등. 마곡사의 부부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부명상 등 부부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쳐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자랑, 가족에게 3배 하기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찰 수련법회나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의 실천방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교에 대한 신심과 수행력, 교리에 대한 이해 및 상담심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지도자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부부 및 가족 유형별 연구와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어져야 한다.

포교원 박희승 과장은 "부부성장 프로그램이 각 사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하는 동시, 계속적인 보완·수정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2)2011-1911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세계 평화 함께 기원"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 양국 불교계의 우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8~12일 일본 가나까와껜 가마쿠라시 고메이지(光明寺) 등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주최로열린 이번 대회는 '기원과 구원'을 주제로 세계평화 기원법회, 학술대회, 제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위령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 한국측 대표단과 미야바야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즈타니 코쇼 정토종 종무총장, 니시오카 료코 천태종 종무총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9면

일본 도쿄·가마쿠라= 박봉영 기자

생협운동 전국 확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건강 먹거리 보급
'쓰레기 만두' 충격… 우리쌀 공양 운동도

최근 '쓰레기 만두'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불교계의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협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 맑고향기롭게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과 이를 소비할 농촌을 연결하는 활동을 펼쳐 온 인드라망은 불교생협과 친환경적 먹거리의 공급과 소비문제를 다룰 토론회를 개최해 불교생협 발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생협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토론회는 6월 16일 남원에서 열린다. 인드라망은 불교생협을 중심으로 '우리 쌀을 공양미로 올리자'는 운동도 추진 중이다. 도법 스님(상임대표)도 즉문즉설 법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장점도 알릴 생각이다.

인드라망은 농촌 지역 생협들과의 연대활동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 인드라망 불교생협 물류창고와 강원도 횡성 지역 여성 농민회의 생협을 연결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서로 맞바꾸는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드라망 회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 신림동, 인천 부평 주민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사체험을 갖는 생태농업 체험행사도 계절마다 열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알뜰시장을 운영 중인 맑고향기롭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불교생협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모아 '알뜰환경지킴이' 모임을 지난 3월 이미 구성됐다.

조계사 역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생협과 관련한 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진각종도 친환경 먹거리를 공동구매, 공동판매하는 생협 발족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한민국 茶 품평회'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 28면

새기획 '지역불교현장을 가다' 7면

한·티베트 교류 넓힌다

진각종 대표단, 달라이 라마 만나 협력 논의

효암 통리원장 등 진각종 대표단이 6월 10일 인도를 방문, 18일까지 달라이라마가 주재하는 법회에 참석하고, 한·티베트 불교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인도를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은 13~15일 달라이라마가 주재하는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참석하고 달라이라마를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대표단은 또 따보선원 주지 게쉬왕디 스님을 만나 한·티베트 불교 교류에 관한 협정도 체결한다.

이번 진각종 대표단의 인도 방문은 티베트 밀교사찰 따보선원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진각종 대표단은 효암 통리원장, 교육원장 혜정 정사, 포교부장 무외정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청주 풍주사가 6월 11일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주지 범추 스님의 헌혈장면. 뒤로 헌혈 차례를 기다리는 신도들 보인다.

"헌혈로 보시정신 실천해요"

청주 풍주사 헌혈캠페인

충북 청주 풍주사(주지 범추)는 6월 11일 관음재일을 맞아 경내 마당에서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범추 주지 스님을 비롯해 4백여 신도들이 동참한 이 헌혈 행사를 위해 충북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헌혈 버스를 풍주사로 보내 편의를 도왔다.

신도들과 함께 헌혈을 한 범추 스님은 "헌혈인구가 급격히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보시 정신을 피(血)를 나누면서 새롭게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주=고영배 기자

'할'



그림·조태호

담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성 명 서

종단의 원융화합을 저해하는 법장 총무원장스님의 독단적 종무행정 및 인사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개혁과 1998년 미증유의 종단 폭력사태를 사부대중의 하나된 원력으로 극복하고 내적으로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 외적으로 땅에 떨어진 불교의 대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종정예하의 고구정령한 지도를 바탕으로 전임 총무원장스님과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하나된 마음으로 정진하여 종단을 한층 안정화시키고 화합되게 하였다. 이러한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기대 속에 '참여와 화합',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 총무원장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 총무원장스님은 원융종단 구현이라는 사부대중의 열망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앞으로는 화합과 원융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독단적 종무운영과 측근 정실인사를 자행하여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종도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무릇 승가의 제1의는 '화합'이요, '화합하지 않는 승가는 인천의 사표가 될 수 없음'이 고금의 제불보살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종단의 원융화합을 위하여 현 총무원장스님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종단 운영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종도의 대의기관인 중앙종회의원의 본연적 역할이며, 종도에 대한 도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총무원장스님은 올바른 종단관과 역사관에 입각하여 종단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현 총무원장 체제는 1994년도 종단개혁의 흐름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올해는 종단 개혁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전 종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속에 출범한 개혁회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원융종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가 종단개혁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현 총무원장스님은 종단개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스님의 종단관과 역사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총무원장의 역할은 각 당파와 계파를 떠나 불자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 사회적 불교의 위상 제고에 전념하여 줄 것을 염원하며 종도들이 종단의 수장으로 모셨음을 간과하고, 지지세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독단적 종무운영을 하는 것은 1994년 이후 종단개혁의 취지와 노력을 뒤로 돌리려는 반개혁적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무원장스님은 일관성 있는 인사기준을 정립하라.

현 총무원장스님은 특정 문중이나 계파를 벗어나 원융화합을 위한 인사를 천명하면서, 특히 주지 인사에 있어 수행과 포교, 재정투명화 등을 반영한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수차례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현 총무원장스님은 취임 이후 최고인사권자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본·말사(봉선사, 갑사, 동화사, 약사사 등) 주지의 인사문제, 총무원부·국장 및 재가 종무원, 종단의 직영사찰(선본사, 보문사)에 전례가 없는 정실 파행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급기야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 주지마저 경질하여 하였으나, 종도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초파일 이후로 미루었다가 다시 조계사 주지 해임장을 발부하여 현재 종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조계사는 1998년 종단사태 이후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현 주지가 취임하였고, 종단개혁 10주년을 돌이켜 볼 때, 사찰재정 투명화와 수도권 포교 활성화 등 많은 부분에서 종단개혁의 모범적 직영사찰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2003년도에 우수 사찰로 지정되어 총무원장의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조계사 주지를 경질하려는 총무원 집행부의 해임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사찰재정 투명화와 수도권 포교 활성화 등을 주장하는 현 종단의 종책에도 어긋나는 명분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것을 총무원장에게 촉구한다.

총무원장스님은 조계사 재산관리인 지홍스님의 해임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총무원장스님은 6월 4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을 직영사찰법 제11조에 의해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해임장을 발부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직영사찰의 재산관리인(주지 직무대리)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영사찰법은 재산관리인의 해임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직영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직영사찰법이 적시한 해임사유는 직무태만, 직무수행 능력부족, 보고의무 태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번 단행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에 대한 해임조치는 직영사찰법상의 해임사유의 어느 항목에 의거한 것인지 총무원장스님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6년간 조계사 주지스님이 스님과 신도, 종무원들과 함께 일구어 낸 모습이 과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서 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종도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총무원장스님은 독단적이고 전시적인 종무행정 운영을 지양하고 중앙과 교구가 고루 발전하는 원융종단을 指向하라.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종무행정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현 총무원장스님의 1년간의 종무 성과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총무원장스님은 취임 정책 공약으로 말사 주지 인사권 교구이관 등 중앙집권적인 종무행정 권한을 대폭 지방교구에 이양하여 중앙과 교구가 고루 발전하는 원융종단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무원장 사서실을 확대 개편하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측근이라 하여 허물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재가 종무원을 대거(20여명이 넘는) 충원하는 등 공약에 역행하는 종무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화 시대를 指向하는 작금의 시점으로 볼 때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총무원장스님은 고유의 총무원장직 수행에 충실하라.

총무원장스님이 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단체인 본사주지연합회의 회장직에 왜 그리 연연하는지 의아스럽다. 1994년도 종단개혁을 통해 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면서 본사와 중앙간의 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총무원장스님이 주재하는 본사 주지회의를 종헌에 마련했다. 즉 총무원장은 본사주지회의의 의장으로서 교구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 종책을 설명하는 공적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주지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해 여려해 동안 유지되어 온 사적인 친목단체인 본사주지연합회의 회장직을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종단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라고 보며, 고유의 총무원장직 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

비록 승단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문의 도리겠으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 또한 종도의 도리요,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중앙종회의원의 책무일 것이다. 물론 총무원장스님의 칭송받아 마땅한 업적 또한 많다 할 것이나, 어렵게 마련한 종단의 화합과 종단운영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애종심으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니 총무원장스님께서는 깊이 혜량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스님이 종무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시행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기 2548년 6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금강회 회원 일동



수행자들 고급 스포츠 괜찮은가?

'일부 스님네들이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난 골프와 스키 등 호화스포츠를 즐기며, 수행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뜻있는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고급스포츠가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이다. 그러한 일은 율장정신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비구계를 말씀하신 사분율장(四分律藏)에는 비구가 포살(布薩)할 때 일반인이 엿듣지 못하게 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갈마 때에도 그 내용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구계가 아닌 사미 10계율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찬율사(弘贊律師)가 지은 <사미율의증주(沙彌律儀增註)>에서는 "위기(바둑과 장기) 육박(주사위 놀이), 투척(주사위를 던져 넣는 놀이), 저포(말을 던져서 맞추는 놀이) 등의 일은 모두 도심(道心)을 어지럽히고 허물과 악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비난받을 일 무엇이든 금하라"
지계로 당당한 수행자상 세우자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바른 생각을 흔들어 시끄럽게 하고 탐진번뇌(貪嗔煩惱)가 더욱 늘어나게 하는 일이다. 생사의 과환(過患)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나니, 진실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할 바가 아니다" 라고 했다.

또 서옥율사(書玉律師)가 지은 <사미율의술의(沙彌律儀述義)>에서는 "모두 불자가 할 바가 아니다. 도 닦는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해서 어리석고 나쁜 악업을 길러 고해에 빠지게 하고 벗어날 때가 없다. 뜻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어리석음의 노예를 지킬지언정 어찌 자리에 앉아 참선하며 삼의일발(三衣一鉢)로 계율을 배우는 공부의 끝에 재주를 부려 부처님의 계(戒)를 범하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의 할 일이겠는가?" 라고 했다.

율장에는 골프다 스키다하는 고급스포츠를 꼭 꼬집어 말씀하신 것은 없다. 물론 당시에 그런 스포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있었더라도 분에 넘쳐 비난받기 알맞을 그런 스포츠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부처님은 "세속인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은 무엇이든 금(禁)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하면 "비구의 위의가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요, 청정한 행이 아니요, 수순하는 행이 아니며 응당할 바가 아니라" 하신 말씀으로도 알 수 있다.

시줏밥은 대단히 무서운 밥이다. 도 닦는 일 외에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구나 같은 지구에 사는 어느 나라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1년 동안의 먹을 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 일부 스님네가 즐겨하는 고급 스포츠는 아무래도 지탄의 대상이 안될 수 없다.

부처님이 금하신 계율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행복이다. 무엇보다도 수행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일이다.

■ 철우 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종단살림 핵심은 '투명'

태고종, 종도대표 감사실시, 적극적 종무 주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를 투명한 종단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각 교구 종도대표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6월 9일 전격 실시했다.

이날 오전 14명의 종도대표 감사위원들은 서울 신사동 태고종 총무원 청사 회의실에 모여 감사 일정과 운영방식을 논의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4층 총무처 행정직원들은 3일 전부터 준비한 각종 회계장부와 문서철들을 가지런히 책상위에 올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감사위원들을 맞이했다.

감사는 교무부장 법현 스님의 2003년도 종무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동방대학원 대학 인수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불교전승관) 건립 추진 등의 사업보고와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재무분야 보고가 자세하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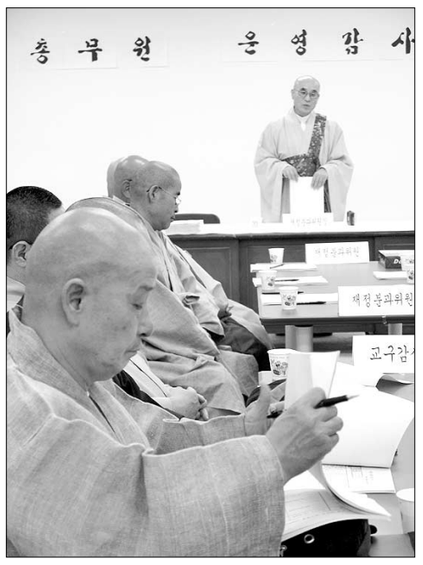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부종무원의 자운 스님은 "종단의 5부장 중심의 책임분과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쏟아 냈다. 업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부분 스님은 이번 감사가 재무분야에 국한된 소극적 감사가 아니라 종단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내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사업별 종책 운영 과정에 대한 종도들의 의문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스님들은 이날 감사를 통해 그동안 총무원이 추진해온 (주)AMS 인수와 불교전승관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명확히 털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종무행정전산화 △사찰법 현실화 △종법에 따른 감사활동 △승려 의무금 · 분담금 징수 활동 등에 좀더 적극성을 띨 것 등을 지적했다. 감사결과는 6월 15일 중앙종회에 보고하고 종단기관지에 주요내용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날 종도감사에는 월담, 도성, 원종, 효성, 자운, 법륜, 지관, 명진, 법운, 법우, 청봉, 종오, 일허, 성묵 스님 등 각 교구를 대표한 감사위원과 중앙종회 재무분과위원 스님 14명이 참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종도대표 14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9일 태고종 총무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열렸다.

일면·정도 스님 직능대표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선거 중앙선관위원장에 범여 스님


일면 스님


정도 스님


범여 스님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 결과 일면 스님과 정도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법장)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에 일면 스님을, 행정 분야에 정도 스님을 선출했다.

일면 스님은 1964년 사미계, 6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교육원장, 남양주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76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지한 정도 스님은 보은 법주사 교무국장, 중앙경찰학교 경승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11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장 지명 스님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 위원장으로 범여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이 선출됐다.

남동우 기자

교육부장 현관 ·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 인사


현관 스님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6월 9일 교육부장에 현관 스님, 불학연구소장에 화랑 스님(동국대 강사), 교육국장에 정범 스님(총무원 기획국장), 연수국장에 지인 스님(순천 제일대 교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철우 스님 등을 임명하는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새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1974년 사미계, 19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96년 교육원 초기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화랑 스님은 1969년 사미계,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미 시카고 불타사 주지를 지냈다. 정범 스님은 1988년 사미계,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지인 스님은 1987년 사미계, 1990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스리랑카 국립팔리대를 나왔다. 철우 스님은 1984년 사미니계,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조용수 기자

용천참사 희생자 왕생극락 염원

진각종 · 조불련, 묘향산 보현사서 합동법회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등 대표단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6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6 · 15 공동선언 실천과 용천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법회를 열었다.

6월 3일 오후 2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된 합동법회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타종을 시작으로 효암 통리원장, 수성 재무부장, 회성 문화사회부장, 증광 사감부장, 호당 기회국장 등 진각종 대표단 6명과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차금철 스님, 최형민 보현사 주지 등 사부대중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이날 합동법회에서 "6 ·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고 조국을 통일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효암 정사는 "지난 4월 용천역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의 왕생극락과 부상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어 심상진 조불련 서기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천복구에 진각종단이 직접 지원하고 도움을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대표단은 이번 방북기간 동안 6월 1일과 4일 두 차례 조불련 청사에서 박태화 위원장 등 조불련 대표자들과 만나 양측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진각복지재단 지현 사무처장은 "이번 방북은 그동안 진각종이 보여준 관심에 대한 조불련 측의 화답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89회 임시종회 전승관 건립등 안건

태고종 제89회 임시중앙종회(종회의장 인공)가 6월 15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종법 개정안 △종법 제정안 △2003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 성금 모금 및 예산 조정 △종단 간부 인준안 등 종단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밖에도 이날 종회는 종단의 숙원사업인 전승관 건립, 1사찰 1선행운동, 녹색장묘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종단발전 방안을 논의 한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57돌 창교절 축하" 조불련, 메시지 보내

진각종 창교절(6월 14일) 57돌을 앞두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 이하 조불련)이 6월 8일 통리원장 효암 정사 앞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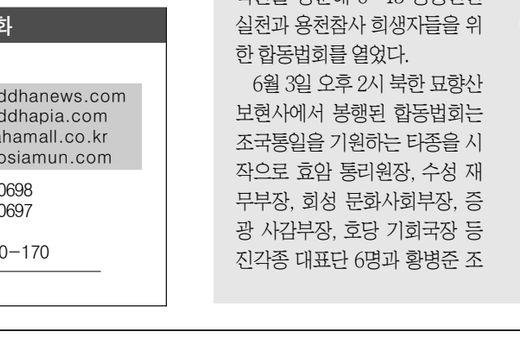
조불련은 박태화 위원장 명의의 축하메시지에서 "창종 57돌을 맞이하는 진각종 전체 법우들에게 조불련과 북녘 불교도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교보 종합 3위
영풍 비소설 1위
알라딘 종합 1위



법정 지음 | 양장 | 값 9,800원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 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아웃사이더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 훌쩍 넘어 나를 깨우는 밝은 빛

풍경소리 2

오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구상 / 시인





풍경소리는 산사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복잡한 도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글 · 풍경소리 | 전각 · 정병례 | 올컬러 | 값 8,000원
* 책을 구입하시면 금장 책갈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www.isamtoh.com
도서주문 및 문의 080-763-8961 | (02)763-8961~6 샘터

동국대 교비 474억 전용 물의

불교병원 건립에 사용…지난달 교육부 감사, 400억 환수 조치

학교측, "교비전용 금지한 2002년 12월 이전 일…소급 적용 안된다" 주장



동국대 학생이 조계사 앞에서 교비 전용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동국대가 일산불교병원(이하 불교병원) 건립 재원으로 대학 교비 474여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대 총학생회가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대학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법인사무처의 중요문서들을 입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7일까지 본관 점거농성 과정에서 '2002년도 불교병원실무위원회 회의자료'와 '2003년도 불교병원 개원 추진단 불교병원 회계처리' 등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 이 가운데 '99년부터 총공사비 약 1천억 가운데 781억을 교비로 집행했으며 추후로 235억 추가 집행할 것'이라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월 22일 교육부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 6, 7, 8일 사흘간 재단 법인 사무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문제가 된 781억 가운데 일부 불교병원 건립 기금을 제외한 400여억원의 교비를 환수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비 전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나온 것은 2002년 12월로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던 1998년~2002년 사이의 병원건립 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대여 또는 전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이번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교비전용을 금지하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뒤인 2003년 이후에는 교비전용을 하지 않았고 불교병원이 의과대 부속 실습병원인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들어 적극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병원 개원 어떻게 되나

내년 3월 개원 힘들듯

이번에 교육부가 교비 전용을 문제 삼으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됐던 불교병원개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불교병원은 고양시 식사동 3만여평 부지에 지상 12층, 800병상규모의 대규모 종합병원이다. 지난 1998년 착공에 들어가 2002년에 준공됐으며 그동안 12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들었다. 불교계에서는 불교 유일의 기간종합병원 개원을 위해 종단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

2002년 준공 후 2년여를 방치했던 불교병원은 올해 초 홍기삼 총장의 내년 3월 개원 추진을 발표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교육부가 병원개원의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병원 직제개편과 경영진 구성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원 추진단의 배성환 단장은 "우선 직제관련 교육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장 등 주요 인사의 임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비전용 등의 건을 문제 삼아 교육부 승인이 계속해서 늦춰진다면 사실상 내년 3월 개원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수 기자

17일 동국대 재단이사회

임원선출·결산 승인 등 처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 제200회 재단이사회가 6월 17일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신임 임원 선임과 2003학년도 결산 승인, 중앙대 필동부속병원 매입 승인, 기숙사 건립, 경주 캠퍼스 본관 건립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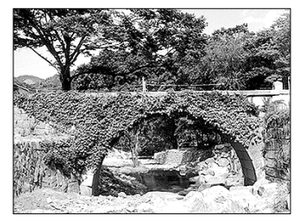
이날 신임 임원 선출을 위해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는 지난 1월 전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과 종회의원 혜림 스님을 정대스님 후임으로, 총동창회 원용선 수석부회장과 동국대 이재창 명예교수를 서돈각 이사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상태다.

한편, 동국대 재단은 지난 199차 이사회에서 2003학년도 결산 감사 보고 중 의료원 남품업체 선정과 필동 중대부속병원 매입 계약금 과다 지급문제로 이사들 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조용수 기자

건봉사 능파교 보수공사 중 무너져

보호시설 설치 미비,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붕괴전 능파교의 모습(사진 왼쪽)과 6월5일 능파교 홍예석이 붕괴돼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강원도 고성 건봉사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능파교(凌波橋 · 보물 제1336호)가 6월 5일 보수공사 도중 무너져 내려앉아, 보다 세심한 복원공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량 석축에 일부 변형이 생겨 지난해 8월부터 보수공사를 해왔던 능파교는 5일 홍예석 주변의 돌을 부분해체해서 다시 쌓던 중 홍예석이 내려앉았다. 사고 원인은 홍예교 하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면석을 쌓아올리던 중, 북쪽으로 하중이 쏠리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치형 홍예교는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남쪽과 북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쌓을 수 있다.

무너진 홍예교 석재는 다리 아래의 암반과 부딪쳐 파손이 심한 상태로, 현재 석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파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측조사 중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공사 시행 전에 능파교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해 원래 모습대로 복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복구공사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보강조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 · 도 유관단체에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건봉사 능파교 붕괴사건은 문화재청과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화재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종단과 당해 사찰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 숙종 38년(1708년) 건립된 능파교는 하천의 자연암반을 기초로 두터운 지대석을 깔고 다리 중앙에 홍예(虹霓 · 무지개 모양의 문)를 튼 폭 7.8m, 높이 4.05m로 거의 반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오유진 기자

지율스님 경찰에 강제연행


사진제공=천성산 대책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 금정산 구간 관통을 온몸으로 저지해왔던 지율 스님(양산 내원사 산감)이 끝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사진).

지율 스님은 현장 농성 100일째 되는 날인 6월 11일 오후 3시 50분경 공사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천성산 개곡 마을 공사현장에서 형사 15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6월 11일 현재 스님은 양산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강제연행되면서 지율 스님은 "묵언정진하며 단식에 돌입하겠다"며 "내가 연행돼도 관통저지 운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조건부 신고시설 공청회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 및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신고 시설장, 학계, 지자체, 언론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철우 기자

로카미트라 법사 22일 내한 강연회



인도불교부흥운동의 주역 로카미트라 법사(사진)가 6월 22일 방한해 6박 7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인도불교부흥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소개하는 강연회 등을 통해 인도불교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관심으로 유도하고, 시민단체 운동가들과 불교공동체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6월 24일과 25일 재가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유신 기자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 열려



제17회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칠성중학교의 '탈춤' 공연.

대상에 칠성中 탈춤공연

쿵쿵~! 쿵쿵~! 덩기덕 쿵 더더더덕~! 6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는 꽹과리, 장고, 징, 북 등 민속타악기들의 신명나는 연주와 탈춤, 전통무예술 등 화려한 춤사위 한마당이 열렸다.

2004년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해를 맞아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한 제17회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는 초 · 중 · 고등학생 및 사찰 ·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판소리, 고전무용, 탈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칠성중학교의 탈춤 공연이 대상을, 동대부고 풍물놀이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은경 기자

19회 불이賞 장지현·김성철 교수

시상식 7월5일 신라호텔


장지현 씨


김성철 교수

제19회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진각복지재단 장지현(45) 사무처장이, 연구분야에 동국대 김성철(46)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6월 11일 열린 불이상 심사위원회의에서 수상자를 확정했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종교인평화회의 전문위원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중앙본부 상임부회장을 맡아 북한과의 교류를 불교포교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철 교수는 폭넓은 불교학 이해를 바탕으로 중관학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최근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를 펴내는 등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분야 수상자로 뽑혔다.

불이회는 1974년 만들어진 재가여성불교단체로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85년 제정 매년 시상해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

여수령 기자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맛본다 !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
참된 무심, 참된 웰빙은 어디에 있는가?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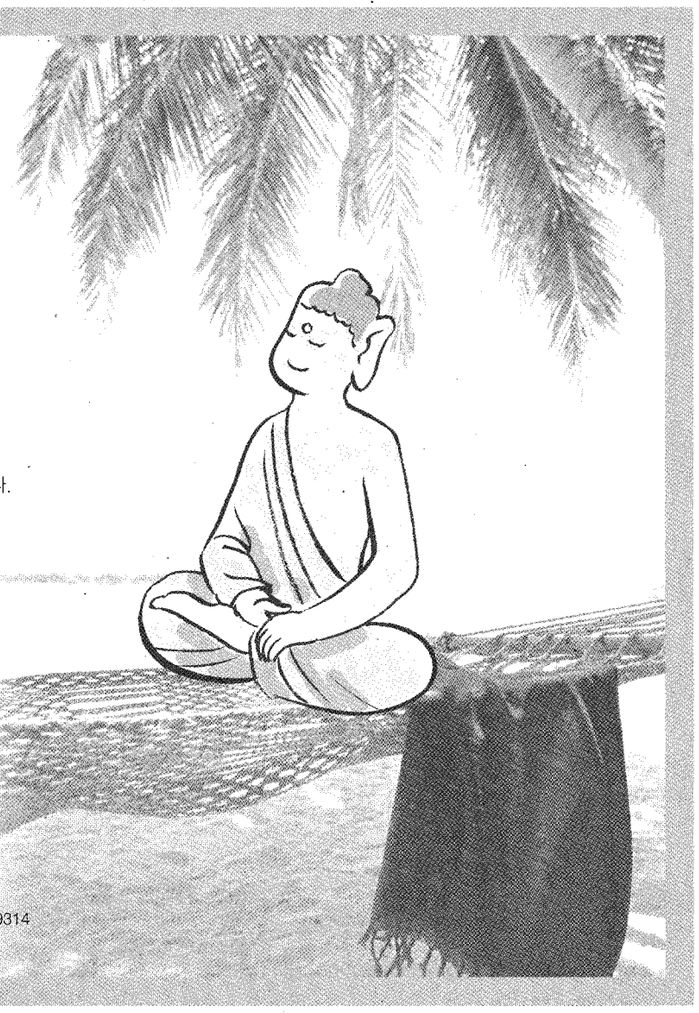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지 자 : 문 화 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 낸 날 : 2004년 5월 6일
가 격 : 9,000원
분 량 : 240쪽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세계 출·재가 여성 불자들 한국 총집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주요행사·일정



명성 스님 광우 스님 소모 스님 본각 스님 클레인 교수



세계 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은 제13차 추진위원회 모습.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현재와 과거' 주제

6월 27일~7월 2일 중앙승가대서 열려

학술발표와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 펼쳐

해외 참가자 3일간 불국사 등 사찰 순례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오는 6월 27일에서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열린다.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샤캬디타'라고 불리는 세계여성불자협회(회장 소모 스님)가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개최했으며 이후 격년제로 태국 방콕(1991년), 스리랑카 콜롬보(1993년), 북인도 라다크 수도 레(1995년), 캄보디아 프놈펜(1997년), 네팔 룸비니 고타미사원(2000년), 대만 타이페이(2002년)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제8차 한국 대회는 6월 27일 광우 스님(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의 '한국비구니의 어제와 오늘', 폴라 아라이 교수(미국 Carleton대학 종교학과)의 '여성과 세계불교', 앤 캐롤린 클레인 교수(미국 Rice 대학교 종교학과)의 '여성불자들의 결성 (結成) : 자비행'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이번 대회는 크게 학술발표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본행사인 학술발표는 '한국의 여성불자들', '세계의 여성불자들', '불법과 계율', '불교교육', '불교 출가수행', '일상속의 수행', '불교수행의 여성문제', '참여불교속의 수행', '오늘날의 불교' 등의 소주제 아래 토모미 이또, 리타 그로스 등 61명의 세계적인 여성 불교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소주제 진행은 바바라 로크, 수잔 로직, 무진 스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맡았다. (우측 도표 참조)

본행사와 더불어 행사장인 중앙승가대교내 곳곳에서는 문화행사로 '명상음악과 선무', '세계평화기원 콘서트'를 비롯한 문화 공연과 선원 및 다실 상시 운영, 가사·서각·한지공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개막이 보름정도 남은 현재 대회추진위원회의 손길은 분주하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장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추진부위원장 영운 스님(석남사 주지), 상덕 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일진 스님(운문승가대학 학감) 및 산하 분과 위원장 스님들과 2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항영접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세부 준비를 마무리했다.

산하 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회 성공을 위해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획분과위원장 대원 스님(동국대교수)은 행사 기획, 학술분과위원장 묘주 스님(동국대 외래교수)는 본행사 논문 발표 준비, 국제분과위원장 계환 스님(동국대 교수)은 국외 외빈 영접 및 논문 번역, 총무분과위원장 혜성 스님(강화 백련사 주지)은 행사 총괄, 재무분과위원장 담교 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국장)은 재정, 홍보분과위원장 진명 스님(불교방송 진행자)은 대외 홍보 역할을 맡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명성 스님이 직접 각 사찰과 비구니 모임에 참석, 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재가 여성불자들도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이 추진부위원장, 이화 불교여성개발원 국장이 섭외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은 문화행사 총괄로 대회 성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www.seoul-sakyadhita.org, 02-766-9580)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문화행사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날 짜	구 분	장 소	시 간	내 용
6월 27일(일)	개회식	중앙승가대학 4층 강당	08:00-11:00	각국 불교의식 및 대종 법고연주/ 환영인사/기조연설/범패
	환영연	전국비구니회관	18:00-20:00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스님 주최 환영만찬
6월 28일(월)	문화행사-전통문화 공연	야외무대	19:00-20:00	국립국악원 공연
6월 29일(화)	문화행사	야외무대	19:00- 20:00	삼소회 기도송/ 수화 (삼선승가대학)/범패 (동희스님)
	-비구니스님들의 문화활동			/정률스님 독창/ 야단법석 공연
6월 30일(수)	환영오찬	중앙승가대 본관앞	11:00-12:30	법장 총무원장 스님 주최 환영 오찬
	문화행사-명상음악과 선무	야외무대	19:00-20:00	한국명선차인회 다례시연/ 티베트 가수 츠키라 독창&
				나왕캐촉 연주/ 선무 (이선옥 교수) 나왕캐촉 & 니르바나 공연
7월1일(목)	문화행사	야외무대	19:00-20:00	니르바나 필하모닉
	-세계평화기원 콘서트			
7월2일(금)	폐막식	중앙승가대학 4층 강당	18:00-19:00	대회 선언문 발표 / 9차 대회 개최지 선정
	문화행사-피날레 축제의장	야외무대	19:00-20:00	학인스님 촛불놀이 사물놀이
7월3일(토)	사찰순례	해인사/불국사		우리의 선 문화와 사찰 체험
7월4일(일)		석남사/운문사		
7월5일(월)		봉녕사		
매일	전시·시연	중앙승가대학교 교정		예불독경, 참선체험, 다도 시음 한국불교 소개 영상물 상영
				쪽물전시, 가사전시, 한지공예, 서각전시, 사진전시

학술 발표 일정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날 짜	구 분	발제자	주 제
6월 27일 오전	기조연설	광우스님	한국비구니의 어제와 오늘
		Anne Carolyn Klein	여성과 불교의 세계화
		Paula Arai	여성불자들의 정신적 치유에 대하여
6월 28일 오전	한국의 여성불자들	계환스님	한국 비구니 활동의 역사적 고찰
		이창숙	한국 여성불자 활동의 역사적 고찰
		일진스님	한국 비구니의 기본교육 과정
		운월스님	한국비구니 선원의 현황과 수행
		상덕스님	한국 여성불자의 사회복지 현황
		대원스님	불교 아동교육 위한 프로그램과 교수 매체 활용 연구
		진명스님	한국 여성불자의 대중매체 포교
		지홍스님	한국 비구니들의 병원 봉사 현황
6월 28일 오후	세계의 여성 불자들	Martine Batchelor	여성불자와 자비로운 사회
		Peou Vanna	캄보디아의 조용한 여성운동
		Ranjani de Silva	스리랑카 사회의 변화 주체로서의 비구니
		Tenzin Lhadron	Zangskar의 여성불자
		Karuna Dharma	서구사회에서의 여성불자들의 공헌
		Tomomi Ito	새로운 시작: 근대 태국의 비구니 운동
		Ivette Vargas	티벳의 전설 : 팔모스님
		Nhu Nguyet (Nguyen Thi Thi Ha)	현대 베트남의 비구니 교육
		Gantumur Natsagdorj	몽고 여성불자의 역할
		Zorigma Budaeva	The History of a Buddhist Women's Datsan in Buryatya
6월 29일 오전	선정 수행	일중스님	상좌불교 전통에서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황수경	자비관 수행에서 둘 아닌 도리의 의미
		Toong Herng Shih	Animitta Cetosamadhi: 팔리 아함경과 중국어 아함경에 나타난 비교연구
		Thea Mohr	자비는 감정인가? 아시아와 서구의 접근비교
6월 29일 오후	불법과 계율(계행)	Dong Anh	재가불자와 비구니의 교육과 수행
		Shoyo Taniguchi	승가의 정의
		Tenzin Palmo	재가자와 출가자의 불교 실천
		Gioi Huong	여성불자와 계행
		Malia Domica Wong	비구니의 자기수행법
6월 30일 오전	불교 교육	김종명	한국에서 여성불자를 위한 새로운 불교수행의 모색
		Sukdham (Inyoung Chung)	묘엄스님의 승가 교육
		Stefania Travagnin	대만의 Yinshun스님과 여성불자 : 대만 북서지방의 관음보살의 제자들
		Eliana Morris	어린이의 불법교육
		Karma Lekshe Tsomo	또 다른 불법? 미국 대학에서의 불교교육
6월 30일 오후	불교 출가수행	Jampa Tsedroen	비구니 수계
		Varaporn Chamsanit	태국 승원의 여성불자문제의 해결책: 왜 어려운가?
		이향순	보문종과 한마음 선원: 현대 한국에서 사찰의 새로운 방향
		Kusuma Devendra Bhikkhuni	스리랑가의 비구니 승가교육
		Dhammananda	비구니 승가에서 '품질관리' : 비구니 수련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7월 1일 오전	일상속의 수행	Anne Mahoney	일상생활에서의 불법
		Lieu Phap	일상에서의 불법: 화 다스리기
		Sabita Dhakwa Shakya	일상생활에서의 불법
		Shobha Rani Dash	공양의식과 사찰후원: 일본 Dongein승원의 사례연구
		Ta-chan Shi	불임여성을 위한 관음보살의 축복
7월 1일 오후	불교수행의 여성문제	I-li Yang	여성은 얼마나 강한가?
		Nivedita Kumari Mishr	여성은 성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Sumon Tuladhar	네팔의 사회 변화 속의 비구니 역할: 남녀 성비의 의미
		Claudia Wenzel	중국 三階教의 비구니와 우바이 - 재가자의 지위에 대한 역사적 조망
		Andrea Loseries_Leick	밀교에서 여성불자의 가정과 화장장 수행
7월 2일 오전	참여불교 속의 수행	Monica Lindberg Falk	조용한 흐름 : 태국에서의 참여불교 실천에 대한 비구니의 중요성
		김인숙	NGO: 사회변화를 위한 조직화
		이미경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불교 施設運營의 필요성과 과제에관한 연구
		Junya Pookayaporn	지역사회 상담자로서의 비구니
		Trina Nahm-Mijo	참여불교와 지역사회의 운동
		Elise Anne DeVido	대만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참여불교의 방향제시
7월2일 오후	오늘날의 불교	안옥선	불교생태학에 있어서의 존재의 평등에 관하여
		Diana Cousens	호주에서의 불교적 임종
		Yuchen Li	깨달음의 길: 현대 대만비구니 스님들의 자서전
		김정희	여성불자들의 삶에서 본 생명여성주의 윤리: 작은 해탈에서 머물고 말것인가
		Rita Gross	지도자와 스승으로서의 불교 여성들
포스터 발표		백경임, 김혜순, 강기숙	유아기 자녀를 둔 불교가정 어머니의 현대화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전시 및 발표		한미혜	한국 전통 통문 가사의 의미와 수행정진

고불총림 백양사

이뭣고 하계 수련회 참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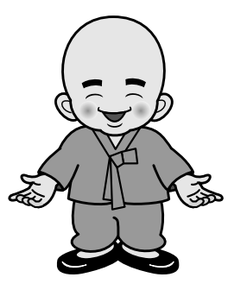
이뭣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 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찻 수	기 간	정 원	대 상
40차	7월 28일(수) ~ 8월 1일(일)	50명 (남:25, 여:25)	20~60세 일 반 인
41차	8월 4일(수) ~ 8월 8일(일)	50명 (남:25, 여:25)	
42차	8월 11일(수) ~ 8월 15일(일)	50명 (남:25, 여:25)	
43차	8월 18일(수) ~ 8월 22일(일)	50명 (남:25, 여:25)	20~60세 일반인

◑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 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 접수기간 : 7월 24일(토)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서 요청시 팩스 발송)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 접 수 처 :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392-0434, 팩스 392-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수련회비 : 9만원 (4박 5일)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지참 (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2004년 6월 일

백 양 사 주 지 두백 명공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 7월 2일 177만원
서안-종남산-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루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답사하는 최고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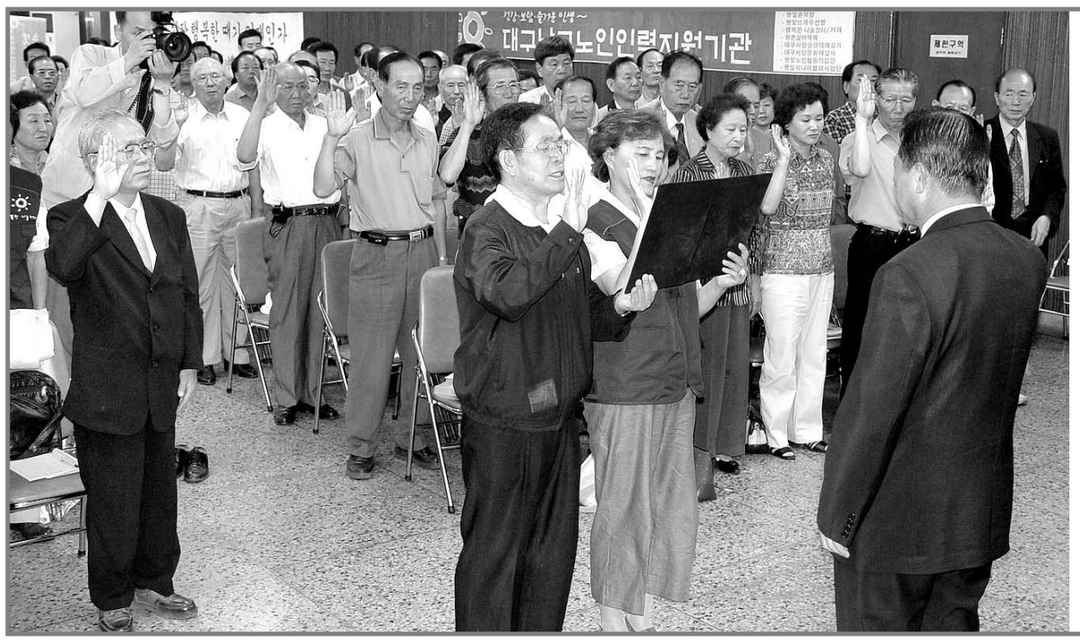
특선2 인도세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 7월 20일 159만원
●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10일 293만원
● 일정 :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 티벳,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 7월 20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 7월 6일 405만원



“은빛 열정은 식지 않았다”

대구 남구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수료증 전달 … 봉사 · 나눔 약속

“나는 건강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에 건강한 어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민방위훈련장에는 2주에서 2달 정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교육을 수료한 어르신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불교사회복지회 대구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남구청 대덕노인복지회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대식에는 이신학 남구청장,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수료증 전달식, 지역참여와 봉사, 나눔과 순환의 정신을 약속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선서식, 사업단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층과 복지계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활동의 지원을 뛰어넘어 노인들이 노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문화를 제공받아 즐거운 노후 생활을 스스로 만들고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의 지역적 가치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숲 해설 사업, 문화해설 사업, 햇빛촌 손떡 사업, 청춘실버택배 사업단, 행복한 나눔장터가게 등의 사업단을 두고 꾸준한 교육과 모임을 통해 노인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고 참여하여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천년고찰 앞 고층아파트 ‘웬말’

(주)경동, 승인 얻어 공사 시작 범어사 비대위 “건립 막아낼 것”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 앞에 또 다시 고층 아파트의 건립 허가가 나 범어사가 해당 관청에 강력항의하고 나섰다.

(주)경동이 경동아파트 옆에 2차 경동 아파트 건설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작하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범어사가 구청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1995년 건축한 현재의 경동아파트 때문에 수려한 금정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사찰경내 입구 경관이 훼손되면서 국내외인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서기는커녕 범어사측과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어사는 “종단과 전 문중의 스님 및 불교신도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차 경동아파트 건립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동은 6월 9일, 범어사를 방문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범어사는 종무회의를 거쳐 비상대책회의를 꾸리고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과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호국영령 천도재



한 기독교인 제안으로 봉행 지역 군인들 공양으로 회향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에는 현충일의 노래에 이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약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거행된 이날 천도재는 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마음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더욱 뜻이 깊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기독교인은 “이름도 없이 산화한 호국영령들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마음에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천도재를 지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에서 기도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절에서 하는 천도재 형식의 의식을 치러주고 싶다는 마음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당에는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산화한 모든 영가들과 6 · 25 때 파병된 미군 영가, UN군 영가를 비롯한 6 · 25때 산화한 일체 모든 영가를 위한 영단이 차려졌으며 1천700송이의 국화꽃으로 장식됐다. 이날 천도재는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 회향됐다. **배지선 기자**

영 · 호남 종교인 화합 한마당

영 · 호남 종교인 친선 교류와 화합을 위해 영호남 종교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였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 주최로 6월 10~11일 부산에서 열린 영 · 호남 종교지도자 모임은 8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세미나, UN 공원 참배 및 순국 영령들을 위한 추모재 등의 공식 일정과 삼광사, 원불교 부산교구 초청 오찬 등의 시간을 통해 영호남 종교지도자들의 화합을 다졌다.

특히 10일 오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APEC 성공 개최와 지방분권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황한식 박사의 주제 강연과 각 종교 지도자들의 주제 발표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통영사암련, 대규모 방생법회

통영불교사암주지연합회(회장 선곡)와 통영시는 6월 9일 제2회 세계평화 기원을 위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도남관광지에서 열린 식전행사와 개회식 및 법회에 이어 욕지면 연화도 용머리해역에서 가진 어류방류로 회향된 이날 방생법회는 양식 어류 판매와 방류사업을 불교의 방생법회와 병행한 행사로 관심을 모았다. 효천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생법회는 선곡 스님의 대회사, 고산 스님의 법어, 진의장 통영시장의 격려사, 우담 쌍계사 주지 격려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2천여 사부대중이 전국에서 참여해 방생의 참뜻을 새겼다. **천미희 기자**

소림사 내 입주단체 축구대회



“소림! 소림! 소림 파이팅!”

6월 6일 초량 초등학교, 대학생, 청년, 보살 할 것 없이 손을 모으고 파이팅을 외쳤다(사진). 이들 모두는 소림사 불교회관에 입주해 있는 신행단체 회원들. 대학생불교동문회 부산지부(지부장 장영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 소림청년회(회장 조재효), 소림사신도회 등 소림사 불교회관 내에 입주해있는 단체의 회원들이 첫 합동 체육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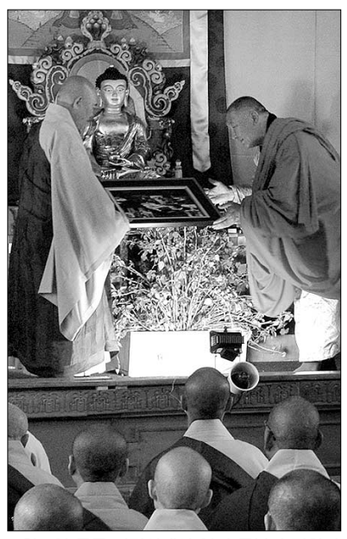
대불련 부산지부 대 대불청 부산지회의 축구경기가 시작되자 패기로 똘똘 뭉친 대불련 후배들은 대불청 선배들과 운동장을 달리며 비지땀을 흘렸다. 장영길 대불련 부산지부 지부장은 “한바탕 경기를 하고 나니 어떤 일이든 한마음으로 힘 모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관음사 환희불교복지대 입학식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 환희불교 복지대학은 6월 8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제1기 불교교리반 입학식을 가졌다.

매주 화, 수요일에 수업을 갖는 불교교리반은 송광사 승가대 강주 도암 스님, 송광사 승가대 학감 원경 스님, 송광사 율원 율감 정원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등이 강사로, 불교복지, 부처님 가르침, 계율의 이해, 자원봉사, 발심수행, 불교역사, 보조국사 선서상, 사경하는 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불교 위해 한 · 몽 같이 나갑시다



6월 6일 몽골 간단사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왼쪽)이 간단사 주지 초이참츠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동화사, 성지순례 우호 다져 스님 장학생 선발 공부 지원

대구지역 불교계가 한국과 몽골불교계 간의 교류 확대에 새 장을 열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150여명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몽골불교성지순례를 갖고 양국 불교계의 교류와 우호를 다졌다. 한국과 몽골 불교계는 △양국 불교의 비교 연구 △양국 스님들의 교류 △불교 대학간의 교류 △불교 유물에 대한 연구 등 4가지 사항의 교류 협력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몽골측에서는 ‘몽한불교교류협의회’를 결성해, 지난해 출범한 한몽불교교류협의회와 활발한 교류를 펼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몽골 간단사의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몽골방문에서는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몽골 불교계 주요 스님들과 몽골 정부 관료, 현지 교민들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을 갖는 등 양국 불교계간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들이 이어졌다.

특히 6일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봉행된 동북아 평화기원대법회는 동화사 지성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장영관 조계종 9교구 신도회장 등 대구지역 불교계 인사와 간단사 주지 초이참츠 스님 등 몽골 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한국과 몽골문화의 주인공은 불교이기에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우뚝서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초이참츠 스님은 “한국과 몽골 모두 오랜 불교역사를 갖고 있어 불교를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했다.

한국방문단은 몽골 불교계 중흥을 위한 기금과 어려운 몽골인을 돕기 위한 생필품 110박스를 전달했다.

동화사는 이번 몽골 순례를 계기로 매년 3~5명 정도의 몽골스님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금주의 발원

오늘하루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염불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참회하게 하옵시고
오늘하루 다비우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주지 정념 스님(사진 맨 왼쪽)과 대중 스님들이 6월10일 월정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신 뒤 설선당에서 108 대참회문을 독송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월정사에 부는 '新바람'

다양한 기획으로 지역 활성화 노력

소임 스님들 새벽예불부터 모든일 함께
19·20일 영화제등 문화·복지포교 주력

"보안아,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다 환(幻)과 같아서 몸의 모습은 사대(四大)에 속하고 마음의 성품은 육진(六塵)으로 돌아가나니 사대의 체(體)가 각각 여의면 무엇이 화합한 자가 되리오."

새벽 4시 30분 평창 월정사 설선당.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독송하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진다. 새벽예불을 모신 뒤 설선당으로 자리를 옮긴 주지 정념 스님과 대중스님들은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 목소리로 읽은 후 '108 대참회문'을 외며 108배를 한다. 이렇게 월정사 소임자 스님들은 매일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점검하고 있다. 월정사의 일상적인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정념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월정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월정사는 지난 5월 월정사를 출발해 상원사까지 약 10km를 걷는 '제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천년의 숲길을 찾아가는 오대산 산사영화제'를 연다. 상영될 '달마야 서울가자'는 일반 극장보다 1주일 전에 선보이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거리 좁히기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노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중국 오대산을 방문해 불교문화교류 및 수행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00년 만에 한국과 중국 문수신앙이 서로 만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문수신앙과 화엄사상을 꽃피운 상원사의 역사를 계승하고 한국 불교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서다.

월정사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행 · 복지 · 문화' 세 가지 코드에 중심을 둔 월정사는 수행가풍 확립을 위해 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념 스님이 상원사 주지로 있을 때 재개원한 청량선원을 근간으로 한다. 또 주말수련법회를 활성화하고 불교대학, 단기출가학교, 국제적인 선 수련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노후복지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정념 스님은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방산굴에 노스님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문제가 해결돼야 불교 내부의 주지인사문제, 재정의 투명화, 공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천년 숲길 걷기대회와 산사영화제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봄에는 청소년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여름에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오대제'를, 단풍구경을 많이 오는 가을에는 개산대재와 함께 '불교문화축제'를 여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열린 교구 종회에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억 3천만 원을 출연해 장학회도 출범시켰다. 또 강릉불교방송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며, '웹진'을 만들어 인터넷 포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지스님 뿐 아니라 대중스님들과 재가 종무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격의 없는 토론 과정을 통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각종 불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사찰은 대중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또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중들의 힘으로 절차하고 탁마해야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월정사=남동우 기자

'호국보훈의 달' 추모행사 잇달아



강진 백련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 추모법회.

강진 백련사·광주불교사암련 천도재·방생법회로 넋 기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법회와 천도재 및 방생대법회가 잇달아 봉행됐다.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6월 6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금년으로 4번째 열린 이날 추모재에는 전몰군경의 미망인과 유족,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주지 혜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의 뜻이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번 추모재를 후원한 광주지방보훈청 이철조 청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호국영령의 터전위에 살고있다"며 "전몰군경의 치열한 구국정신을 받들어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백련사와 광주지방보훈청은 2001년 10월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일에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는 4일 경주 문무왕 수중능 백사장에서 '호국선열 · 전몰군경을 위한 천도재 및 합동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영가 천도의식, 축원, 방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광주지역 20여 사찰 1000여명의 신도가 동참했다.

방생에 앞서 광주사암연 회장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달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뜻을 기리는 호국의 달"이라며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했던 문무대왕의 숭고한 뜻이 담긴 이곳 수중능에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팔마청소년 환경백일장 박상준·이미선 학생 '대상'

전남동부 교사불자회(회장 최병주)와 대한불청 전남지구(회장 박우순)가 공동으로 개최한 '마음청정 국토청정 팔마청소년 환경백일장' 시상식이 6월 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상준(그림, 남산중), 이미선(글짓기, 효산고)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받고 김명희 (동명초등)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60여명이 분야별 상을 수상했다.

시상에 앞서 순천사암련 회장 일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듯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그림과 글에 나타나있듯 깨끗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어른들이 보호하자"고 말했다.

한편 팔마청소년 환경 백일장은 지난달 22일 순천 동천 고수부지에서 순천지역 초,중,고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준엽 기자

약천사, 부처님그리기대회

제주 약천사(주지 원조)는 6월 20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주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3회 '전도 학생 부처님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약천사와 분다클럽 천지회(회장 고대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인 도지사상 2명, 최우수상인 제주시장상 서귀포시장상 북제주군상 등 각 2명씩 총 6개 부문에 걸쳐 13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는 당일까지 약천사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된다.(064)738-5000

강유신 기자

제주 남국선원 시민선방 상설

무문관으로 유명한 서귀포 남국선원에 재가자를 위한 상설 시민선방이 생겼다. 남국선원(주지 성묵)은 올 하안거 결제일인 6월 2일부터 재가자 60여 명의 방부신청을 받아 상설 시민선방을 열었다. 남국선원에서는 그동안 재가자를 대상으로 선방스님과 똑같은 일과로 안거기간에 정진하는 선방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번 시민선방 상설 운영은 제주도내에 불교 수행 지도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064)733-2278

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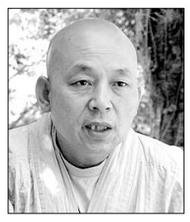
충남 아산 동심사

기도하기 편한 절



1998년 완공된 동심사 극락보전. 아래사진은 주지 향담 스님.

솔선수범 불사로 지역민 신임 얻어
복지 수행 위한 최고 도량 목표



온천레저시설로 유명한 아산 스파비스 인근에 위치한 동심사. 동심사로 오르는 길은 참으로 유유자적하다. 친근한 벗처럼 다정다감한 길을 걷노라면 이만한 절 길도 없을 듯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생긴 것은 1996년이다. 고려시대 창건됐다가 다 쓰러져가는 산신각과 요사채만 남았던 이 곳에 동심사가 다시 복원되면서부터 마을은 술렁대기 시작했다. 절이 있어서 '절 골'로 불리는 마을에 웬 스님이 절을 복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와 전기조차 없었던 이 곳에서 '맨손'으로 불사를 시작한 향담 스님은 계곡에 길을 내고 극락보전과 요사채도 건립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던 마을 주민들도 직접 장갑을 끼고 일하는 스님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대민봉사에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스님에게 마을주민들은 감사패까지 주었을 정도로 스님과 마을 주민들과의 신의는 두텁다.

향담 스님은 자신을 스스로 '머슴'이라고 부른다. 논농사 밭농사를 직접 해서 곡식과 채소를 거둬 지역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복장도 늘 작업복 차림이다.

동심사는 98년 극락보전이 완공되면서 지장도량으로 자리잡았고, 지금은 아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도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을 정도가 됐다. 스님 자신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96년부터 지장천일기도를 시작해 지난 5월 30일에는 다시 3차 기도에 들어갔다. 동심사에서는 스님도 신도들도 모두 열심히 기도하며 불심을 닦고 있다.

동심사 신도인 원유자 보살(48 · 천안)과 권정희 보살(48 · 평택)은 "다른 절도 많이 가봤지만 동심사만큼 기도하기에 편안한 절도 없다"며 자랑한다. 동심사의 주변 경관이나 사찰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자랑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향담 스님은 아직도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200평 규모의 요사채도 건립하고 종각도 세워 신도들에게 더 좋은 수행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그리고 절 앞의 4000여평 밭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 아산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음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꿈도 꾸고 있다.

해마다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동심사는 오늘도 최고의 기도도량을 목표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041)542-5747

아산=한명우 기자

우예인다카 사야도 초청 위빠사나 수련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위빠사나 수행법

"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많으나 위빠사나 수행하는 이는 적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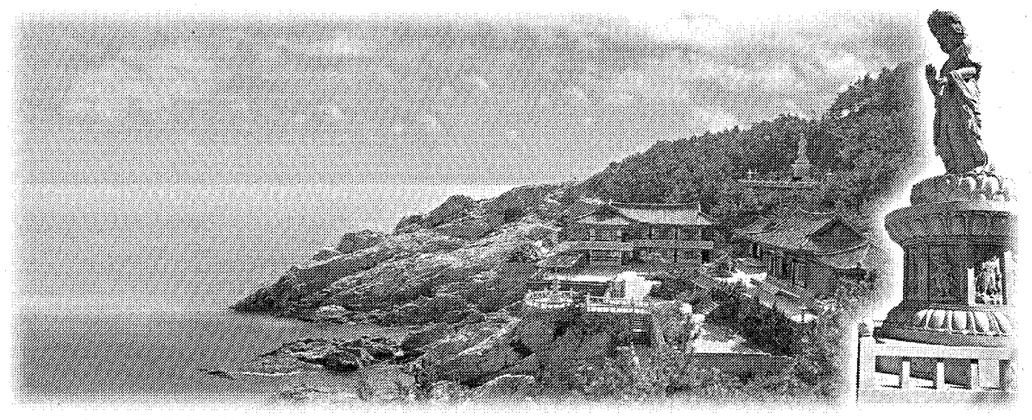
◆ 일 시 : 1차 6월 25일(금) ~ 7월 4일(일) - 9박 10일
2차 7월 8일(금) ~ 7월 18일(일) - 9박 10일
◆ 수 련 비 : 30만원
◆ 지도스님 : 우 에인다까 사야도 (미얀마 스님)
◆ 준 비 물 : 간편복장, 세면도구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77 - 25 - 0000 - 906 봉인사
*** 전화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사야도 에인다까 ◎ 품계 : 담마 까디까 (법문 법사) ◎ 깜마 타나 싸리야 (수행지도 법사)
- 1956년생
- 10세 출가 - 제방 스승을 찾아 삼장을 섭렵함.
- 33세 마하시 선원, 냐웅깡에 선원, 모곡선원, 아웅담마 선원에서 용맹정진
- 36세 5년간 강원(비구, 사미)에서 삼장을 가르침(긴타와사까 라는 칭호로)
- 41세 마하시 선원에서 "깜마라나 싸리야"사야도로 추대됨
- 42세 따담 마란디 선원 큰 사야도의 십대 제자로 지금까지 수행지도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연락처 : 031) 574-5585 , 528 - 5585 / fax 031) 574 - 080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 2리 304번지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문화·복지불사로 수행전통 승화

충남 예산·서산 경허·만공 선풍잇기 한창… 어린이·청소년 포교도 활발

사암련 활동 재정비로 '서해안 불교' 확립

근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와 경허 선사의 선풍을 계승한 만공 선사. 예산과 서산 불교는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이 흐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산 수덕사를 축으로 두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대부분이 수덕사 말사다. 한마디로 덕숭문중의 뿌리가 두 지역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두 지역 불교가 수행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두 지역의 사찰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수행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 불교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산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찰을 찾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행 외에 지역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예산과의 차이점이다.

예산 불교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수덕사를 중심으로 수행풍토 진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선원만도 정혜사와 견성암 두 곳의 수덕사 선원과 향천사 천불선원, 보덕사 문수선원 등 모두 네 곳의 선원이 있다. 한 지역에 네 곳의 선원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예산 불교가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산 불교는 지역 불교의 발전 방향도 수행 풍토 강화에 두고 있다. 우선 수덕사의 경우 조사전을 건립해 경허, 만공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의 영정을 모실 계획이며,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또 덕숭문중의 선맥을 사진과 글로 설명하는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경허, 만공, 탄허, 원담, 벽초, 혜암 스님 등을 중심으로 한 선맥 자료를 정리해 선풍을 올곧게 계승하는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신도들의 수행풍토도 대단하다. 수덕사의 50여 신도들은 매월 한차례씩 철야정진을 하고 있고, 향천사와 광덕사 신도들은 안거 결제 때마다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 또 예산 불교를 대표하는 수덕사와 향천사는 올 여름부터 여름 선수련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선수행 풍토 진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 불교를 말하면서 빼놓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향천사 신도회다. 향천사에는 사찰 전체 신도회, 거사림회, 유마거사림회,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등 신도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거사림회가 60대 미만의 거사림회와 60대 이상의 유마거사림회로 구성돼 있는 것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서로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거사림회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는 그만큼 거사림회 조직이 탄탄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유마거사림회는 전직 교수, 군수, 기관장 등 지역의 유지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다.

사암연합회 활동은 다소 미약하다. 따라서 포교활동도 비교적 약한 편이다. 하지만 예산의 사찰들은 '찾아가는 불교' 보다는 '찾아오는 불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포교라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수행풍토가 확고하면 스님이 존경받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절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사암연합회 회장 옹산 스님(향천사 주지)은 "수행보다 더한 포교는 없다"며 "이것이 예산 불교의 힘이자 자랑"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경허, 만공 선사의 맥을 잇고 있는 서산 불교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서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서광사는 지역 불교센터이자 종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역화 불사'를 벌이고 있는데, 8천 평 부지에 청소년 불교수련원, 불교 혼례식장과 장례식장, 복지원 건립 공사가 다음달인 7월 중순 착공돼 8년 후에는 대규모 불교타운이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해 아직도 기복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불자들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며, 각종 봉사활동 등 지역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석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새 탐조 템플스테이' 와 '야생화 템플스테이'를 더욱 확고히 해 '템플스테이' 사찰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스님과 신도들을 위한 수행공간과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심사는 수행사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킬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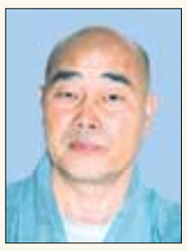

예산향천사 부속 '향천유치원' 어린이들이 8일 오후 향천사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 '철새 탐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찰하는 모습.


수덕사 황하정루에서는 초파일부터 '선서화전'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서광사 불사가 끝나는 8년 후에는 부석사-서광사-개심사를 잇는 수행 벨트가 형성되며, 지역 포교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 서산=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정 스님


혜안 스님


종학 스님


선광 스님


도신 스님


주경 스님


동우 스님


권오창 거사


이춘용 거사

예산·서산 불교 이끄는 주역들

지역불교화합 앞장

법정 스님(예산 수덕사 주지)

지역에서 교구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듯이 예산과 서산 지역 스님들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 수덕사 주지로 부임한 후 1년 3개월 동안 전임 주지였던 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시작한 각종 불사를 원만히 마무리해가고 있으며, 조사전 건립과 일주문을 다시 세우는 등의 새로운 불사계획도 세워놓았다.

만공장학회를 법인화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 재학 중인 문중 스님에게만 지원하던 장학금을 강원과 선원 스님들에게도 확대하고, 지원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 신도 포교에 주력하면서 승려노후복지에도 비중을 두고, 예산 불교의 화합과 문중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외 이웃위해 헌신

혜안 스님(예산 광덕사 주지)

30여 년 동안 오갈 데 없는 아이들 50여명을 키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0년 다 쓰러져가던 이곳 광덕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은 지역복지에 열정을 쏟고 있다. 매년 무의탁노인과 경로단체에 성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런 공로로 지난해 '자랑스런 충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인복지 시설과 시민선방을 개설하는 것이 스님의 꿈이다.

'지게 스님'으로 유명

종학 스님(예산 탈해사 주지)

현재의 탈해사를 일구기까지는 종학 스님의 노력이 컸다. 손수 지게를 지고 건축자재를 산으로 나르면서 불사를 했고, 그래서 '지게 스님'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신도들의 기도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토굴 법당 건립 불사를 하고 있다. 여력이 닿는 날까지 불사를 해서 신도들에게 모두 회향하겠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수행·보살행 늘 강조

선광 스님(서산 개심사 주지)

서산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 법랍 40년인 조계종 중진 스님으로,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개심사에서만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곳을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선방 수좌출신으로 지금도 안거 때면 빠짐없이 선원에 들어가 용맹정진한다.

평소 신도들에게도 수행을 강조하며, 수행의 근본이 보살행에 있음을 역설한다.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후원을 해오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문화불사의 선봉

도신 스님(서산 서광사 주지·서산 사암련 회장)

기타치며 노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하다. 2001년 서광사 주지로 부임하기 전까지 찬불가 보급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서광사 불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서산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 단합에도 전력을 쏟으면서 서산에 새로운 불교바람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서광사를 서산의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사암련 차원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철새 템플스테이' 실시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과 포교원 포교국장, 신도국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도신 스님과 함께 서산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지난해 가을부터 천수만에서 철새를 관찰하고 산사체험을 하는 '철새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등 부석사를 '템플스테이 사찰'로 가꾸고 있다.

사찰에서 파라미타 청소년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3명의 불우한 어린이를 키우는 등 어린이·청소년·청년 포교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외에도 사암연합회 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교화로 분주

동우 스님(서산 송덕암 주지)

30년 넘게 송덕암을 지켜온 서산 불교의 터줏대감이다. 태고종 종회의원, 태고종 충남교구호법위원장, 천안소년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아 4년 전 홍성에 기원정사 포교원을 설립하고 인근 군부대 지도법사를 맡아 매달 네 차례 법회를 열고 있으며, 혜전대와 청운대 불교학생회 법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서산 한서대 불교학생회 창립계획도 세워놓았다.

지역 신도들의 대부

권오창 거사(제7교구 신도회장)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등의 수덕사 말사 신도회를 대표하는 제7교구 신도회를 이끌고 있다. 교구 신도조직을 강화하고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중이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선 3번, 민선 2번의 예산군수를 역임했으며, 향천사 신도이기도 하다.

거사불교운동의 기수

이춘용 거사(향천사 유마거사림회장)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이자 20년 전 거사림회 창립 당시의 멤버. 유마거사림회원 부인들도 대부분 향천사 신도들이다. 거사림회를 후원하며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도 한다. 봄 가을로 성지순례를 다니며, 매월 한차례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안거때에는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

돋보기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수덕사 조계종 제7교구본사. 산세가 수려한 덕숭산에 자리잡은 수덕사는 백제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민족문화유산인 대웅전(국보 제49호)을 비롯해 많은 문화유적이 숨쉬고 있다. 근대한국불교의 중흥지로서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의 선풍이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인근에 덕산온천이 있고 사하촌도 깔끔하게 정비돼 있어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041)337-6565


향천사 천불선원

향천사 예산 지역 사찰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숲 속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좋다. 사찰로 향하는 숲길이 아름다우며, 경내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바로 옆에 천불선원이 있으며, 사찰과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향천사가 운영하는 향천유치원이 있다. (041)331-3556

탈해사 예산의 용비산 430m 높이에 위치한 수덕사 포교당으로 백제 의자왕 16년에 창건됐다. 5m 높이의 청동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으며, 보는 방향에 따라 바위 모양이 조금씩 달라보인다는 '장수턱걸이 바위'가 눈길을 끈다. 지장도량으로 신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041)334-7798


개심사 입구 전경.

개심사 400년 전 모습 그대로의 사찰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개심사로 가라. 깨진 기와조각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서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찰.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조용한 산사 분위기를 만끽하기에는 그만인 곳이다. 개심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올라가면 개심사 보현선원을 볼 수 있다. (041)688-2256

부석사 거목들이 늘어선 부석사로 향하는 길이 부석사의 오랜 역사를 말해 준다. 도비산 250m 높이에 위치한 부석사 앞마당에서 내려다보면 서산 앞바다가 보인다. 극락전과 신검당 뒷편은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부석사를 둘러싼 주변경관은 가히 일품이다.(041)662-2824

송덕암 예산과 서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잘 가꿔진 도량이 인상적이다. 약사전에는 조선시대 송덕암이 창건될 당시 현 송덕암 자리에서 발견됐다는 자연석으로 된 약사불이 모셔져 있는 것이 독특하다. 약사도량으로 유명해 찾는 이들이 많다. (041)688-2913

천장사 백제 무왕 34년에 담화 선사가 수도하기 위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 전통사찰.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한 사찰이다. 규모는 작지만 연암산의 경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서산 고북면에 위치 .(041)663-2074

“나눔문화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대원정사, 본사에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대원불교대학, 부스러기사랑회에 100만원 전달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왼쪽)가 6월9일 본사 김광삼 사장에게 나눔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6월 9일 본사가 진행 중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 법사는 “평소 나눔의 운동이 교계에서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현대불교에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수희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사 김광삼 사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원정사는 5월 한 달 동안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쳐, 남산순환도로에 2천9백1개의 연등(한등 3천원)을 매달아 8백70만3천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원정사 신도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29만7천원을 본사에 전달했다.

한편 대원불교대학 학생회(회장 이치호)는 8일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결식아동돕기 성금 93만9천원을 전달했다.



대원불교대 학생회가 부스러기사랑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이치호 회장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전날 일일찻집을 개최했다”며 “좋은 일에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림 사무국장은 “바쁜 가운데 일일찻집까지 열러 모은 성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가난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급식비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용천어린이에게 희망을

아차산 영화사서 희생자 위령재

소학교 건립기금 모금 법회 열려

용천역 열차 폭발사건으로 파괴된 용천소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법회가 열렸다.

(사)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9일 아차산 영화사 대웅전에서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재(49재) 및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법회를 개최했다.

제1부 희생당한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혼의식에 이어 열린 제 2부 법회는 삼귀의, 경과보고, 법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헌화,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 제사 순으로 봉행됐다.

월주 스님은 “이번에 발생한 용천참사로 망연자실해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용천지역 어린학생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용천소학교 건립에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을 7월 하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 3432-6770

김원우 기자



지구촌 공생회가 6월9일 영화사 대웅전에서 룡천 소학교 건립기금 모금법회를 개최했다.

“스님! 공양미를 보내주세요”

끼니 거르는 어린이·청소년이 기다립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밥을 거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찰에 들어오는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요. 공양미를 본사로 보내주시면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불교계 봉사단체에 전달해 드립니다. 또 후원처를 지정해 주시거나 지원 분야를 선정해 주시면 본사에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2) 722-4162

작은 정성 큰 기쁨 생필품·공양미 보시 이어져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생필품과 공양미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용인 대덕사(주지 일하)가 생필품 필요 양로원 및 고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일하 스님은 “매달 지장재일에 보시를 실천할 계획”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덕사는 5월 한달 동안 용인지역 2곳에 생필품을 전달한바 있으며, 6월에는 본사가 추천한 의정부 선재동자원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왕선)도 본사에 전북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추천을 요청했다. 총무 진성 스님은 “매달 사찰에 들어오는 공양미와 과일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안양 묘혜심 보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가마를 본사에 보내왔다. 묘혜심 보살은 “매달 이웃을 위한 쌀을 보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사는 쌀 2가마를 실직한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서 생활하는 진수혁 학생에게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갑니다

‘부처를닮은사람들’ 봉사활동 신청

경기도 용인과 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처를닮은사람들(대표 의선, 수지포교원 주지)이 본사가 벌이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봉사단체로 등록했다.

의선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에 힘을 함께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 한다”며 “교도소와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돕기등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모든 것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부처를닮은사람들은 현재 회원이 70여명이며, 용인 수지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 266-6526

김원우 기자

▮소년소녀가장 결연신청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중창단모임이 소년소녀가장 결연을 신청했다. 문의 02)722-4162

▮성금내신분

남양주시 화도읍 극락사(주지 화답 스님) 220,000원
천안시 백석동 백석주공열쇠(대표 윤석길) 27,130원
최재순 보살 30,000원

▮알립니다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강원도 횡성 죽림정사(주지법사 이선행)
스티커- 100장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오혜진씨
저금통- 7개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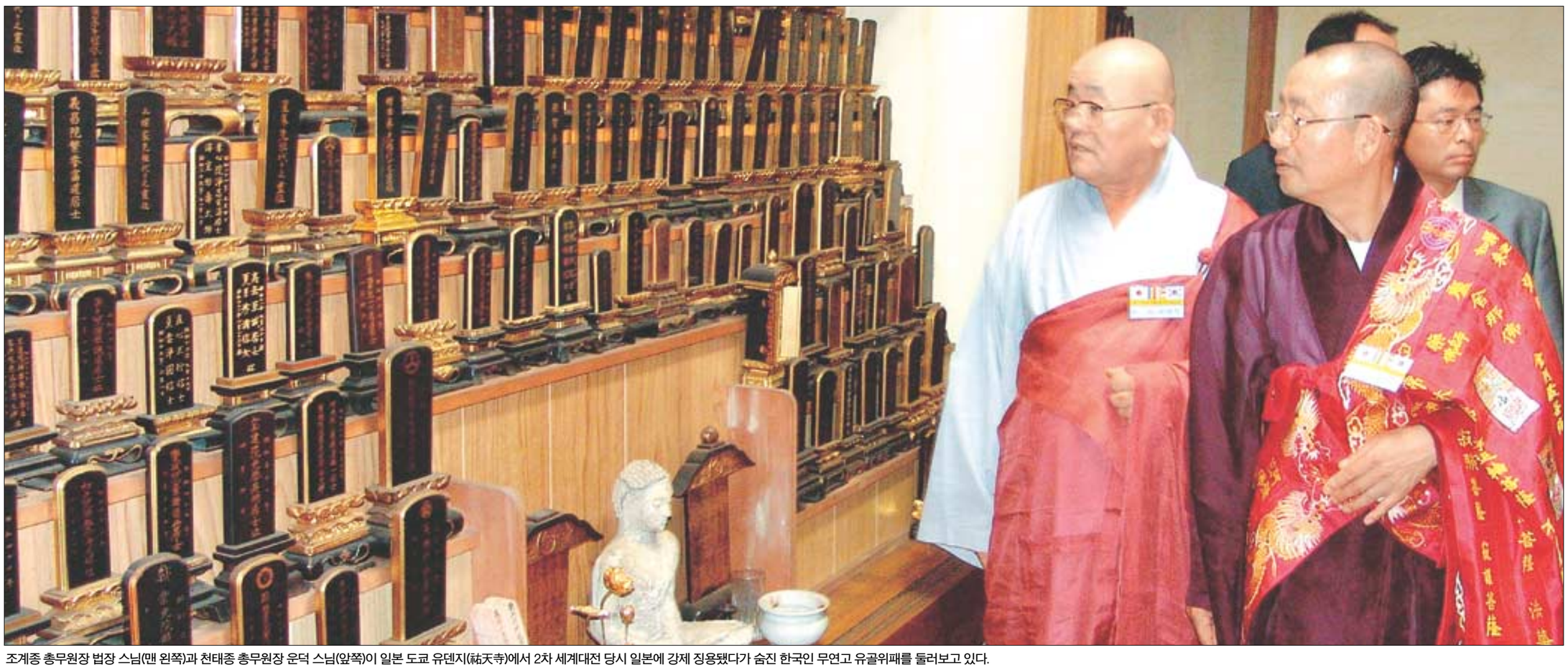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맨 왼쪽)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앞쪽)이 일본 도쿄 유덴지(祐天寺)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한국인 무연고 유골위패를 둘러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길…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들 위한 위령제 현장

1천136기 한인 희생자 유골…750여 기는 남한 주소 지녀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도쿄 유덴지서 한국식 법요로 진행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 편히 잠들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의 무연고 유골 1,136기가 안치되어 있는 일본 도쿄 유덴지(祐天寺). 2차대전이 끝난지 59년이 지난 6월 10일, 강제 징용의 설움을 가슴에 품고 바다 건너 일본땅에서 죽은 한국인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죽어서조차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에서 주요 종단 대표들이 반세기하고도 9년이 더 지난 뒤에야 그들을 찾아온 것이다.

유덴지 본당에서 열린 이날 위령제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1978년 첫 교류를 시작한 이후 두 나라 불교계는 유골의 한국 송환을 위해 10여년간 협의해 왔다. 그러나 한국인 유골은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반환이 이뤄지지 못한채 도쿄 외곽의 조그만 사찰에 봉안돼 있다.

1,136기의 한국인 희생자 유골이 유덴지에 봉안된 것은 일본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연고가 있는 유골은 이미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송환됐고 연고자를 찾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750여기는 남한의 주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남겨진 유골은 이들만이 아니다. 박상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상임이사는 이 곳 외에도 한국인들의 유골과 위패는 일본 곳곳의 사찰에 흩어져 안치돼 있다고 귀띔한다.

한국 불교 대표단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는 한국식 법요로 진행됐다. 집전은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과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스님이 맡았다. 일본 사찰에서 열리는 한국의 법회인 셈이었다.



이날 위령제를 위해 한국측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종사, 원효종 총무원장 무진 스님 등 주요 종단 총무원장과 태고종 중앙호법위원장 법장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등 2백여명이 이 곳 유덴지를 찾았다.

멀지 않은 한국 역사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일본측 대표로 참가한 미야바이시 쇼겐 일한불교교류협회장과 미즈타니 코쇼 정토종 종무총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위령제는 6월 9일 가마쿠라(鎌倉) 고메이지(光明寺)에서 열린 제2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 한국불교계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위령제를 통해 양국의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알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듭을 풀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1965년 한 · 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일본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2년전 유덴지에서 첫 위령제를 연 뒤 2차 대전이 끝난지 57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인의 유골이 일본내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상축과 다니 겐쇼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의 추모사가 낭독되자 위령제가 열리는 현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운덕 스님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유골 앞에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개를 떨궜다.

법당에 모인 양국 대표단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그 가운데서 불교무용가 정덕자 씨의 살풀이 춤 사위가 펼쳐졌다. 정 씨는 온몸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담았다. 그렇게라도 한국인 희생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기도했다.

위령제가 끝나고 유골이 안치돼 있는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태평양전쟁 조선반도 출신 구 일본군인 군속 전몰자 영위(太平洋戰爭 朝鮮半島 出身舊 日本 軍人 軍屬 戰歿者 靈位)라고 쓰인 위패 앞에서 분향한 뒤 합장했다. 한국측의 한 참가자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면서 되뇌었다.

"얼른 가야지, 여기서 뭐하노. 얼른 가자."

글 · 사진/일본 도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사진 왼쪽 · 총화종 총무원장)과 일본측 사무총장이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6월10일 도쿄 유덴지에서 한국과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 (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 (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여객연합불자회 23일 대흥사서 '시동'

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가 창립된다.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6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창립법회 및 합동 수계식을 봉행하기로 했다.

여객연합불자회 출범은 여객 운송업 운전기사 신행단체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위는 창립 발기인 모임에서 준비위원장에 광주 · 전남 포교사단 이재술(48 · 계성 · 금호고속) 씨를 선임했으며, 회원은 현재 금호, 중앙, 동양, 한진고속 등 고속버스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개인 관광버스 운전기사 2백여 명이 가입했다.

준비위는 우선 정기적인 신행활동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불규칙한 배차시간에 따른 회원들의 근무여건으로, 지역별 소속사별 법회를 봉

고속버스 기사 2백여명 가입
터미널 부근에서 정기법회

행할 방침이다. 또 법회 장소도 각 지역 터미널 부근에서 간이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를위해 '월별 신행스케줄'을 마련해 최적의 신행활동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위는 가족 중심의 신행활동 전개를 추진한다. 이는 회원들 대부분이 잦은 운행으로 모이기가 힘든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객연합불자회의 중심을 부부 소모임에 둔다는 방안이다.

준비위는 이와함께 지역별로 자원봉사활동도 펼치는 한편 각 지역 사찰별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신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객연합불자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술 씨는 "지난 3년간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불자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불자연합회가 늦게 출범한 만큼 불교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직장신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11-797-0679

김철우 기자

부처님께 배우는 직장인의 성공 기술 세가지

"00씨, 이 고객의 불만사항에 답장할 수 있겠어요?"

"예, 과장님.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회사에 넘겨야 할 편지를 기다려야겠는데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직장인 처세술의 한 장면. 치열한 일터에서 직장인들은 '일과 성공'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다. 때론 핑계를 대며 비껴 가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독일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인 외르크 찌트라우 박사는 최근 발간한 <위대한 스승 붓다에게 배우는 직장인의 성공법칙(도서출판 이손)>에서 '당신의 가슴이 비어 있다면, 이미 성공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고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성공하기 위한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가슴을 비워라

● 좋은 인연 맺기

'비판은 보물지도'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온다. 인간관계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말들을 달게 받아들여 한다는 말이다. 만약 직장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면, 불교적 해소법은 없을까. 부처님은 아침밥처럼 일상화된 '책임 미루기'를 지적한다.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다. 책임과 무책임을 따지는 것은 헛된 일이다. 책임에 관한 물음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한다. 상사로서 판사의 역할을 떠맡아서는 안 되고, 밖으로 물러나서 문제의 해결책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도 버리라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자신을 집착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돕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덜 받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착하지 않기

관대함은 직장인들에게 무집착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부처님은 누군가 집착을 버리고 태연함을 원한다면 반항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체와의 분리는 욕심이나 고집이 주도하지 않는 이완된 정신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무관심의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과거와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일순간일 뿐인 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또 항상심(恒常心)을 연습하라고 당부한다. 어느 상황에서든 항상심을 보여야 고요한 침착함이 발산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주문 사항은 또 있다. 관대함은 불교의 중심 기둥이라는 것.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관대함은 성공을 원하는 직장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람을 끄는 개방성과 솔직함

당당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라. 참여적인 직원들은 상사의 분명한 말들, 위험 부담에 대한 대처와 망설임 없는 결정을 중요시한다.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라. 부서와 회사 전체가 해당하는 일에 관해서는 가능한 비밀에 부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관심 있는 직원들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계획되고 있는지 어디가 성공적이고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솔직함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이끄는 기술이다.

결국 부처님은 '마음의 복종(心伏)'이 바로 일터에서의 진정한 성공법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시대에 늘어만 가는 '신뢰의 상실'. 신뢰의 회복만이 직장동료를 굳건한 동반자로 이끄는 성공의 토대라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그림 · 김영민

우리불자회는요

강원도청 법우회

강원도청 법우회는 지난해 11월 7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친목을 돈독히 하기위해서 뭉쳤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이 공직자이니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국민에게 무한한 봉사와 불자다운 공직자의 자세를 구현하고자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아직 창립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활동내용은 미흡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팔공산 파계사 강주와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의 지도아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1백여 회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법우회 초창기 때는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이 당당히 불자라는 것을 들어내는 것부터 꺼려하고, 또 참여가 소극적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철우 스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회원 각자의 노력으로 강원도청 법우회도 불교신행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법우회의 활동계획은 먼저, 회원 신심고취에 최우선을 둘 생각입니다. 둘째, 회원3백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원도불자회연합회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법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불교세가 미약한 이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을 성실하게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신행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1가정 부처님 모시고 예불실천하기', 지속적인 교리강좌 개최, 다양한 법회 및 위탁수련활동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불자 봉사의 날 지정' 해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적 계율실천하기' '중점수행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6바라밀 실천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원도청 법우회원들이 6월 7일 춘천 반야사에서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가정에 부처님 모시고 예불하기' 전개
자치단체 불자회 창립 · 계율 실천 역점

또 도내 미창립 자치단체 불자회 창립을 유도하고 단위기관별 불자회의 임원진간 유대강화 및 연합회 결성을 추진해 도 단위 불자회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에 지속적인 포교와 불교신행활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의 각 기관별 지휘부에 대한 불자회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협의하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기념법회(10~11월경)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착실히 이행되어 도내의 불교신행단체조직 및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불법실천과 전파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불교신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공우 회장(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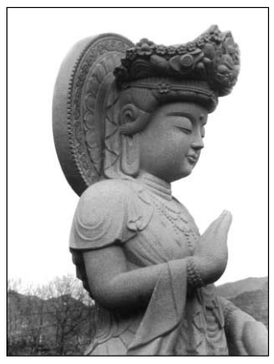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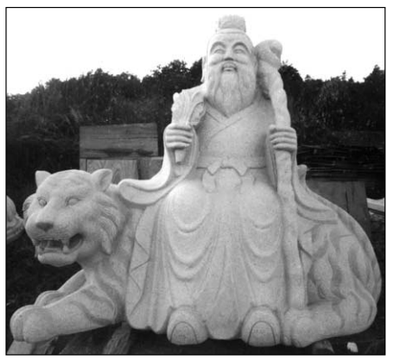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50분만 모십니다!

조계종 봉국사 납골당 특별분양
● 강북 정릉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넌 4회천도재 봉행
● 영구안치, 관리비무
● 분양문의 :
011-768-7038

평생직업 「역학상담반」 33기 모집요강

※ 확실한 곳에서 제대로 배웁시다!
▶명리학을 배웠으나 상담을 못하시는 분 (책임지도)
▶교육이수후(수료) 역학자격증, 법사자격증, 대학졸업증 수여
◎ 역학상담
●교육기간: 4개월 (화, 목, 토)
●교육시간: 주 13:00~16:00 야 19:00
●입학자격: 연령, 학력, 남녀 구별없음
●교육과목: 사주, 성명, 잡학, 불교학(책임지도)
●교육 이수후 취업 안내(ARS 전화상담 및 창업개설지원)
법왕불교대학 교무처 02)444-3459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77 모던빌딩5층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www.SAJU college.com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전화 주십시오.
032-343-5701
법안스님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분당에 위치한 좋은환경의 절로 함께 일하실 나이가 지긋하신 한의사 한분과 법사 혹은 거사님 한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9876-3388
031-707-0108

법납 8년된 비구스님입니다 기도스님 소임을 원합니다

010-3956-9698

사찰에서 1천만원이상 불사동참. 함께 기도 정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불자님 초빙
▷강원도 횡성
033)342-7825

신비의 약초 어성초

어성초 생즙 주문, 배달합니다
(솔잎 주문도 받습니다)
051)465-0607
010-2465-0607

새 법당에 후불탱화 보시할 분 모십니다

도심포교원에서 평생 기도 생활하실 분 모십니다
016-261-2068

산좋고 물좋은 사찰 가족되어 불사하며 함께 사실 분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공양주, 처사님 환영
033)342-7825

기도스님을 (비구니) 모십니다

054)833-2324
054)834-6934

조계종 청정도량으로 50대이상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957-5148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 보살, 처사님 함께 모십니다(60代)
053)633-1444
011-9855-503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女)행자님 구함

▷경기도 고양시
031)973-8534

토굴, 작은 암자, 외딴 촌집, 불사 가능한 터 (땅) 시주해 주실 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9122-0509
011-9416-226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378-1445

참신한 공양주를 모십니다

(55세 까지)
▷경기도 광주
011-742-8890

공양주 구함

(경험있고 나이 60세이상)
017-554-0737
033)671-2900
033)671-77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서산
041)662-3824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0-60세 까지, 신심 있는 보살님)
▷경기도 양평
※부부가 같이 오셔도 됩니다
011-825-6909

행자 및 기도스님 모십니다

(40세 미만)
▷경기도 하남시
재단법인 대표전화
031)764-3399
노전스님 010-5478-05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사천
055)854-5205
017-856-36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도, 비구니
011-540-7739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 처사1명 : 운전경력 10년 이상, 30-45세
- 행자 약간명 : 수도생활에 뜻이 있는 고졸이상의 남녀, 20-39세
011-230-5387
054)383-8032

창건사찰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 하실 스님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 행자 수행하실 분 구합니다
011-259-5989
031-881-3371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공부 요양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땜 옆
055)932-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011-744-1650

산좋고 물좋은 사찰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33)762-2225
017-273-2647

가족처럼 같이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을 구합니다(50세 이상)

▷강릉
016-350-11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서해안
041)673-2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대후반~60대초반)
▷대구 가창
011-9421-225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지역, 조계종사찰
011-9346-5719

공양주 보살님을 구합니다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천년고찰 불회사
061)337-3440
061)337-941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60대)
▷충남
010-8675-3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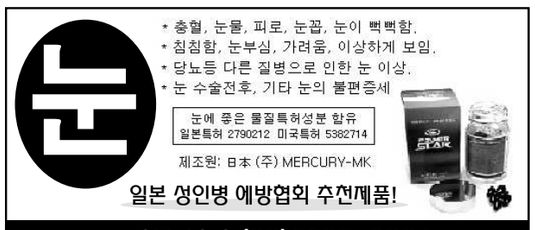
조계종(20년)비구스님입니다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토굴, 작은암자 불사 가능한터(경기, 강원) 시주해 주실분 인연기다리겠습니다
019-415-22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9723-0967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눈밝은 세상 (02)2237-8004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삼존불, 각 탱화 집기 비품 일체(포교당 물품) 가격은 저렴하게 별도 상담합니다.
019-488-6968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1천5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 최초의 석불(국보), 부처님을 모시고 천일기도에 뜻있는 보살님과 처사(30~45세)약간명 불교공부에 뜻이 있는 행자 약간명(20~39세)
054)383-8032
011-811-3600

사찰에서 일자리를 원합니다

50代 독신처사
▷1종대형면허소지
011-262-686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서울(급구)
02)386-0926
011-286-03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중심지역
051)264-9621/011-577-7600

사암鍼術학회 오행生食연구소 목당易학연구원

運睛室 生食

역학	침술	풍수	육효	작명	생식

음양五行生食
TEL. (02) 969-3169
969-0603

국제 보살계 수계법회

계는 만복의 근원이요 수행자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보살계를 이미 받으신 분이라 하드라도 계는 받을수록 좋은것이니 특히 국제 수계법회는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 3번만 수계를 받으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다겁생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지금 큰 공덕을 성취하는 복락을 누리십시요.

▶ 일 시 : 2004년 6월 27일 오전 10시~ 15:00까지
▶ 장 소 : 부처골 지장선원 노천법당(군위고을 화목 2리 인각사 절 못가서)
▶ TEL 054)383-8553, 011-9585-4908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또는 숫자 8228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조 계 종 (053)474-8228

유명사찰 정기운행

● 이사, 운영위원 : 부산시 각 구단위 한분씩 신심이 돈독하고 사찰운행에 뜻 있으신분
● 관광버스 : 현 지입차주 기사로서 사찰운행에 관심 있으신 불자
불교여행사 051)441-4785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사주와 성형관상의 대가 저자 김창규 원장의 생활역학전서
역학수강생모집 (개인지도)
● 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사주공부를 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분 비법전수(현재 포교원, 철학원 운영중인 분)
미래음양회 서울 02)904-3094
해동철학원 부산 051)808-3260 H·P 017-277-7145

현대불교 구독신청 02)737-0090

이제,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납부하세요 ~
- 전화요금 합산 납부 - 자동이체 납부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0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2(임법당)
- 요사 : 15평
- 부지 : 400평외 12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경기
- 법당 : 48평
- 요사 : 160평
- 부지 : 3500평
- 가액 : 6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9848-3178
016-603-0160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및 임야 20,500평
- 건물 : 대웅전,극락전,요사채3동 및 다수(연못2곳,석탑,불상등)
- 특징 : 1. 조경수려
  2. 예산시내와 인접하여 교통매우편리
- 가액 : 35억
- 실소유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433-4525
011-422-2909
011-9883-0008 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3천만원(절충가능)
- 가액 : 별도상담

033)766-005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041)753-81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최요지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금한 사정상 최저 양도

011-202-2205

지 리 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진주 50분거리
- 해발 700미터, 16,500여평 부지
- 법당, 주택3동, 황토집(빼치카, 통유리) 전망 웅장, 맥반석 계곡, 동남향 명당
- 선원, 기도원 적합, 차량 진입가
- 가액 : 4억 2000만원

011-9136-1314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천안시
- 부지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6천 5백만원
- 텃밭있음. 야산을 끼고 있음

- 위치 : 성남시 분당
- 법당 : 110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 3천만원, 월 350만원
  시설비 : 3천5백만원
- 도심포교 최고 위치이며 교통요지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9848-3178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시설비 포함 6천만원에 월60만원
- 살림일절, 몸만오셔서 포교하실분 따로상담가능

031)432-7406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소재(경산)
- 부지: 약 900평
- 법당: 25평(목재,단청)
- 요사채: 40평
- 가액: 1억8000만원
- 특징 : 도심인근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전북 남원시 소재
- 부지: 600평
- 법당: 30평(목조,삼포)
- 요사: 30평
- 기타: 석등, 황토방
- 가액: 4억 3천만원(전세가능)
- 특징 : 지방문화재(석불)가 있는 전통사찰로 도시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지로 좋습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아파트상가2층 전체 (6,7호선 태릉 입구역 400m)
- 평수: 전체 (32평), 법당(11평), 요사2동(12평)
- 실내 인테리어 완료, 역세권, 북부지원 인근. 가액 1억8천만원

011-9650-6104
02)949-6604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을 얻게 하소서!

숨쉬는 흙, 황토로 조성한 황토달마



원적외선 방출!
천연가습효과!
공기청향!

◆ 규격 :
가로 200mm
세로 300mm

◆ 특별보급가 :
~~₩98,000~~
₩44,000

◆ 연락처 : 011-701-2554

사찰안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지
- 대지 61평, 건평 50평 2층 법당 요사 겸
- 후불탱화,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 법회시설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031)254-64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채.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 부산
- 대지 : 4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3천
  ※도심 주택지 2층 임법당

- 위치 : 진주
- 부지 : 78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500만원(권리금)
  ※외딴 토굴겸 암자

- 위치 : 성주 가야산
- 대지 : 230평
- 주택 : 36평
- 가액 : 1억500만원
  ※가야산의 풍수만점 토굴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신축사찰-1억3천5백만원 (전세 4천5백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 법당 12평(목조),
- 요사채 25평(현대식)
- 가액: 9천만원 (불기 및 비품 일체)

016-652-7547

비구니 스님 선원 분양안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금선사 내 여래선원 3층건물 24세대 (1세대 17평)
- 준공검사 완료. 현재 입주가능
- 가액 : 17평 5,500만원(1층, 3층) 17평 5,700만원(2층)
- 연락처 :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011-538-3879 / 054)772-7171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시 화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부지, 대웅전 31평, 목조, 상포, 오포, 금단청 필 명부전 10평, 단청 필, 요사 80평, 방 10칸 주방 2개, 거실 주지실 10평, 기타 창고 약 6평, 주차장 100평정도
- 가액 : 9억(건물완공 약 7년)

※ 소개인 사절함

055)294-4889 / 011-554-0102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경치 좋고 산세 수려함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011-9126-226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덕풍동
- 보증금 :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법당 : 40평, 방4개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715-6333

포교원안내

- 위치 : 5호선 마천전철역 부근
- 평수: 40평, 법당 : 28평
- 방, 요사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200만원

011-356-6946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3동
- 1층 약 40평 방3칸 삼존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3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1)867-6630

사 찰 안 내

- 위치: 정동진(바다바로옆 위치) 전망최고
- 오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등기 되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3)644-5797
011-9918-525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전철역 부근
- 평수 : 약 50평 1층
- 가액 : 전세금 3천 2백만원 권리금 시설비는 현지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2)3216-1118
016-499-1232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0평
- 건물 : 40평
- 욕실2, 주방1, 방2 법당, 시설일체
- 전세 5500만원

011-732-6933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주 산내면 감산리
- 부지 : 1700평, 조경되어있음
- 건물 : 40평
- 땅 1161평은 건물 중축할 수 있음

054)751-5530
018-523-990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근처
- 평수 : 60평
- 최고급 시설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7-848-3330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사찰부지안내

- 서울에서 30~40분거리에 약5만평
- 이만한 거리에, 이만한 땅, 이만한 가격이면 최고의 조건
- 종단의 성지 건립 및 종합타운
- 대웅전, 요사채, 선방, 명상실, 수련원, 불교대학, 노스님 복지시설, 종단 신도분들의 전용 공원묘지 및 납골당
-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땅, 원매자는 아래로 연락바람

017-362-0577
031)947-2055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 IC근처
- 대지 : 500평, 법당1-80평, 신축회관, 한옥 23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임야 6천평-3천만원 (동해바다가 보임)

011-897-0120
033)661-1375
011-202-828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 대지 : 약 80평
- 전통한옥 현재 운영중
- 가액 : 2억 5천만원 (융자 6000만원 가능)

019-473-7600

포교당최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 평수 : 45평
- 큰법당1, 방2, 부엌, 목욕탕 삼존불(후불탱화), 지장불(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용왕불
- 전세 : 500만원, 월 45만원
- 사정상 급 안내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살림)

051)327-0477
019-556-6047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안동 예안면
- 법당시설 완비, 즉시법회가능
- 수행이나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적격
- 흙 벽돌집, 산세수려
- 가액: 1천5백만원(절충가능)

053)524-0315
016-606-0219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포교최적지)
- 평수 : 25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절충가능)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 있음

032)543-9245

포교당안내 (무속인 가능)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아래
- 평수: 법당 15평, 방4개
- 가액: 전세 3100만원 (권리금 무)

051)731-9677
055)386-3509
011-9585-1172

사찰안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파동 청룡산 서당골 입구. 계곡접 가창교 옆 시내버스 종점에서 50m
- 교통위치좋고 아파트 밀집지역
- 대지 60평, 건평 50평
- 법당1개, 방 6개,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가액 : 1억 5천만원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월 20만원

011-9357-56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버스정류소앞 지하철 1분)
- 평수 : 55평 4층 전관,법당 20평 온돌방 6개, 삼존불, 삼존탱화, 욕실크고 주방2, 엘리베이터有
- 내부한옥식으로 잘 꾸며져있음
- 가액 : 전세 3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678-2979
018-801-256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 (삼존불), 탱화, 거실, 부엌 살림 일체 있음
- 즉시 양도 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도심속 최고 사찰 안내

- 위치: 전주시내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112평 8×6미터 코너절
- 건평 120평 대웅전 22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부처님순금4자반 삼신불
- 부처님법단 홍송조각 연꽃16자 자신있게 갖춘도량
- 매매금4억8천중 준비금2억7천이며 개인사찰등기이전
- 좋은조건 매월 월세 일백만원 나옴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 최고도량
-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스님직거래 010-3166-8483

워크숍 · 수행체험 산사에서 활력 얻자

학회들 여름나기 계획
"실천과 연구 둘 아니다"

한국선학회
법주사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
무각사 워크숍



지난해 7월 불교학연구회 하계 워크숍 참가자들이 능화 스님의 지도로 범패와 작법무를 배우고 있다. 사진제공=불교학 연구회

올 여름에도 불교계 학회들은 연구실을 벗어나 산사(山寺)로 향한다. 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와 좌선수행을 체험하며, 학기 중에 느낀 실수(實修)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다.

참여하는 학자들은 이론과 실천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한국선학회(회장 현각)는 6월 19~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30차 학술대회를 겸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금강경의 발심에 관한 일고찰'(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선원청규에 관하여'(적멸 스님 동국대 선학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20~21일 좌선과 울력, 큰 스님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련대회를 열 계획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한국전통 문화속의 불교, 현대적 이해와 체험'을 주제로 7월 10~11일 광주 무각사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해 하계 워크숍이 불교 속의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불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불교학연구회의 하계 워크숍은 불교문화를 알리고 공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0일에는 조성택(고려대) 교수의 '불교와 웰빙(well-being)' 특강에 이어 남도 판소리 공연이 이어진다. 다음날은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이 진행하는 '차와 불교' 프로그램에서 차 문화 속의 불교를 경험한 후, 사찰 순례도 떠난다. 이중표 교수는 "이번에는 웰빙의 본질이 불교와 닿아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인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불교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창립된 미래학불교학회(회장 장휘옥)는 회원들과 수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장휘옥, 김사업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오곡도 명상수련원'은 회원들은 물론 7월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문을 연다.

선문화학회(회장 김용정)도 방학기간을 이용해 사찰을 찾아 선 문화 체험과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국립중앙박물관 중량급 소장품 이사 '한창'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이 국내 최대 유물인 춘궁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332호)을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6월 8일 이전했다. 춘궁리 철조여래좌상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국보 4점, 보물 2점이 포함된 중량급 소장품 19건 27점을 이전한다.

이날 옮겨진 춘궁리 철조여래좌상은 무게 6.2t, 높이 2.8m의 국내 최대 유물로 두께 53cm인 박물관 천장을 뚫고 15m 크레인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춘궁리 불상을 포장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목재 기둥 초음파로 진단
흰개미 피해 등 손상없이 감지

물리적인 파괴 없이 사찰 목재기둥 내부가 흰개미의 피해를 받거나 썩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도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서승진)은 초음파를 이용해 목조건축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비파괴 부후탐지기술을 개발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감각이나 육안 관찰에 의존했던 고(古) 목재 교체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콘크리트나 철물 등 현대적인 구조물에서는 이미 초음파를 이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는 수종 · 비중 등에 따라 초음파가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져 내부관찰에 사용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수리전문가가 목재 외관상의 피해를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나무망치를 두드려 소리를 감지해 오래된 건축물 부재의 교체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목재 외부에 구멍이 나거나 버섯이 생기는 등 피해가 외관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해 객관적인 평가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비파괴 부후탐지기술은 청진기만한 크기의 초음파 측정기계를 이용해 고건축물 부위별로 초음파 투과 속도를 측정한 후, 미리 작성된 피해상태지도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 이동흡 실장은 "앞으로 국내 고 건축물에 사용된 수종에 대한 피해상태지도가 완전히 작성되면, 국내 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8>

희망

현재의 삶 못 받아들이는 자의 '변명'
판도라 상자 집착말고 '無願' 추구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욕망에 의해 발현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루고 있는 것은 욕망(慾望) 그 자체인 것이다. 화엄의 장엄한 세계는 결코 욕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욕망이었고, 특히 집착하는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관계(關係)이다. 관계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욕망이란 있지 않다. 우리가 고정된 실체 없이 단지 관계의 결과로서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아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에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고통은 없어질 것이고, 주어진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고, 종종 희망(希望)을 이야기 한다. 힘든 세상에 희망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불자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이란 말은 참으로 잔인한 말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라는 꿈속에 살며 현재를 죽이고 있는 이들의 변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희망에 속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살아야한다.

서양에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가 있다. 세상의 모든 악(惡)을 담아둔 판도라의 상자 마지막에 그나마 있었던 것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희망으로 인간의 삶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희망이 얼마나 인간을 기만하고 진정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 모든 악을 담아둔 판도라 상자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었을까 한다.

그렇기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살지 못하게 하는 희망의 반대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바램(望)이 끊어진 상태인 절망(絶望)이 아니라, 바라는 바가 없는 무망(無望)이다. 이 무망을 불교적 용어로 다시 말한다면 보살이 성취해야하는 무원(無願)인 것이다.

마음 공부하는 이들은 희망 속에 그 무엇을 바랄 때 결코 얻지 못하리니 철저히 절망하여 무원(無願)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선(禪)이란 집착하는 욕망에 대하여 끊임없는 절망(絶望)이란 형태로 무망(無望)을 이루어 욕망을 욕망 그대로 진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다. 도반들은 결코 희망에 속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철저하게 마음을 내어 욕망에 충실하되 단지 머무르지는 말라는 금강경 한 구절이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선(禪)의 요점이 되니, 오직 주어진 일상의 삶을 수용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나의 헛된 눈과 귀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버스종점
● 법당 30평 방 3개,
● 대지 260평, 밭 200평
● 가액: 월1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조정가능)
017-854-2428

사찰안내
● 위치: 성남 주택 밀집지역
● 법당, 거실 넓음, 방2개, 창고방1, 화장실, 주방 베란다 45평형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75만원(물세,관리비포함) 월세만 100만원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678-080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가든안내
● 위치: 창영군 영산근교
● 용도: 사찰 및 찜질방으로 운영가능 주위환경 수려
● 대지 및 토지 1500평
● 가액: 2억3천(절충가능)
010-7280-1210

사찰전세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부지 : 920평 중 550평 허가득 (국유지 점유 사용. 약 2000평)
● 법당 : 목조 30평, 기타부속건물 4동
● 요사채(32평) : 방 3, 주방 1
● 전세금 : 절충 후 결정
※계곡 청정수려하고 특히 복지활동 하실분 최적지
011-9773-5701
031)771-573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산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상가 2층 법당 실평수 20평 (사정상급매)
● 방2개, 넓은 응접실, 편리한 구조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전세금 2,500만원
011-519-080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30평 독채, 큰방2, 주방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직동
● 요충지(4층)35평
● 제반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금: 4천만원 시설비 1천5백
● 주지스님 이동으로 급히처분요함
051)502-5950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토굴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월산 자락
● 부지 : 총2330평(7필지)
● 계곡안 : 조용히 수행하실분, 물 풍부
● 잣나무 20년생 삼백여그루 자작나무 100그루 포함
● 평당 : 1만8천원
054)674-0097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 총평수 500평 중 주거지300평, 학교부지 200평 건평 180평 3층 현대식 건물
● 1층 법당 60평, 2층 주택 빌라식 80평, 3층 주택식 요사 15평 20평
● 삼선각, 전세가능
● 가액: 10억 (은행융자가능)
● 실투자금 15억 들었음
051)645-3600 / 02)363-042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법당, 주거욕실, 마당 시설 주차 완비 및 편리 도로 대로변 위치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6780-6271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 총평수 1천평
● 부지 : 500평,
● 법당 : 40평
● 요사 2동(각 15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6-9676-6545

암자(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산 금정마을 (단층)
● 대지 : 63평
● 건물 37평(창고별도유)
● 가액 : 6천 5백만원(융자별도)
● 사찰관한 모든 용품, 사무실, 집기일체 포함
011-842-6123 주지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월평동
● 평수 : 3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1-9585-9899

포교당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동사무소 옆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약 30평정도(2층)
011-669-3345
02)3494-4962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명,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일 주 문



한국전통연구원 3주년 법회
한국전통연구원장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장)은 6월 20일 서울 금강선원에서 전통연구원 창립 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2)445-8484



포토에세이집 <캄보디아> 발간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지난해 남방불교의 수행 체험을 정리한 포토에세이집 <캄보디아>를 5월 26일 발간했다.(02)993-3161



충담 대선사 추모 6주년 법회
청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소신공양으로 열반에 든 태고종 승정 충담 대선사 추모 6주년 법회를 6월 21일 감로사에서 갖는다. (031)584-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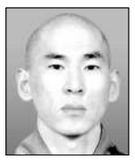
입문자를 위한 신행강좌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6월 22일~7월 28일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시 반 은적사 불교 입문자 신행강좌를 연다. (053)653-1572



원효 성사 탄생 다례제
경산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은 6월 21일 원효성사의 탄생일을 맞아 원효성사 탄생 다례제를 거행한다.(053) 857-2271



담양사암련 회장에 선출
담양 정토사 주지 혜광 스님은 5월 30일 용화사에서 열린 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담양사암연합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 공덕원 49재 회향
부산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은 6월 14일 공덕원 법당에서 4월 26일부터 49일 동안 봉행된 제3회 무보시 천도재를 회향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의 밤
대불련 총동문회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은 6월 2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대불련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02)735-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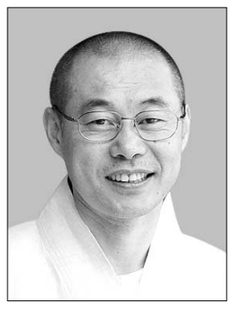
한국역학회장 취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임현술 교수는 6월 4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27차 한국역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운불련 대전지역회 창립15주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전지역회 이길풍 회장은 6월 14일 대전시민회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공생의 도리 실천하는 법인될 것"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원허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생의 도리를 실천하는 복지법인이 될 것입니다."

6월 7일 사회복지법인 혜원 설립을 마치고 12일 이사장 취임식을 가진 원허 스님(부산 혜원정사 주지 · 사진)은 도량이 위치한 인근 지역민들의 복지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소년소녀가장돕기 열린 음악회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한 혜원정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으로 혜원정사 봉사단 150여명을 중심으로 꾸준히 펼쳐왔던 무료급식, 시립의료원 봉사활동, 무의탁 노인 경로잔치,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피력한 스님은 "출가로 속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노인복지를 통해 다겁다생 부모인연을 맺었던 많은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으로 부처님법을 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법인으로 재산 등록을 모두 완료한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향후 혜원정사 인근 4천 평 부지에 50여명의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무료 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파견사업은 8월 중 곧바로 시작한다.

또한 혜원정사 경내 만불전 1층에는 24시간 아이들을 맡아주는 탁아시설을 개원한다. 8월초 개원을 목표로 시설공사에 한창인 탁아시설과 더불어 아이 때문에 법회를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놀이방 공간도 마련한다. **천미희 기자**

조계사 지홍 스님 6월 4일 주지직 마쳐



지난 6년간 조계사 주지(재산관리인)를 맡았던 지홍 스님(사진)이 6월 4일자로 마쳤다.

지홍 스님은 지난 98년 조계사 주지에 취임한 이후 사찰재정 투명 공개, 우정국로 공원화, 도량 정비 및 확장, 재가불자 교육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이끌었다.

은사 스님인 광덕 스님이 주석하던 서울 잠실 불광사 회주와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 주지로 있는 지홍 스님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요양중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박준영 중앙신도회 부회장 전남도지사 당선



6월 5일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박준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사진)은 7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 지사는 취임식에서 "도민들과 함께 낙후된 전남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도내에 기업과 공장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산업과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도입을 통해 '전남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박 지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0년 청와대불자회 회장을 맡은바 있다. **김은경 기자**

어린이 포교에 평생 헌신 '귀감'

14회 홍법봉사상 수상 박보리성 보살



"보살님들! 아이들 절에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심성을 키워주는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성 교육입니다. 오늘 받은 상금도 우리 아이들 불자로 키우는데 전부 내놓을 겁니다."

6월 6일 홍법사 주최로 열린 제14회 홍법바라밀제에서 홍법봉사상을 수상한 박보리성(83 · 사진) 보살은 수강소감대신 어린이 포교에 대한 각별한 사랑부터 털어놔 박수를 받았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통하는 보리성 보살은 81년 3월 어린이 포교를 위한 조직인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부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어린이포교에 전문가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김병홍 · 이진두 씨 삼광한글상 수상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도원)와 한글학회 부산지회(지회장 류영남)는 제17회 2004년 삼광한글학술상 수상자로 김병홍(40 · 사진 왼쪽) 위덕대 학술연구 교수를, 공로상에 이진두(60) 前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선정, 시상했다.

김 교수는 한글학회 부산지회 이사로 일하면서 각종 논문을 통해 국어 가꾸기와 한글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 위원은 부산일보 문화부 재직시 삼광 한글 학술상 제정을 발의해 실현했고, 불교 용어의 한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6월 9일 삼광사 지광전에서 열린 이날 11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발표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만일염불결사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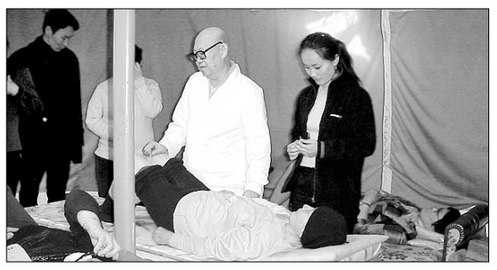
만일염불결사회 창립 4주년 기념대법회가 성남 정토사(회주 보광) 극락전에서 6월 6일 봉행됐다. 이날 창립기념 법회에 증명법사로 나선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은 "만일염불결사회의 4주년을 맞아 누구나 일심으로 염불수행하여 삼매현전하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성남 성보사, 6일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성남 성보사(주지 휴암)는 6월 6일 성남시청 강당에서 호국영령 위령의 충혼을 기리는 위령천도재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이대엽 성남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성보사 주지 휴암 스님은 "순국한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위해 영산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강선원, 몽골 고려사 무료한방진료



(사)한국불교금강원선원(총재 활안)은 최근 몽골 고려사를 방문 한방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몽골 모이스 국립대학 학생, 자나바자르 불교대학 한의과 학생 등이 참여해 1천여 명의 현지 환자를 진료한 이번 봉사에서 활안 스님은 "앞으로도 불교 형제국인 한국과 몽골의 불교교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전복지관, 우수 사업제안자 수상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재)은 6월 4일 복지관 강당에서 '2004년 삼전복지관 대학생 프로그램 공모' 우수 사업제안서 12건을 선정, 수상식을 실시했다. 이날 선재 스님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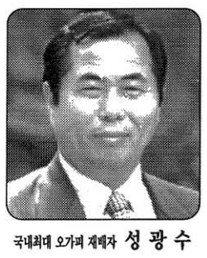
함양군청 불자회, 장학금 전달



함양군청 불자회(회장 한경택)는 함양불교 사암연합회(회장 용추사 주지 선해), 함양불교연합신도회(회장 김순화) 등과 공동으로 6월 4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장학기금 5백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 4백여만원 등을 천사령 함양군수에게 전달했다.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7.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월 첫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믿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인간, 쓰레기를 먹다

'쓰레기 만두소' 사건으로 불량식품 문제가 새삼스러운 양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식품범죄의 뿌리를 뽑으라'지시하고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물렁한 법을 지적하며 처벌규정을 고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일제히 떠든다. 단속기관에서도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땅히 나와야할 지시이고 지적이겠으나, 문제 있을 때마다 일과성으로 반복되는 스테레오적 발언과 반응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량식품에 관한한 지금까지 모두 그래왔으니까.

냉동만두 뿐 아니라 불량식품의 경우 농약 또는 수은으로 기른 콩나물, 석회를 넣은 두부, 가죽구두창을 삶아 낸 '수구레 설렁탕'에 담배꽁초로 맛을 낸 커피며 부대찌개, 대장균에 무방비한 냉면, 공업용 왁스로 화장시킨 과일류며 역시 유해 공업용 소금으로 담근 젓갈 등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고 그 수법은 시쳇말로 엽기적이다.

해마다 몇 가지씩 드러나 세상을 한번씩 흥분시켜 온 이런 엽기적 불량식품 역사가 높은 이의 지시와 언론 및 여론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사라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더욱이 사회 여러 문제들이 엽기를 선택하고 엽기를 노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만두란 음식은 '소'의 내용물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을 낸다. 다양한 재료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정성 또한 맛을 좌우 할 것이다.

그런데 전통만두의 식품재료에 '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만두에 언제부터 '무'라는 식품이 주 재료로 등장한 것일까.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 대량생산 체제가 만두소에 '무'를 등장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왜 냉동만두에 '무'를 넣을까. '무'가 나쁜 식품도 아니고 '무말랭이'의 꼬들꼬들 씹히는 맛도 제법이다. 마치 육류를 씹는 느낌과 같아 한때는 돼지고기 대신 중국산 무말랭이만 넣고 만든 냉동만두도 있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이유는 중국산 유해 무말랭이를 돼지고기라 속임수를 썼다는 것으로 유해하고 싼 재료를 써서 높은 이윤을 남긴 비양심이 비난 대상이었다. 그것이 진화(進化)한 불량식품이 '쓰레기 만두소'일 것이다. 당시의 근절의지가 지속적인 것이었다면 이런 진화된 불량식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냉동만두라면 소비자들의 육안으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에는 신뢰감가는 식품회사의 것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우 그마저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무릅쓰고라도 문제는 윤리 도덕, 사회적 양심부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을 우습게 아는 풍조, 그동안 준법을 솔선수범으로 보여 준 적이 없는 힘 있는 자들의 '모범(?)'이 조장해 온 것은 아닐는지.

'한국음식은 마음으로 먹는다' 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일본 음식, 맛을 강조하는 서양식, 속을 편하게 그래서 몸에 좋은 중국식 등으로 분류했을 때 정성을 높이 쳐 주는 한국 음식은 마음으로 먹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천차만별의 맛은 곧 천차만별의 '마음'맛일 것인데 이제 천편일률의 맛을 만드는 패스트푸드화, 간편식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들은 불량식품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사회적 양심부재의 치유는 오래 걸릴 터이니 불편하더라도 천차만별의 '마음 식' 쪽을 택하면서 이번에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을 또 한번 믿어 보기로 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제1회 차품평회를 환영한다

차는 가장 많는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이다. 잠을 자고 정신을 맑게 한다. 작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어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은 마음의 수양을 돕는다. 차를 마시는 건강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화합을 이루고 건전한 기풍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차를 널리 보급하는 일은 각 개인은 물론 국력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 오랜 동안 일부 애호가의 전유물이었던 차 문화가 다시 소생하고,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차와 관련된 산업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에 대한 올바른 품평 기준이 없어 애호가들이 좋은 차를 바르게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차 생산량이 부족하여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차들이 소비자의 안목과 차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게 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에 대한 올바른 품평을 통해 좋은 차를 선별해 내는 일이다. 올바른 평가 기준이 서야 좋은 차가 생산되고, 그것이 올바른 소비를 일으켜 차 시장을 확대시키고, 다시 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7월 17~18일에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회'는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차의 중흥조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대흥사 일지암 암주를 맡고있는 여연 스님이 품평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를 전승 보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불교계가 이 일에 적극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품평회가 단지 귀족적인 차 문화를 위한 '한줄세우기' 품평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차를 골고루 평가하며, 귀족적인 극품(極品)의 차를 가려내는데만 힘을 기울이지 말고, 값에 비하여 우수한 대중적인 차를 선별하는 일도 아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앞으로는 성분분석 및 공해물질 시험까지도 포괄하여 진정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차 문화 정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엄정한 평가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여, 해가 갈수록 더더욱 권위를 가지지는 품평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성원을 보낸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꾸며진 '나'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임금의 화려한 수레와도 같나니. 어리석은 자는 여기 미쳐 정신없지만 현명한 이는 결코 이 실속없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법구경〉

"요즘 한국의 '욘 사마'가 '준 사마'보다 인기가 더 많다."

드라마 '겨울 연가'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절정의 인기가도를 달리던 '욘 사마(배용준을 극존칭으로 표현한 말)'가 이제는 일본총리의 아성에 도전해 성공을 거뒀다. '냉철한 이성'의 이미지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은 드라마 속 '완벽한 조건의 순수남'에 열광했고, 그가 '근사한 바람둥이'로 그려진 영화 '조선남여상열지사- 스캔들'은 욘 사마 팬들의 강한 거부와 눈물로 뜻밖의 흥행저조를 보이고 있다.

허상이 실상을 누르고 연출된 이미지가 무한한 집착을 불러오는 시대. '나는 아니야'라며 코웃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안티 욘 사마' 당신에게도 '허상놀음'은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 세대들에게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블로그(blog: 인터넷 개인 일기장)' 문화는 연예인에게나 씌웠던 허상을 '나'에게 덧씌우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상의 '나'로 대변되는 블로그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탐색전'이 이어지고, '나'는 게시물과 방문자 등으로 현실의 능력과 인간관계를 평가받게 된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자들은 '블로그 피로'라는 신종용어가 탄생할 만큼 블로그 꾸미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단장이 격해지면서 '나'에 대한 왜곡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진실될 수 있는 일상의 고백록조차 실속없는 화려함으로 물드는 세상. 현실의 아상과 아치를 걷어내기도 버거운 마당에, 사이버상에서 가중되는 자아의 무게는 과연 어떻게 덜어내야 할 것인가?

■강신재(취재부 기자)

내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5월 21일 이와 관련한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불교신자인 오태양 씨도 지난 2002년 5계 중 하나인 불살생계를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 불교계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 · 반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민지키는 일…타협대상 안돼



선웅
조계사 신행상담실 지도법사

병역은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이자 의무 사항인 것이다. 물론 병역 대체복무 허용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실정법 위반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병역 '거부'와 '기피'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냐는 것이다. 병역거부 행위를 놓고 봤을 때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인지,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둘째, 병역 선택의 형평성 논란이다. 전방에서 목숨을 내놓고 군복무하는 장병들과 단순 자원봉사 등의 대체복무방식을 선택한 병역 거부자들간 노동 강도가 과연 동등할 수 있냐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 논란의 핵심사항이다.

그럼 불교적 입장은 어떠한가? 불교는 병역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뤘다. 역사적 실례를 살펴보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등은 왜 칼과 창을 들었는가. 승병을 일으킨 이유는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전쟁 당시, 강한 군대와 국력이 있었다면 수백만 여 명의 국민이 죽었겠는가.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더 큰 살인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모든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출가 사문도 예외가 아니다. 스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정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 1600년 역사 속에서 불교가 외부의 침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듯이 최근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지금의 행위는 설득력이 없다.

비폭력 실천의지 존중돼야



이윤주원
아침을 여는집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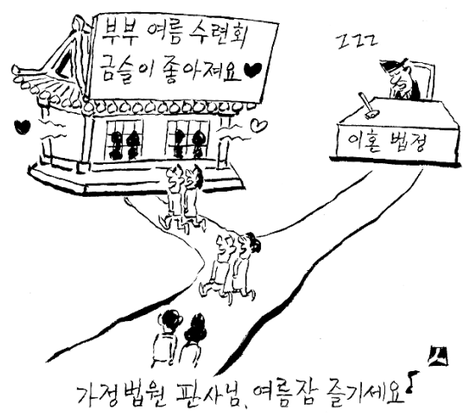
비폭력은 자비의 완전한 구현이다. 비폭력은 인류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현대사회에서 평화를 지켜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비겁한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무엇이 용기인가? 비폭력과 불살생의 길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불안하다 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는 없다. 불안함은 증오와 분노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다. 붓다는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서 쉬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만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고 가르쳤다. 불완전한 인간은 사랑으로 성냄을, 선함으로 사악함을, 자비로 이기심을, 진실로 거짓을 이겨내야 한다. 이 길을 선택한 소수의 젊은이들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선택에 국가는 대답해야 한다.

핵을 제외한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6위라고 한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군은 68만 명씩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 국방 예산의 60%가량이 군 조직 유지비로 나가고 있다. 한국군은 필요 없는 살을 빼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국가에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가가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비폭력과 불살생의 길을 걷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진실로 애국을 독려(督勵)하는 일이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입문편-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헷갈리지 않는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화제의 신간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 양장본 값 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梓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저/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임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보름법회 날인데도 10여 명의 불자만이 법회 후 오붓이 한 가족처럼 점심 공양을 하고 있는데, 암주인 도호스님은 '우리 휴휴암 신도는 다 왔다' 고 도리어 자랑을 한다. 스님은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신도들 또한 너무나 여유로운 공양이다. 넉넉지 못한 암자이지만, 단청 없는 투박한 대웅전은 스님과 어울리고, 스님의 당당한 모습은 수행자의 기백이 그대로 묻어난다.

대한불교 조계종 발왕산 강릉 휴휴암



◇휴휴암 휴식처

'휴휴' 란 쉰다는 의미로 마음도 다시 한 번 쉬라는 말이다. 쉬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쉬어라. 그것이 곧 상을 비우는 것이며, 구경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항상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는다. 이것은 육체는 쉬어도 마음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휴암 오르는길

10년 불사로 이루어 낸 금강경 목판

한 수행자의 구도정신과 60여 불자의 무주상 보시



휴대전화조차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강원도 왕산면 대기리, 인연도 웬만한 지중함이 아니면 맺어지기 힘든 그 곳에, 손끝으로 느껴 보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살아 있는 금강경 목판이 있다.







◇금강경 목판

10여 년 전, 일산의 한 사찰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평생 한 번도 당하기 어려운 교통사고를 연이어 세 차례나 당하고, 육체적 장애를 얻어 요양을 하기 위해 이 곳에 오게 되었다. 수행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허름한 농가를 얻어 약초를 캐어 생식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몸이었지만 수행자의 본분으로 봉암사 하안거를 마치고 경기도 이천의 도반을 만나고 오면서 목아 박물관에 들러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다. 생전 처음으로 조각칼을 들게 된 스님은 작품 이전에 재활운동이라 생각하면서 농가 주변에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다. 차츰 건강이 좋아지면서 인연 있는 불자님의 도움으로 재목을 얻고 법당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고 평생 원력이었던 '금강경 목판 불사' 를 시작하였다. 해인사 대장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열린 경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순수한 원력과 불자님들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하자는 계획 아래, 강릉 · 동해 · 삼척 · 양양 등 영동권의 서예원과 문화원에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불사를 함께 할 불자님들을 찾았다. 5,200여 자가 넘는 금강경을 1인 87자로 세분하여 사경을 맡기기로 하고, 한분 한분 방문하여 설득하기를 1년여 60여 불자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1년간의 사경 시간을 주고 부탁하게 되었고, 기꺼이 불사 인연에 동참한 60여 불자는 1년간 많게는 수백 장씩을 쓰고 그 중에서 잘 된 1장을 각인하게 되는 실로 장엄한 불사였던 것이다.

60여 불자가 1인 87자 사경, 스님은 각(刻) 62개 목판으로 금강경 조성봉안

이렇게 정성으로 사경한 금강경을 받아 스님 혼자 각을 하게 되는데 새벽기도를 마친 오전 5시에서 11시까지 각인 작업을 1년간 하게 되었다. 세밀한 경판 각을 처음 하는 스님은 부처님 불사의 염원 하나로 손을 베이고 근육이 마비되는 고통을 기도 일념으로 이겨나갔다. 죽어서도 그 생명력이 오래 간다는 알래스카산 홍송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다닌 수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불자된 인연으로 고가의 재목을 기꺼이 보시한 경기도 광주의 목재소를 운영하는 불자님, 금강경 사경은 물론 법계도 사경까지 도와주신 너무도 고마운 불자님들, 그 중에서도 금강경 사경을 매일 한 장씩 쓰며 기도한 나이어린 아리와 하민 등 모두가 불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주신 부처님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스님은 되새긴다.



◇삼성각 법계도

원상당 혜관선사 사리탑

청정수행의 사표를 보이신 은사스님



◇원상당 혜관선사 사리탑

대웅전을 돌아 비탈길을 오르면, 스님의 은사이신 원상당 혜관선사의 사리탑이 있고, 법당 안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다. 용인 백암의 옛 오도선원의 창건주로서 평생 선수행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혜관선사의 비취색 사리가 스님의 청정한 수행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리 수습 당시에 많은 사리를 남겨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신 선사는 도호스님이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청정비구의 기백을 잃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시고 있다.

신도 3진 아웃제

공부하지 않는 불자는 오지도 마라



◇휴휴암 요사채

인연을 강조하는 스님이지만 공부하지 않는 불자는 반기지 않는다. 중생이기에 모르는 것이고 모르기에 묻고 공부해야 한다. 절에 오거든 무엇이든 질문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에도 오지마라. 휴휴암에는 신도 3진 아웃제라는 원칙이 있다. 3번 이상 묻지 않으면 절에 오지 못하게 한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룰 수 있었던 불사

"인연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수행자에게 본분을 일깨워준 모든 분들이 부처이십니다.

갇혀 있는 경판을 보면서 모든 부처는 경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경전은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모든 불자가 손으로 만져보고 참배하면서 경전 자체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부처님께 다가가게 하고 싶다,



◇휴휴암 암주 석도호

이 원력이 이루어진 것은 장애를 주시고 경책하고 불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부처님의 참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방황하던 출가 이전에 금강경을 주시고 읽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한 보살님과의 인연 때문으로 그 때 금강경 30만독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강경 경판 봉안 도량으로써 불자님들의 참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발왕산 휴휴암

금강경 목판 봉안 조성 도량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3리 2107

암주 석도호

033-562-7196. 011-9968-5244

오시는길 강릉 IC에서 성산방면으로 나와, 오봉호수 끝에서 우측으로 대기리 방면 진입. 닭목령 넘어 배나드리에서 11km 한터

들꽃에 여문 멋들어진 행복

20만평 규모에 7천여 종 보유
런던 위슬리가든 방문 후 願 세워
재배 방법 스님들께 전수하기도
교육기능 갖춘 세계적 식물원 소망



수련을 보며 한담하는 이 원장 내외.

한택식물원 이택주 원장

6월 5일 토요일 오후에 찾은 한택식물원(경기도 용인 소재). 백여 개 웅덩이에 귀엽고 깜찍한 애기수련, 아무리 보아도 수련(睡蓮) 같아 보이지는 않는 개연, 왜개연 등의 수련이 활짝 피어 있다. 퇴약볕을 피해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젊은 부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꽃을 들여다보는 아이들, 카메라를 들고 촬영에 열중인 동호회원들, 지팡이에 의지하여 노구를 쉬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언덕길에는 휠체어에 탄 지체장애자와 그들의 나들이를 돕는 봉사자들의 행렬….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지만 꽃을 향한 사람들의 표정은 그저 평화롭고 넉넉하다. 세계는 한 송이의 꽃(世界一花)이라 했던가. 한택식물원의 꽃무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은 하나라는 사실이 새삼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일찍이 식물 종자의 가치를 깨닫고 식물 모으기에 뛰어든 지 25년, 그 각고의 세월은 한택식물원이라는 식물의 보고(寶庫)이자 소중한 휴식처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그 주인공은 야생화의 대부로 불리는 이택주(63) 원장.

"식물에 미쳐 살아왔지. 돈도 되지 않는 잡초를 애지중지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많이 받았어.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식물을 구해다 심고 가꿨지. 25년 동안 그렇게 일군 식물원이 자연 · 환경 · 농림 분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됐으니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한택식물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20만평의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식물원 수준의 가늠자인 보유종수가 7천여 종으로 세계 유수 식물원에 손색이 없다. 7천여 종 가운데 우리 자생종은 2천4백여 종인데, 잡초로 간주되는 식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를 망라한 셈이라고. 우리 자생식물은 모두 이 원장이 직접 발로 뛰며 온 산천을 뒤져 구해왔다.

이 원장의 어릴 적 꿈은 목장주인이었다. 그 꿈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로, 다니던 건설 회사를 그만두고 30대 젊은 나이에 귀농을 선택했다. 고향에 산을 장만하고 초지를 만들어 소를 키웠다. 한때 사육 두수가 이백여 두에 이르렀으나 소 값이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맛보아야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조경용 나무와 자생식물 재배였고, 오늘의 한택식물원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식물원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간 계기는 영국에서 맞게 된다. 런던의 위슬리가든(Wisley Garden)을 방문했을 때 그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많은 가족이 식물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며 주말을 즐기는 모습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위슬리가든 못지않은 멋진 식물원을 만들겠노라고 다짐하게 된다.

이후 그는 식물 채종과 재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새로운 식물종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으면 불원천리 달려갔고, 낯선 식물을 발견하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왕산에서는 바위틈에 난 둥근 잎의 식물(둥근잎꿩의비름)을 보고 기어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다. "시작할 땐 그렇게 힘들 줄 몰랐지.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힘들여 모은 자생 식물들이라 애착도 더 크지."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식물은 이미 이택주 원장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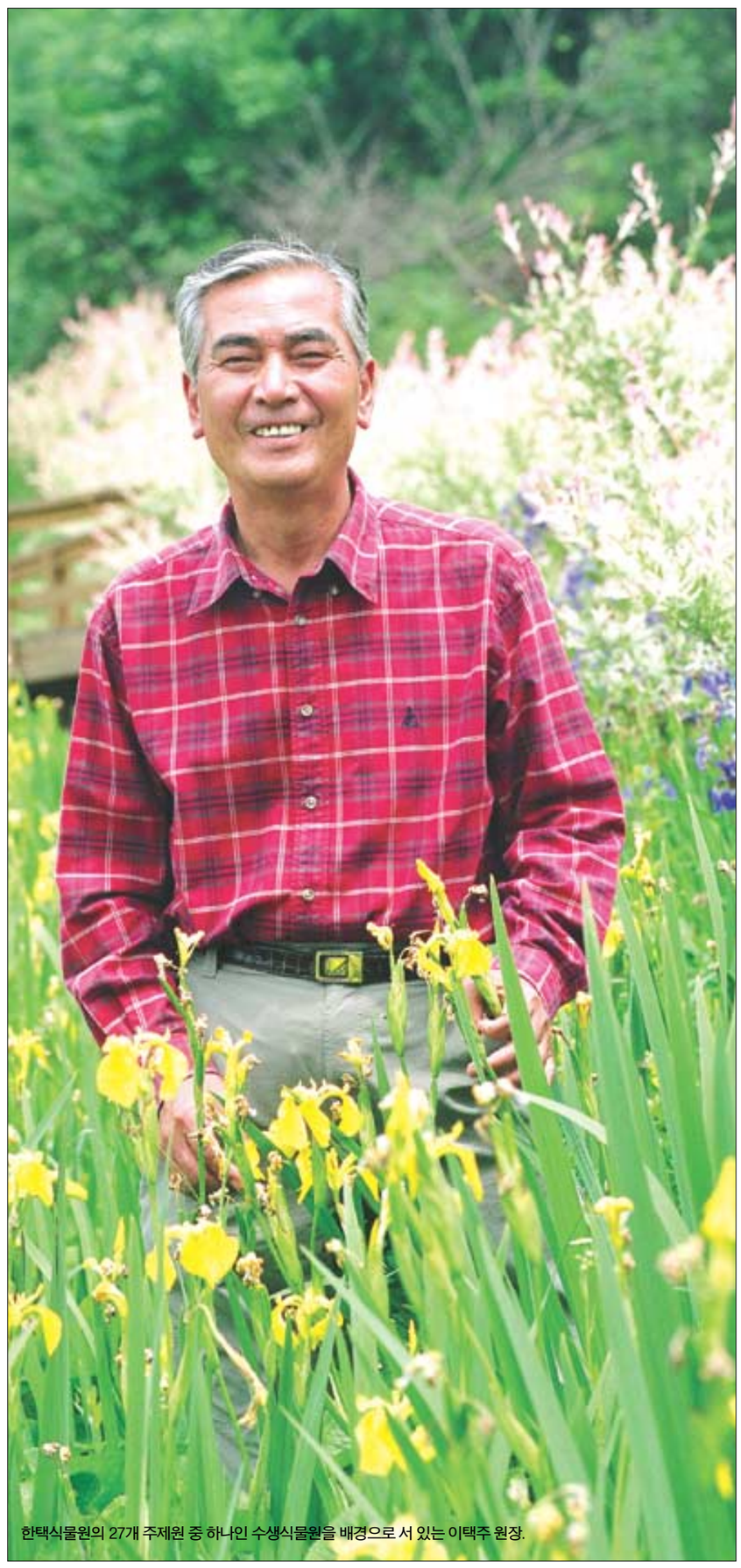
그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던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는 아내 이길상행(65) 씨다. 독실한 불자인 이 씨는 이 원장과 시간 나는 대로 윤필암(경북 문경 소재)을 찾는다. 윤필암 스님들의 부지런함에 반한 이 원장 부부는 야생화를 식재해주고 재배 요령도 전수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키울 수 있는 게 야생화이기 때문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님들은 키우기 힘든 야생화도 척척 키워냈다. 멋들어지게 피어난 야생화는 윤필암의 절경과 어우러져 찾는 이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이 원장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한택식물원을 찾는 이들에게 왜성 패랭이를 나누어준 것. "부처님오신날인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란다.

요즘 이 원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관람객의 감상 태도이다. 꽃을 상하게 하는 관람객도 문제지만, 꽃을 즐길 준비가 안 된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꽃을 감상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이 원장에게 물었다. "꽃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답이 돌아온다. "식물은 종 보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한 송이 꽃을 피우지.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짙은 향기를 내뿜기도 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고산지대의 꽃들은 자기 몸집에 비해 아주 큰 꽃을 맺어서 곤충을 유인하지. 이 얼마나 큰 산고(産苦) 끝에 피어나는 것이냐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깊숲의 풀꽃을 보니 확실히 달리 보인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어머니 마음이 담겨 있으니 풀꽃인들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이 원장은 이제 가드닝스쿨(gardening school)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기능까지 갖추어야 명실상부한 '식물원'이 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 그의 바람은 우리나라가 한택식물원을 밑거름 삼아 식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 땅에 위슬리가든 같은 식물원을 만들겠노라던 그의 소망은 이제 식물강국의 꿈으로 여물어가고 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택식물원의 27개 주제원 중 하나인 수생식물원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택주 원장.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자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지묵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 / 20년 장좌불와 **지유** 스님 / 사찰안내의 '원조' **인암** 스님 / 분별 · 시비심 끊어진 **정화** 스님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장** 스님 / 열정의 인권운동가 **진관** 스님 / 한결같은 인욕 · 하심 **자월** 스님 / 수행자로서의 투철한 삶 **홍법** 스님 / 후덕한 주지 **혜성** 스님 / '산 거지' 자처 **정우** 스님 / 햇차 같이 샤프한 **여연** 스님 / 병든 처사 헌신적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진공** 스님 / 진정한 무술 고수 **대오** 스님 / '가야산 호랑이' **정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함의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고참 수좌 **중현** 스님 / 효심 지극한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규大 인가 앞장 **금정** 스님 / 理事 두루 밝은 **원타**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차 **혜관** 스님 /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심** 스님 / 뜨거운 피 · 결정한 가슴 **혜조** 스님 / 영원한 선지식 **고송**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법** 스님 / '공포의 목침할배' **경하** 스님 / 결제 땐 면벽, 해제 땐 기도 **법현** 스님 / 해조음처럼 편안한 **허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파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륜**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관 뚜렷한 노력파 **해월**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물 흐르듯 거침없는 말과 글 **자목** 스님 / 방황과 갈등 '공부'로 승화 **불굴** 스님 / 해제 · 결제 따로 없는 **일선** 스님 /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향산** 스님 / 효성 지극한 묵언수좌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명** 스님 / 따뜻한 마음, 깔끔한 강의 **일초** 스님 / 장좌불와 · 일종식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선** 스님 / 나서면 '만사형통' **자용**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관문** 스님 / 병자의 슬픔 ·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번혁운동 앞장 **유곡**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원철** 스님 /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현원** 스님 / 군 포교 헌신 **성광** 스님 / 산새 · 짐승들과 교감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덕** 스님 / 끝없이 차 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당' 계획 **지태**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초**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디든 가서 법문 **호명** 스님 / 호거산처럼 넉넉한 품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향문** 스님 / 병고를 인욕으로 승화 **자우**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설송** 스님 / 삶의 따스함 가르쳐 준 **법인** 스님 / 오롯이 한 길 매진 **미산** 스님 / 자상한 탁마의 도반 **상묵** 스님 / 덕승산 가풍의 계승자 **보리** 스님 / 도시로 입산한 '만능인' **덕신** 스님 / 수덕사 '터줏대감'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휘광**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굴삭기 운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급함 · 욕심 · 시비 없는 **성전** 스님 / 깐깐함과 자상함의 조화 **효명**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두**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계으름 허용 않는 **지산** 스님 / 만날 때마다 깊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탓'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함' 보여준 **원타**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날 때마다 순수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佛事 제일' **지문** 스님 / 도심포교의 베테랑 **회휴** 스님 / 청소년 포교 중요성 알려 준 **목주** 스님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0>

일하는 모습 보고 깨달은 빤디따

사왓티성에 사는 큰 재산가의 아들 빤디따는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미였습니다. 출가한지 며칠째 되던 어느날 그는 장로 비구인 사리불을 따라 탁발을 나갔다가 어떤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끌어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빤디따는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대덕님, 물은 누구든지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물은 사람이 끌어들이는 곳을 따라 흐르게 마련이니라."

빤디따가 사리불의 대답을 듣고 계속하여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로 활을 만드는 광경



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이 구부러진 나무를 불에 가까이 대자 그 나무는 곧게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걷다 보니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잘라 수레바퀴를 비롯한 갖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광경을 보게 된 빤디따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물도 농부가 끌어대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구부러진 나무도 불을 만나면 곧게 펴지며 쓸모 없는 나무도 기술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인가. 마음이야말로 다스리는대로 되는 것이다."

수도원으로 돌아온 빤디따는 곧 자기 방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행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오직 수행에 힘쓰자 이를 기특하게 여긴 사리불은 빤디따에게 점심을 가지고 와서 먹게 끔 하였는데, 어느 날 부처님은 이같은 일을 신통으로 아시고 오늘은 빤디따가 큰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칫 사리불이 빤디따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수행에 지장을 줄까봐 사리불이 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셔서 일부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빤디따는 드디어 모든 번뇌를 여읜, 그래서 다시는 고통에 속박을 받지 않고 삼계의 윤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빤디따가 수행을 시작한 지 불과 여드레만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하여 수도원에 머무는 수행자들에게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굽은 대를 바르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어 수레바퀴를 만들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 다스린다

마음 공부는 자신을 경책하고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늘 대상을 따라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굽이치는 곳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즐겁고 기쁜 곳을 향합니다. 마음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찰하여 대상에 빠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빤디따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자신의 수행으로 연결시켰듯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오 스님의 〈벽암록〉 제창은 스님 자신의 전 인격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이나 문헌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하여 당시의 구어와 속어, 몸짓까지 종횡무진하게 사용하여 수행자들을 일깨워주고 있죠."

6월 5일 저녁 서울 삼보법회(02-913-2859) 법당에서는 선문제일서(禪門第一書)로 칭송되고 있는 〈벽암록〉 강의가 열렸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30분 진행되는 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삼보법회 상임법사인 송찬우(54, 동국역경위원) 중앙승가대 교수는 보조지눌 스님의 〈벽암록〉 서문의 원문을 한자 한자 새기며 해설해 나갔다.

스님 7명 등 40여 수강생의 진지한 열기로 시작된 이날 〈벽암록〉 강의는 국내에서 원전으로 하는 첫 번째 강의라는 점에서 다소 흥분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벽암록〉은 워낙 방대한 양인데다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지(禪旨)를 갖춰야만 강의할 수 있는 가장 난해한 선어록으로 정평이 나있기에, 송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에 송 교수가 10년 이상 진행할 예정인 〈벽암록〉 강의는 탄허 스님의 제자로서 16세부터 17년간 선교(禪敎)를 함께 닦은 출가 이력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송 교수를 만나 문자를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도리를 전하고자 하는 까닭을 물었다.



서울 삼보법회의 〈벽암록〉강의에 앞서 입정 중인 불자들.

국내 첫 벽암록 원전 강의 송찬우 교수

"조사선 심오함 원전 읽으면 이해 빨라요"

▲강의를 개설한 인연은?

-그동안 13년간 삼보법회에서 〈육조단경〉 〈달마대사 혈맥론〉 〈이입사행론〉 〈전심법요〉 등 선어록을 강의해 왔습니다. 삼보법회의 신축을 기념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벽암록〉은 조사선의 깊은 뜻과 문학적 표현이 어울어져 한문 원전으로 읽으면 더욱 심오한 맛을 느낄 수 있죠. 10년이 걸리더라도 〈벽암록〉 100칙을 끝까지 해설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설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뜻을 전한다는 게 다소 역설적인데요.

-불립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대장경도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불립문자의 진정한 도리는 문자에 있지도 않지만 문자를 떠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경전은 이 불립문자의 종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수한 선어록이 온갖 방대한 지식을 동원해 갖가지 깨달음의 기연을 소개한 것도 문자를 통해 불립문자의 종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벽암록〉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실참이



전제되어야 겠군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삼보선원의 문을 열고 참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어록도 안 보고 실참도 자기 식대로만 하면 평생 헛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어록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실참에서 자신의 수행 여정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죠. 그래서 저 역시 늘 어록을 읽으면서도 보

불립문자의 참 도리는 문자에 있지도 않고 떠난 적도 없어 모든 현상의 상대성 단절되었을때 마음의 이치 드러나

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벽암록〉에 평창을 단 원오 스님과, 그 책을 불태운 대혜 스님의 견해는 다른가요?

-원오 스님이 〈벽암록〉을 설명한 것도 맞고, 제자인 대혜 스님이 이를 불지른 것도 맞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붙어있어야 진속불이(眞俗不二)가 됩니다. 원오 스님은 속제(俗諦)의 측면에서 제자를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을 붙였지만, 대혜 스님은 납자들이 언어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은 문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진제(眞諦)의 측면에서 〈벽암록〉을 불태운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진속이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입니다.

▲일부 선원에서 선을 지도하는 분들이 어록에 의지하지 않고 법문하거나 납자를 지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데요.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지할 경우 중구난방이 되기 쉽습니다. 지도방식에도 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칙(古則) 즉, 조사들이 남긴 언행 중에서 귀감이 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안(公案)을 어떻게 참구해야 할까요.

-공안은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본래면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안을 직관으로 꿰뚫어 봐야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는 안됩니다. 화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자각해야 합니다.

일심(一心)은 시간적인 선후(先後)와 공간적인 피차(彼此)를 떠난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원래 최상승 달마선종에서는 일체가 다 화두입니다. 돌은 왜 단단한가?, 대나무는 왜 사철 푸르나 등 삼라만상이 다 대도의 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나는 것을 모를 때 선지식을 참방해서 말끝(言下)에 단박 깨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닫지 못하면 공안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공안도 형식화되어 선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화된 공안은 확인을 의식에 가둬서 발전이 없게 합니다. 사고는 물 흐르듯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종이 극성했던 송나라 때 보다 공안이 거의 없던 당 나라 때 오히려 도인들이 많이 나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벽암록〉이 전하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삼라만상이 내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전합니다. 모든 현상의 상대성이 단절되었을 때 마음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이는 스스로 알고 증(證)하는 것이며, 마음이 스스로 이치를 아는 친지(親知)입니다. 중생은 비량(比量, 분별지)으로 보지만, 부처는 현량(現量, 직접지각)으로 봅니다. 내 마음이 실체요 주체임을 확신해 성품이 스스로 아는 것이니 자각하는 것입니다. 소리 일어나기 이전의 소리를 자득하도록 합니다."

김재경 기자

'벽암록' 은 어떤 책?

中 임제종 최고 지침서

〈벽암록〉은 중국 임제종에서 최고의 지침서(指針書)로 꼽혔던 어록으로 우리나라 선가(禪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책. 설두중현 스님이 〈경덕전등록〉에서 참선에 도움이 되는 공안(公案) 100칙(則)을 뽑아 송(頌)을 달고 여기에 원오극근 스님이 수시(垂示), 단평(短評), 평창(評唱)을 달았던 것이다. 1125년 원오 스님의 제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간행되었으나, 그후 제자 대혜종고 스님이 이 책이 선을 형식화하고 흉내만 내는 구두선(口頭禪)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간본(刊本)을 회수하여 불태웠다. 그 뒤 장명원(張明遠)이란 사람에 의하여 중간(重刊)되어 오늘날까지 유통되었다.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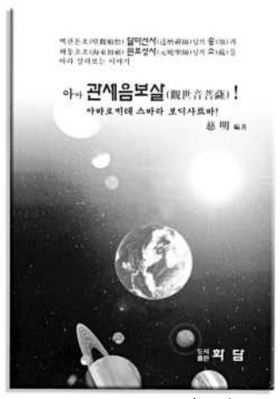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2004년도 송암범음대학 편입생 학인모집요강
중요 무형문화재 50호이신 송암스님의 범음의 법맥을 이어서 불교의식을 전수코자 예술의 고장 전주에서는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내용
◆초급 : 종성, 도량석, 향수해례, 오분향례, 칠정례, 불공
◆중급 : 착복, 천수바라, 막바라, 착어성, 천도재, 대령, 관욕, 시식
◆상급 : 영산작법 (상주권공 · 각배 · 영산)
2. 교 수 진 종산 스님 직강
3.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영산회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
4. 전형방법 서류 전형
1)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매
2)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4년 6월 21일~ 7월 10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7.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까지
송암 범음 대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3층)
전화 063)643-6619 핸드폰 011-9454-6619
주차안내 : 남부주차장(남부시장 천변 2시간 무료주차 300m거리)
완산동터미널 · 다가우체국 · 전북도청 · 보화당한의원 · 용호사한약방 · 시내버스승강장 · 범음대학 3층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인 이 오탁악세



(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 · 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명 편저 / 도서출판 화담 / 신국판 137쪽 / 값 10,000원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02)994-4437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道

中 도교 최고지도자에게 듣는 道



6월6일 '선도인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道를 설하고 있는 런파룽 대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런파중 대사.



런파룽 대사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

중국 도교 최고지도자로 알려진 런파룽(任法融) 중국도교협회 부회장이 5월 30일 한국을 찾았다. 도교학술단체인 세계금선학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한일정에서 런 대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해 유불선(儒佛仙)의 공통점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한편, 고려대 · 상명대 등지의 대학강단에 올라 도교사상의 정수에 대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한 선인(仙人)의 면모는 선도수행자들이 모인자리에서 드러났다. 런 대사는 6월 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선도수행자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 설파한 도(道)와 덕(德)의 의미를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는 "도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30년간 도덕경 연구에 매진해 온 대가답게 도의 실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도는 비어있지만 써도 다함이 없고 또한 깊고 그윽하여 만물의 근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양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고 뭐든지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 4장과 25장을 인용해 시작한 강연에서 런 대사는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과 통하는 도(道)의 묘미를 설했다. 또한 시작과 끝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말로 도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도와 현실생활의 관계'였다.

런 대사는 "노자가 생활한 시대에는 <도덕경>의 의리(義理)가 제자백가를 눌렀다"는 예를 들며 '도'를 드러내는 '덕'의 쓰임이 원만하면 현실의 삶 또한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도교가 현실도피적 인 형이상학적 사상이라는 현실의 평가와 대치되는 것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

"비어 있지만 써도 다함이 없고 깊고 그윽하여 만물의 근원과 같다"

그에 따르면 '도의 쓰임'인 '덕'을 중히 여기면 '평천하(平天下)'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덕을 품으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를 없애고 병고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다"며 덕의 실천에 따르는 평안과 행복을 함께 전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도의 이치에 맞는 덕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련이 필요할까. 런 대사는 '자연에 따르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다. 음식을 제시간에 알맞은 양만큼 섭취하는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특별한 '비법'을 묻는 수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40여 년에 이르는 출가수행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연'이란 단어 속에 함축한 것이다.

런 대사는 이밖에도 '사후의 생'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후 생은 인과에 따라 반복되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다"이라고 답했다. 또한 '도'와 '물(物)'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물과 물결의 관계와 같다. 물결은 곧 물이고 물은 곧 물결로서 양자는 일체를 이룬다"고 말했다. 도는 곧 물이고, 물은 곧 도로서 양자는 서로가 다르지 않다는 런 대사의 말은 '불이(不二)'의 정신과도 통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금선학회는?



중국 종남산 누관대에서 김가기 선인 기념비 제막식을 가진 금선학회 회원들.

1981년 설립…선도 맥 잇기 학술대회·국제교류 등 추진

민족고유의 선도(仙道)를 복원하고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 설립된 정통선도수련 단체. 최병주 회장이 이끄는 금선학회는 신라시대 선도를 꽃피웠던 최치원 선인의 관련 유적 복원 등 단절된 선도의 맥을 되찾고자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중국 도가의 16대 선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김가기 선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한 · 중 · 일 학자들을 모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선도문화의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www.금선학회.net, (02)512-7057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루신다 그린 美 록키산 명상센터 원장 (下)

수행에서 얻은 것 생활속으로

"순간을 깨어있으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것의 실상(實相)을 파악하라." (rockymountaininsight.org)

미국 록키산통찰명상센터(Rocky Mountain Insight, RMI)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 겸 수행자인 루신다 그린(Lucinda T. Green) 박사는 좌선과 행선, 자애관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몸에 집중하는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그녀는 수행의 진척을 통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을 통찰해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삶에서 해탈할 것을 가르친다.



좌선·행선·자애관을 중심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위빠사나 지도

이를 위해 린다 박사는 심리학자답게 수행에 필요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랑과 동정심, 기쁨, 평정심 등 신성한 네 가지의 마음가짐과 믿음, 활동력, 마음챙김, 집중, 지혜 등 다섯가지 정신적 요소의 연관성과 통합을 활용한 수행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일상 속에서 평정심을 얻어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

"수행 중 집중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욱 평정심을 갖게 되어,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중(止)을 통해 얻은 고요함은 부드럽고도 다루기 쉬우며 침착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견고한 마음은 내면의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와 평정심의 증장은 깊이 지속되는 안심(安心)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 경계와 사람들, 장소, 사물에 기초하더라도 편안함이 유지되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혜로 가득한 안정되고 집중된 마음, 평상심은 모든 현상의 진리를 지각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챙김, 깨어있음, 좌복 위에 앉아있던 시간들이 완성되어 매 순간 응용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rockymountaininsigh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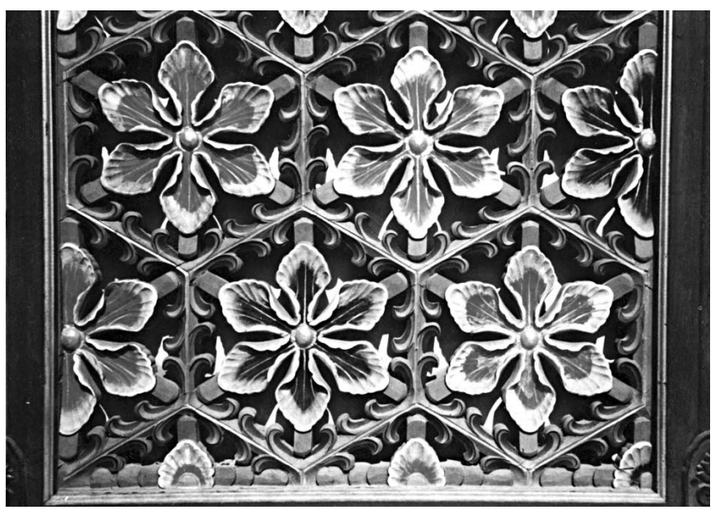
린다 박사는 이러한 지혜와 고요함을 가져오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아나파나사띠(出入息念) 관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강조한다. 특히 다른 위빠사나 수행법과 달리 린다 박사가 강조하는 아나파나사띠 수행은 기본적으로 호흡 즉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집중하여 수행하는 명상법이다. 원어의 아나(ana)는 들숨이고 아파나(apana)는 날숨이며 사띠(sati)는 알아차림을 뜻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산란심을 없애고 마음을 그치게 하여 정(定)이 된 의식으로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관찰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명상법의 과정이다. 수식관을 닦으면 망념으로 인한 장애도 없고 혼침에 빠지지도 않는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집중하여 사마타(止, 선정)를 얻고, 지(止)가 된 고요한 의식을 또렷하게 하여 생성, 소멸하는 대상(육체, 의식, 기타 사물)들을 관찰하여 그것들의 본연의 모습을 여실하게 알아내어 전도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삶은 사물에 속으며, 생기고 사라지는 망상과 분별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전도된 의식을 바르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아나파나사띠 명상법은 앉아서 수련할 수도 있고, 걷거나 누워서 행할 수도 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기에 그 효과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명상법이 숙련되면 흉부 호흡을 고치고 복부 호흡을 하게 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기에 린다 박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수행을 지속할 것을 권한다.

린다 박사는 "우리의 일상은 어느 순간에도 정신적 안정에서 나온 평화와 화합, 평상심, 즐거움을 필요로 하기에 수행에서 얻은 것을 삶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재경 기자

㈜ 동신전통목공



▶ 사 찰 문 전 문 ◀

대 표 백 영 목 합장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번지(직지사 검문소 위)
전 화 : (054) 432-1312
공 장 : (054) 432-8121
휴대폰 : 011-535-7000

주요 공사 사찰
직지사.봉암사
각화사.대승사
해인사 (구광루,선원)
축서사.윤필암
김용사.법주사
운문사.봉녕사
용문사.
서광사 (캐나다)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찾아오시는길
↑ 추풍령I.C
동신전통목공
1Km
← 직지사
직지사 검문소
김천시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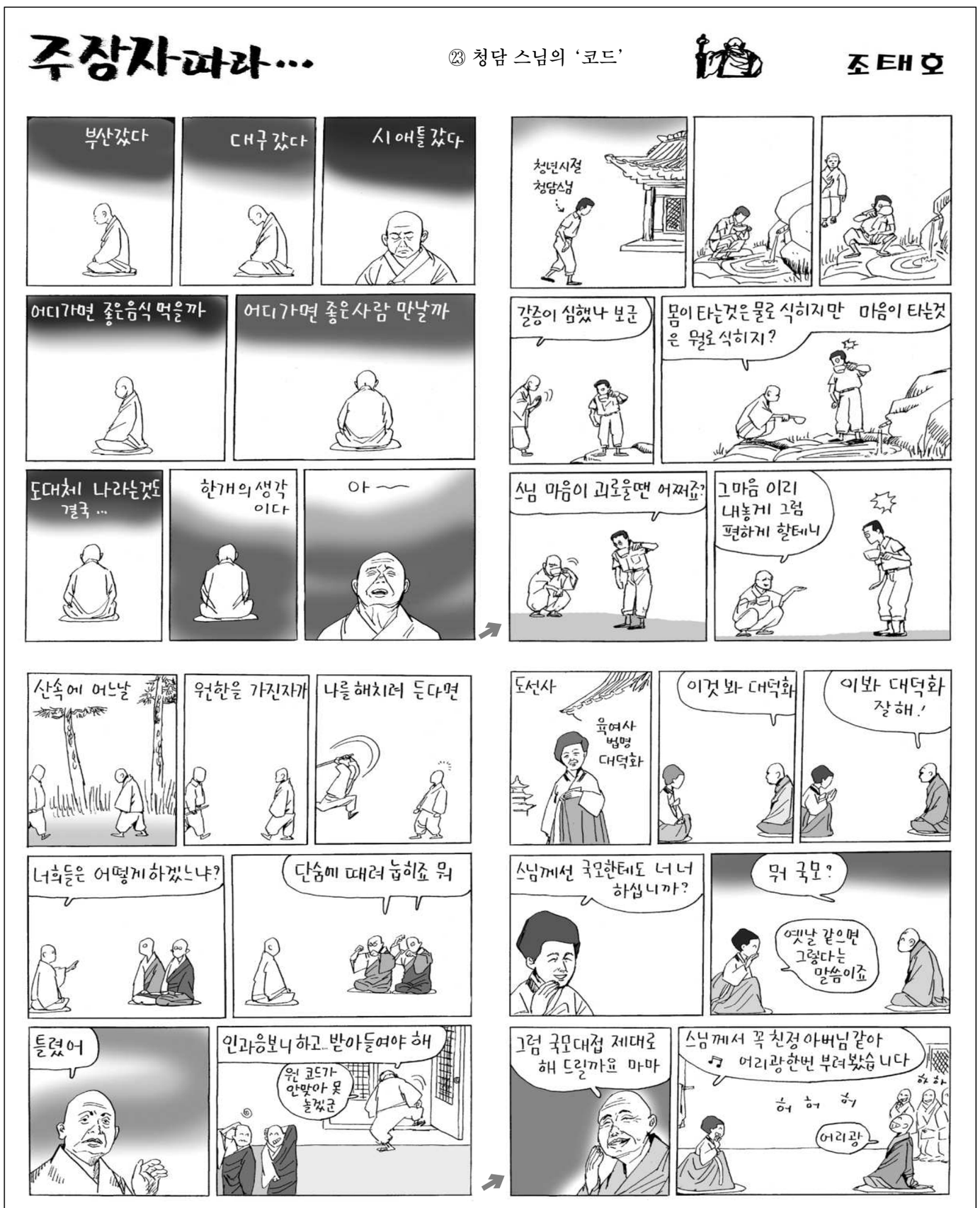
제3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자연속 불성을 찾아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선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 교사 및 법사님 ·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2548(2004)년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 20일 일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 02-511-6070)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3. 교육내용
♤ 여름불교학교 개설 및 운영을 알기 쉽게...
♤ 여름불교학교 지도자의 자세
♤ 흥겨운 몸풀기
♤ 전래놀이
♤ 그림놀이를 통해 우리마음 알기,
♤ 자연에서 찾는 불성
♤ 여름불교학교의 실외놀이
♤ 신 찬불가와 율동
4. 참 가 비 : 일반 40,000원, 회원 35,000원, 도서벽지 및 군종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접수 및 전화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代), 02-739-4967(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청담 스님(1902~1971): 경남 진주 生. 23세 때 고성 옥천사에서 득도. 대원불교전문강원 수료. 유점사 · 상원사 등서 정진. 1955년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이후 종단 주요직 역임.

네티즌 교리문답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문 경전을 보다 보면 복덕이나 공덕이란 말이 자주 보입니다. 복덕은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ID '조계타운')

답1: 한국에서 복이란 말은 공덕과 달리 기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덕과 공덕은 똑같은 의미의 다른 번역이다. 산스크리트 구나(Guna)를 번역한 말로, 연기와 윤회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종류는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게 하는 월천공덕(越川功德), 가난한 사람에게 옷과 음식을 주는 구난공덕(救難功德),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활인공덕(活人功德) 등 매우 많으며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와 마음 씀씀이가 모두 공덕이 된다. 그러나 가장 큰 공덕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ID '무루공덕')

답2: 복덕은 욕심 많은 부자가 피 눈물 나게 노력하였을 때 잠깐 찾아 와 수고했다고 한 마디 하고는 휑하니 사라지는 것이고, 공덕은 욕심 없는 가난한 자가 가난까지 벗어주었을 때 스스로 찾아 와 이 가난도 모르는 멍청이를 평생 섬기는 것이다. (ID '중중')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㊼

교외별전(敎外別傳)- 7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진상은 불이(不二)라는 개념에 담겨 표명된다. 삼라만상이 다 독자적인 개별자로 보이지만 기실은 그렇지만은 않고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다는 얘기이다.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연기법(緣起法)이라는 개념을 그런 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그저 모든 개체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다고만 하면, 일단 개체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각 개체가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재이되 다른 개체들과 관계도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누구와 누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처럼 각 개인이 고유한 독자적 존재임을 이미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고유한 독자적 존재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이거나 친구거나 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모든 것이 연기적 존재라고 할 때에는 고유한 독자적 개체성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존재 양상을 의미한다. 무아(無我), 즉 고유하고 독자적인 개체성은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개체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엄연한 개체로 존재한다. 다만, 모든 개체는 개체로 보일 뿐이고 기실은 그 존재 전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이다.

"개체이면서 개별자 아니다"
언어문자로 드러내기 불가능

강의시간에 무아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게 곰곰 생각해보면 다 남에게서 받은 것이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이 몸부터 그렇고 지식과 사고방식도, 취향도 따지고 보면 내게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지식도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요, 직접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도 결국 체험의 대상과 교섭하면서 갖게 된 지식이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볼 때, 정말로 내게 고유하고 독자적인 것이 뭐가 있나? 모두들 갸우뚱하다가, 한 학생이 대답하였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던데요. 내가 대답하였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지문이라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문도 내게 고유하고 독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요즘 방송되는 한 공익광고가 재미있다고 느꼈다.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자는 캠페인인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만 산다면 정지선이라는 것도 필요 없으리라는 내용이다. 그렇다. 혼자만 존재한다면 정지선과 차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혼자만 존재한다면"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건이다. 불교에서도 그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개체들의 고유한 독자적 개체성은 부인한다. 무아의 교리가 그런 뜻이고 대승불교에서 자성(自性)이 공(空)하다는 교리가 또 같은 뜻이다.

엄연히 개체이면서도 개별자가 아니라는 그 사연, 달리 말하자면 불일불이(不一不二)라는 역설적인 진상은 불가사의(不可思議)에 해당한다. 이리저리 생각으로 따지고 헤아려서 가늠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언어문자에 온전히 담아서 드러내거나 설명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말에 담으면 그 즉시 역설의 어느 한 쪽이 찌그러지고 역설이 죽어버린다. 선종에서 언어문자를 지극히 불신하면서 교외별전을 외치는 이유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2>

보현보살의 법문(2)

보현행 실증 하였기에 입법도량 가능
어긋남 없이 보리심 냄으로써 법신 성취

보리도량의 여래 앞 보배연꽃 사자좌에 있는 보현보살이 시방의 일체세계에 두루 널리 미치는 신심(身心)으로 불가사의한 자재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난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시방세계의 보현보살들 인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나긴 구도여행 끝에 비로자나여래의 사자좌 앞에서 보현보살의 광대무변한 중생구제의 자비활동을 보고나서 허공계처럼 광대한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영원한 법계의 부처님과 보현의 영원한 행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법계에 들어감(入法界)'을 현실세계에서 실증(實證)하게 하는 것은 선재동자가 오직 현실에서 보현보살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보리도량에서 여래의 앞에 있는 보배연꽃 사자좌에 앉아 있는 보현보살을 본다는 것은, 보현보살의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와 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현보살이 도달한 지위가 부처님의 지위와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현보살은 본래 형체가 없는 법신인 여래를 보살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구체화(具體化)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보는 것은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 된다.

시방의 일체세계에서 자비심을 근본으로 해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두루 실천하고 있는 보현보살의 모습은 그대로 부처님의 활동모습이며, 입법계품의 첫머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자비로운 중생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래의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보현보살의 도량은 여래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보현의 원의 바다(願海)라고 하는 것도 오직 여래의 덕(德)의 전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기나긴 구법여행의 끝에 보현보살이 행하신 바를 실증하였기 때문에 선재동자는 마침내 보현행의 도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보현행의 도량은 이제 선재동자가 머물고 있는 도량이 된 것이다. 선재동자가 이제 보현보살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시방세계의 부처님 처소에 있는 무량한 보현보살이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격려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시방세계에 널리 있는 자신의 신심(身心)에서 나타나는 무애자재한 신통조화를 보게 하고, 일체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여러 삼매를 얻게 한 후에, 이러한 경계를 성취할 수 있게 된 인연을 설하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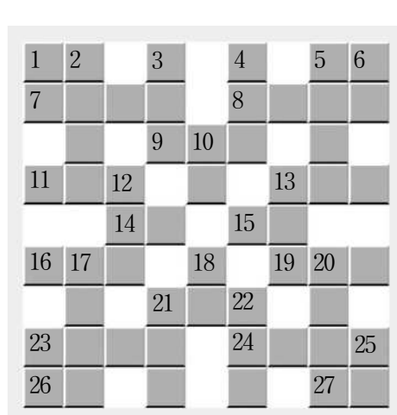
"선남자여, 나는 과거의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겁에 보살의 행을 행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였다.…선남자여, 나는 생각하니 그러한 겁의 바다에서 잠깐 동안 부처님 교법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잠깐 동안 성내는 마음, 나와 내 것이라는 마음,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보리심을 여의는 마음을 내거나 생사하는 가운데 고달픈 마음, 게으른 마음, 장애하는 마음,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만 위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온갖 지혜를 모으는 도를 돕는 법(助道法)인 큰 보리심에 머물러 있었다.…선남자여, 내가 법을 구한 것은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과거의 인연은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겁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다.…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을 보라. 이 육신은 그지없는 겁의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한량없는 천억 나유타 겁에도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다.…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에 날 것이요,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들은 이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나의 청정한 몸을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보현보살의 자재한 신통력과 청정한 법신이 무량겁동안 보살행을 행하며, 언제나 부처님의 교법을 순종하여 가르침에 어긋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보리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하고자 한 인연으로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도(佛道)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만고불변의 공도(共道)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자신의 청정한 육신을 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보살행과 같은 구체적인 인격의 활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몸을 보니 보현보살이 낱낱 세계바다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몸구름을 나타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게 하며, 선재동자는 또 자기의 몸이 보현보살의 몸 속에 있는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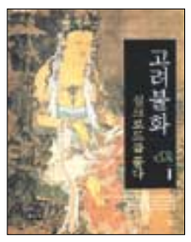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도를 함께 수행하는 벗 5. 절대적인 믿음을 바쳐 의지할 곳으로 삼음 7. 석가모니의 어머니 8. <유마경>에 등장하는 거사, 유마힐 9.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저서 11.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13. 부정하고 음란한 짓을 금하는 계율 14. 경기장에 켜놓는 성스러운 불, 올림픽 OO 15. 깊은 밤 16.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19.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OOO 21. 토끼와 거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판소리 23. 세조가 상원사에 머물 때 만났던 동자 24. 숲 속이나 광장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여는 것 26. 의식을 맡아 집행함 27. 무늬의 한자어.

세로 1. 음식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 밑에 받치는 것 2.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줄인 말 3. 사람이 살지 않는 섬 4. 부처님의 교훈을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 5.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지은 시 6. 의로운 지사, OO 윤봉길 10.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12. 대학생 MT 장소로 유명해진 가평의 관광지 13. 밤에도 낮처럼 환한 곳을 일컫는 말 17.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으로 부석사의 이곳이 유명 18. 오래된 궁궐 20. 불이(不二)의 이치를 설한 법문 21.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OOO 22. 합천 해인사가 있는 산 23. 시나 문장을 모아 엮은 책 25. 저녁때의 햇빛.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 운주사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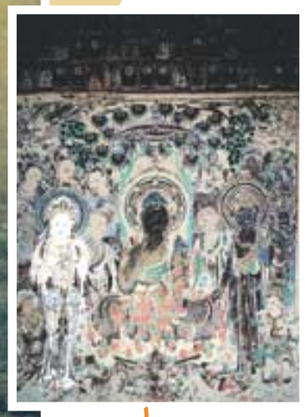




◀탈색된 중국 돈황의 벽화.
▶중국 막고 98굴에 그려진 벽화 '세여인'.



◀현재 기년명이 있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오래된 경신사 소장 수월관음도(1310년).
▼중국 돈황보살 중에서 최고 미인(?)으로 꼽히는 57굴 수하설법도 중 협시보살.



비단길의 끝자락에서 빛나는 고려불화



▲중국 복건성 덕화요에서 발굴된 여성 관음.

화가이자 불교학 전문가인 저자
미술사적 가치와 교리 상세히 설명

고려불화. 우리 민족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미술품이다. 그러나 고려불화의 대부분은 왜구의 침범과 약탈로 일본에 옮겨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국보나 문화재급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불화는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책은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고려불화에 표현된 아름다움의 원형을 찾고자 노력했다. 책은 고려불화가 진정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임을 다양한 도판과 이론적 실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려불화에 담긴 불교사상은 무엇이고, 그 속에는 어떤 상징물이 숨어 있는지, 또 각각의 구도나 그림속의 문양과 소품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고 있다.

고려는 불교가 국교였다. 불교에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고려불화다. 따라서 고려불화에 국가의 문화적 역량이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수려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채색, 엄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구도, 유려하고 섬세한 선묘 등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고려불화가 탄생한 것이다. 고려불화는 비잔틴 양식과 같은 서구 문화와는 여러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불화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원인을 색, 구도, 기법, 안료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해 고려불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고려불화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부처로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미타불을 비롯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약사여래 등이, 보살로서는 관음보살 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과 그리고 선재동자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불 · 보살은 때로 자신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그려지기도 한다. 이 책은 이들 각각의 등장 배경과 역할 등을 경전에 근거하고 시대상황에 비춰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이 위치하는 구도 역시 그런 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고려불화에는 도상과 색채와 상징에서 많은 문화적 영향이 보인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원은 돈황으로 대표되는 실크로드 문화이다. 저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1차 원고를 완성한 후 실크로드를 직접 답사했다. 특히 돈황 벽화에 나오는 도청, 비천 등에서 관련 근거를 찾는다. 고려불화는 양식상 서역사람인 위지을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 즉 서역 미술의 종착역이자 완성품이 바로 고려불화인 셈이다. 저자는 이것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찾아내 실증적으로 풀어나간다.

단적인 예로 서역미술은 평면적이고 단순한 색채구성에 머문 반면, 고려불화는 입체적인 양식과 화려한 색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안료도 돈황은 식물성 · 광물성 · 인공 안료를 뒤섞어 사용한 반면, 고려불화는 퇴색과 변색이 거의 없는 광물성 안료를 주로 사용했다.

이 책이 일반 미술서와 다른 점은 불교 교리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불교 교리와 경전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김영재 씨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과 불교라는 균형잡힌 잣대로 시종일관 이 책을 서술하고 있기에 종교적인 밀바탕이 돼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고려불화의 총체를 쉽게 독자들에게 전해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최인호 지음 | 구본창 사진 | 여백 펴냄 | 9천원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그린 가족소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를 펴냈다. 넉넉지 않은 집안의 3남3녀 중 다섯째로 성장한 최씨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이 책은 최씨 어머니가 예순여덟 살 때부터 숨을 거둔 여든 살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특히 늘그막에 치매에 걸려 온 가족을 안타깝게 했던 어머니와의 일화는 수필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루는 최씨가 생일잔치 음식을 비닐봉지에 주워담는 어머니에게 "거참, 왜 그렇게 주책부리시는 거예요?"라며 언성을 높인다. 하지만 늘 자식들이 먹다 남긴 찬밥을 무리해서 다 드시고 소화가 안돼 신트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 올리며 "저런 극성이 우릴 키워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되뇌일수록 숙연해지는 '아! 어머니'
치매 걸린 노모 등 작가 자신의 가족사 소설로

치매에 걸려 "왜 이렇게 죽는 게 힘드냐"며 투정 부리는 어머니에게 '치사하게 죽음을 무기로 우리들을 위협한다'며 이제 그만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다가도, 어머니의 삶이란 결국 우리의 삶도 저처럼 고통스러울 것 이라는 생로병사의 어떤 견본일 뿐이라는 생각에 눈물과 한숨을 짓기도 한다.

풍수지탄이라고 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리워할 뿐이다'는 진리에서 최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임종 후 그는 "나는 매 끼니 고기반찬에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있는 데 어머니는 무슨 불평이 많은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산 채로 고려장시키는 고문으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형리(刑吏)였다"고 자책한다.

작가는 백번의 뉘우침이나 백마디의 미사연구보다 단 한번이라도 효의 실천이 아쉬웠음을 솔직히 털어 놓는다. 생전 처음 71세의 어머니를 모신 부산 여행에서 평소처럼 급한 성격 탓에 어머니와 다투고 다신 소리 지르지 않도록 맹세했던 일, 노망에 걸린 어머니에게 짜증과 권태와 신경질이 북받쳐 올랐던일… 등 모두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어머니와의 기쁘고 슬펐던 추억들을 진솔하게 쓴 이 가족 소설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가족이 제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다. 또한 이 책에는 아카데믹한 사진으로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사진작가 구본창이 '어머니'를 주제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실었다. 정상급의 사진작가와 소설가가 이루어내는 어머니에 관한 이미지 앙상블은 독자로 하여금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소박한 옛 정서도 함께 일깨워주고 있다.

■김동훈(시인)

동숭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365일 부처님 말씀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1월 · 자비와 보시
2월 · 선행과 악행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4월 · 증오와 반성
5월 · 인내와 노력
6월 · 애착과 고통
7월 · 애욕과 탐욕
8월 · 올바른 삶
9월 · 친구와 가정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11월 · 자유와 행복
12월 · 진리와 무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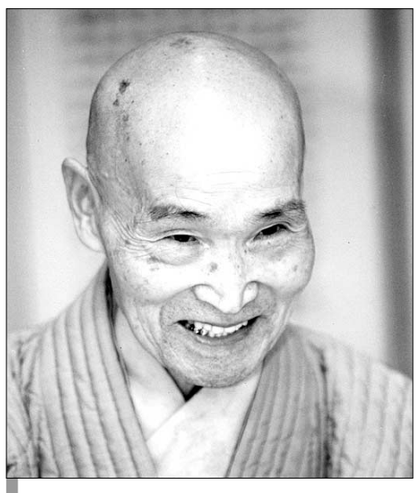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번뇌 업 고통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

40여년 이상 장좌불와 · 묵언정진 · 일일일식

청화 스님의 향기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스님문도회 엮음 | 김형주 사진
이른아침 | 1만2천원

성자의 삶
조계종 성륜사 · 성륜사 신도회 엮음
사회문화원 | 3만9천원

마음… "가장 쉬운 부처님 공부법" 등 법문 18편 담겨

성자… 출생에서 열반까지의 행장과 수행처 탐방

큰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일화를 보고 듣는 것은 스스로를 경책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평생 청빈한 삶을 살며 수행과 중생교화에 앞장섰던 청화 스님(淸華, 1923~2003)의 수행일화를 조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지난 부처님오신날 방영된 후 불자들이 다시금 스님의 가르침을 찾는 현상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청화 스님은 56년의 법랍 중 40여 년이 넘도록 토굴생활을 하며 바닥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묵언정진, 일일일식(一日一食) 등을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60세가 넘어서야 토굴생활을 접은 스님은 1985~95년 곡성 태안사에서 머물며 당시 폐찰이 되어가던 태안사를 중창했으며, 95~99년 미국 삼보사와 금강선원에서 현지의 불자들과 교포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전남 곡성 성륜사에서 원적에 들기까지 수행자의 귀감이 되었던 청화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나왔다. 청화스님문도회가 엮은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와 곡성 성륜사 및 신도회가 펴낸 <성자의 삶>은 스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되짚어보게 해준다.

우선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는 청화 스님의 법문을 가려 엮은 책이다. '부처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보살의 계율'과 '우리 몸에 가장 완전한 보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일' 등 평소 "세상에서 가장 쉽고 바른 공부는 부처님 공부밖에 없다"고 역설했던 스님의 법문 18편이 담겨있다. 성륜사 주지 도일 스님은 "큰스님의 많은 가르침과 말씀 가운데,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묶었다"며 "이 책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발간의의를 밝혔다.

<성자의 삶>은 청화 스님의 행장과 스님의 수행처 탐방기를 묶은 책이다. 성륜사신도회가 펴낸 이 책은 사회문화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정진백 씨가 글을 쓰고 김동현사진연구소 김동현 소장이 사진을 찍었다.

1부 '진리의 길 성자의 삶' 편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행장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스님의 편지글과 인터뷰 기사, 법문 등을 곁들였다. 2부 '머물되 머무름 없이'에서는 스님의 출가사찰인 백양사 운문암과 지리산 백장암과 월출산 상견성암, 도봉산 광륜사를 비롯해 지난해 열반에 든 성륜사 조선당 등을 찾아간 탐방기를 담고 있다. 수행의 현장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청화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문도회와 신도회가 이러한 책들을 펴낸 목적은 "청화 스님은 참 대단한 수행자였어"라는 감탄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고 수행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청화 스님이 책으로, 사진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온 까닭이 아닐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강원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우리사찰답사회 글 · 사진
문예마당 | 각 1만2천원

알면 보이는 사찰건축의 진면목

사찰은 신앙과 예경의 공간이다. 동시에 불교문화재가 가득한 살아 있는 박물관이기도 하다. 마음에 묻은 때를 씻어내는 도량이란 사실만으로도 사찰은 불자에게 소중하다. 하지만 사찰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 그리고 멋을 깨닫고 나면 절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김은 물론 신앙심마저 배가되기 마련이다. 문화재 중심 사찰 답사가 갖는 의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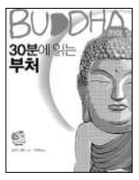
사찰답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빼곡히 담은 책 두 권이 나왔다. 강화 전등사와 보문사, 화성 용주사를 다룬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과 설악산의 신흥사, 오봉산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다룬 <강원도로 떠나는 사찰기행>이 그것이다.

두 책은 사찰답사에 필요한 정보만을 모은 책이다. 일주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각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관람 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사찰에 얽힌 창건 설화나 전설, 그리고 사찰 주변 볼거리도 포함하고 있으니 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사자의 주관적 감흥을 가급적 배제하여 사실(史實)에 충실한 안내서가 되도록 했다.

많은 사찰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록되어 있는 사찰들 이외에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좋은 절이 부지기수니 말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짧고 명쾌한 불교 입문서



30분에 읽는 부처
길리언 스톡스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 5천5백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세상이다. 그런 만큼 지식조차 패스트푸드처럼 섭취하기 용이한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시류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많은 사상가의 사상을 소개하는 소책자 시리즈물이 심심찮게 나온다. <30분에 읽는 부처>는 랜덤하우스중앙의 '30분에 읽는 위대한 사상가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손쉽게 부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를 위한 책이다.

부처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안내서를 표방하고 있는 이 책은, 당시 인도사회상과 부처님의 삶, 진리, 불교의 형성 및 정착과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작은 부피의 책자이지만 불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지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 등의 주요 개념을 요령껏 압축하여 실었다. 한눈에 부처님의 모든 것을 훑어볼 수 있게 하려는 지은이의 노력을 느낄 수 있다.

8만4천 법문으로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불법이고 보면, 소책자에 담긴 언설로 불교의 진수를 알려하는 건 과욕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박익순 기자**

우리말로 쉽게 하는 천도재

의식 전과정 한글 해설 … 사물 장단표도 실어



한글해설판 영산범음집
현담 스님 엮음
범패연구소 | 5만원

천도재 의식집이 한글 해설판으로 출판돼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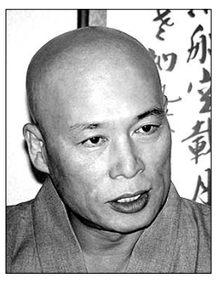
범음범패연구소를 운영하며 10년째 범음범패 테이프, 비디오 제작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담 스님(사진)이 엮어낸 <영산범음집>은 삼신이운부터 배송까지 한권의 책에 천도의식 전과정을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여러 권의 책을 펴놓고 진행해야 하는 천도의식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했다는 것 외에 <영산범음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 해설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재의식 한글해설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도의식 내용마다 색인번호를 달고 한문의 해설편을 실어 이해를 돕고 있으며 바라춤을 추거나 진언을 욀 때의 악보에 해당되는 사물장단도표를 실어 범음범패를 배우려는 스님들의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교사였던 현담 스님은 10년전, 우연히 범음범패를 접하고 악보를 정리할 욕심으로 범음범패 연구에 뛰어들었다가 생업까지 접고 범음범패 자료 수집, 정리, 전산작업에 매달려왔다. 7년 전 한문본 영산범음집을 펴낸데 이어 영남범음범패 테이프 12개를 제작했고, 영남범음범패 인간문화재였던 故 구암 스님의 구음테이프를 토대로 범음의 원문과 해석 자막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현담 스님은 "의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한권의 책으로 천도의식 순서, 내용, 악보까지 해결하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담 스님은 <영산범음집> 출판과정에서 한문 오자를 막기 위해 6개월 동안 직접 입력작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고어체여서 서체가 없는 글자로 애를 먹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서체 지원으로 겨우 책을 출판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남들이 모두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악적 · 문학적 · 불교사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귀중한 범음범패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는 가만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비를 털어 범음범패 자료화를 진행하던 현담 스님의 범음범패에 대한 사랑은 결국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게 했다.

"구암 스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니 영남범음범패의 많은 부분이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범음범패를 악보화 하려는 저의 원력을 언젠가는 이뤄서 후대에도 범음범패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현담 스님은 앞으로 점안의식 내용을 담은 <점암법>과 예수재 의식집인 <예수재> 등의 책도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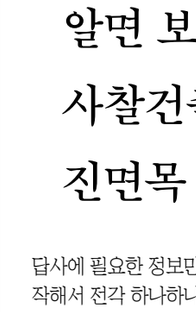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정정도론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3	마음	청화 스님	이른아침
4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5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6	육조단경	청화 스님	광륜
7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동아시아
8	무문관	정성본	한국선문화연구원
9	육조혜능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10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	일타 스님	효림

도서 안내 : (02)737-0695


전등록 전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 바로보인 전등록 >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참선수행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드는 법까지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일반인 남녀 35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1차 : 7월 11일(일) ~ 7월 14일(수)
◎ 2차 :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3차 : 7월 23일(금) ~ 7월 26일(월)
◎ 4차 : 7월 30일(금) ~ 8월 2일(월)
3. 장 소 : 홍천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선문장)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4. 참가비 : 6만원
5.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6. 접 수 : 온라인 접수 (농협 : 303040-51-017583 예금주 : 손수열)
전화접수(서울 금강선원. 홍천 참선수련원)
접수마감 : 6월말
8. 문 의 : 서울 금강선원 02-445-8484 FAX 02-445-8043
홍천 선문장 033-433-5845 ~ 6 FAX 033-433-5847
대한불교조계종 金剛禪院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4년 6월 26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산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불교 소재의 음반들이 잇달아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명상 음악으로 더위·번뇌 '싹'

'정선 두이봉 계곡의 물 쏟아지는 소리, 나무 한 짐 해 놓고 숨 고르며 부르는 노랫소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듣는 부석사 풍경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옆 사람 휴대전화 소리, 지하철 안내 방송 소음에 진저리난 사람이라면 마음 한구석에서나마 그리워할 만한 소리들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사와 자연의 소리를 음반으로 옮긴 명상음반들이 잇달아 출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리아루트의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 '공(空)-소리로 떠나는 그곳, 산사' '봄날의 소리', 지월스님의 '천장경' 등이다.

이중 두 개의 음반으로 구성된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은 산사의 사계와 산사의 하루를 소리로 담아내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음반인 '산사의 사계'에는 영주 부석사의 낙엽밟는 소리, 곡성 도림사 계곡의 물소리, 순천 선암사의 대나무 숲바람 소리, 정선 정암사의 여름 새소리 등이 실려 있다.

또 '산사의 하루' 편에서는 순천 송광사의 범종 소리와 법고, 도량석 소리를 녹음했다. 역시 두 장의 CD를 발매한 '공'도 장엄한 예불로 유명한 송광사와 해인사, 운문사의 저녁예불 현장을 실황 녹음했다. 여기에 해남 대흥사 석운 스님의 <천수경> 독경과 수덕사의 새벽 종소리, 강진 무위사의 사시예불 소리를 편집해 넣었다.

이들 음반들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더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음반 매장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산사를 소재로 한 명상 음악을 들으면 눈앞에 시원스런 산사의 모습이 펼쳐져 더위와 번뇌까지 한꺼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효과가 구매자들을 강하게 유혹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웰빙시대'를 맞아 명상 관련 소재의 음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산사에서의 고요한 명상' 은 교보문고 음반매장인 핫트랙스(Hot tracks) 챠트 클래식부분에서 5위(6월 1일 기준)로 성큼 뛰어올랐으며, 출반당시 45위였던 '공'도 최근 17위를 달리고 있다. 불교 소재의 음반으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음반 매장의 한 직원은 털어놓는다.

최근 것은 아니지만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이 대나무 피리에 지혜의 선율을 담은 앨범 '카루나(Karuna)'도 명상 음반의 인기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명상음악가 김정만씨는 "과거 불교 소재의 명상음악이 국악 중심의 선율이나 독경에만 의존하는 등 단조로워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음반들은 산사의 자연이나 예불 현장 등 다양한 효과음을 편집해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산사의 분위기를 맛보고 싶은 일반인들의 귀를 자극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음반 매장에서 만난 이수곤(32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씨도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스님들의 독경이나 산사의 효과음을 녹음한 음반을 사서 들었다"며 "직장과 가정일로 스트레스가 쌓일때나 더위에 지쳤을 때 시원한 산사를 소재로 한 명상 음반을 자주 듣게 된다"고 구매 이유를 밝혀 김 씨의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웰빙 바람 타고 불교 소재 음반 봇물
도림사 물소리, 송광사 범종 등 다양
신 감각 편집으로 기존의 단순함 탈피
클래식부분 상위 기록하며 인기몰이

글=김주일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260m 초대형 달마 '와'

이종철 화백 6월 4일 대구시에 기증
지하철 참사 · 유니버시아대회 기념

"달마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좋은 기운이 지하철 참사로 상처받은 대구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禪)화가인 석주 이종철 화백(59)이 6월 4일 대구시에 초대형 달마도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달마도는 폭이 1.3m로 길이가 무려 260m나 되는 한지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2173명의 역동적인 달마가 그려져 있다. 2173명의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년도(2003)에 대회 참가국수(1백70개국)를 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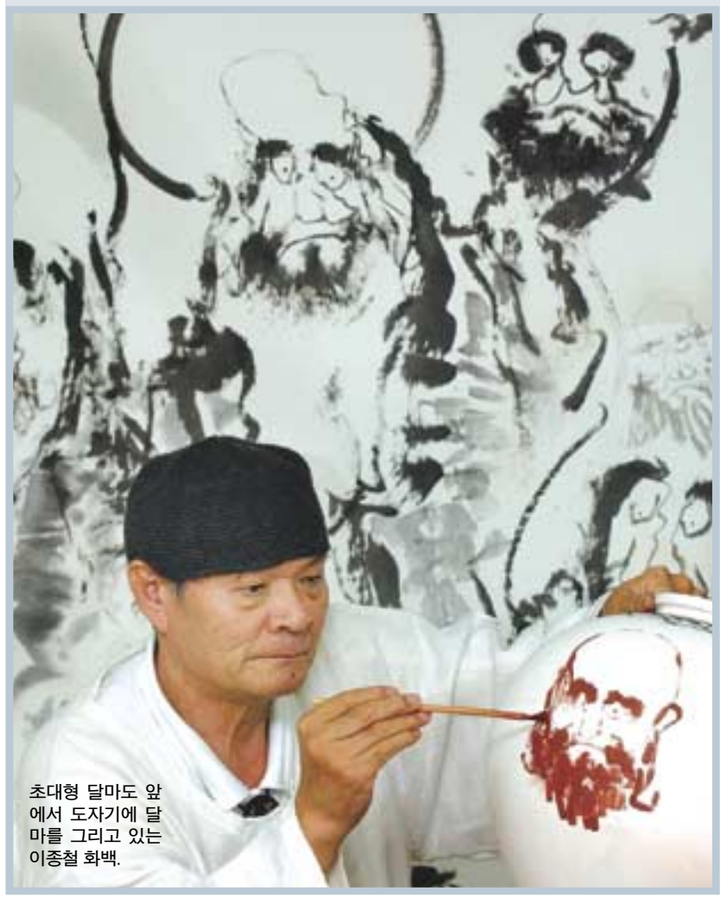
긴 종이(20m×60cm)에는 2천3개의 달마를 그리고 이보다 짧은 종이(10m×1m)에는 1백70개의 달마를 그렸다. 작업기간만도 6개월이 넘었다. 일단 지난해 6월 열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에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전시회가 끝난 뒤 국내 선화 수집가들이 높은 작품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평소 의미있는 일에 그림이 사용되길 발원한 이 화백은 대구시가 최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하기로 했다.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던 대구 시민을 위로하고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대형 달마도를 그렸지요. 이젠 대구 시민이 이 그림의 주인입니다."

1945년 일본 야마구치(山口)시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한국에 건너온 뒤 대전에 정착한 이 화백은 본디 사진작가였다. 20여년간 카메라를 들고 살다가 1980년대 산사에서 수행한 인연으로 90년초 불국사 월산 스님에게서 '자봉'이란 불명을 받고 붓을 잡기 시작했다.

현재는 작품 생활 틈틈이 대구 동화사와 공주 영평사에 다니며 불심을 키우고 있다. '선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화백은 지금까지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전과 시연전을 개최했으며, 7월초 서울에서 '도자기에 새긴 달마'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초대형 달마도 앞에서 도자기에 달마를 그리고 있는 이종철 화백.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4>



마음이라는 화가

불교는 다른 어떤 철학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마음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다. 불교 공부는 한 마디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중요시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졌다(一切唯心造)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이 말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 창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면 마음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등 모든 기계들은 인간의 마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만약 마음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 질 수 없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기초가 된다. 마음은 행동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감정도 좌우한다. 그리고 면역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결국 생각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육체의 건강과 면역체계는 물론 정서적 정신적 건강, 행복과 불행, 일의 효율성과 만족, 성공에까지 영향을 준다. 육체는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마음가는 대로 움직인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당신의 인격을 결정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사고 방식 내지 습관의 전환은 사고 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잡아함경>의 '무지경'에서 부처님은 '몸은 마음의 반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중생들이 깨끗해지느니라. 비구들아, 나는 얼룩새(斑色鳥) 만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어떤 생물도 본적이 없는데 마음은 그보다 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축생(畜生)은 마음이 갖가지이기 때문에 빛깔도 갖가지이다. 차란나새는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이, 중생의 마음이 갖가지로 뒤섞인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 차란나새는 마음이 갖가지이기 때문에 그 색깔도 갖가지인 것이니라." 얼룩새나 차란나새가 몸에 갖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은 그 새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은 고양이는 그 마음이 검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누런 황소는 그 마음이 누렇기 때문에 누런 색을, 얼룩말은 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알록달록하다. 우리나라 사람을 백의민족이라고 하였다. 하얀 색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얗고 깨끗한 것을 지향한 것이다. 반면에 까마귀를 흉조로 여긴 것은 검어서 보기 흉했기 때문이다. 검은 색은 정결의 백색과 반대로 모든 나쁜 마음을 드러내는 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계속하여 마음을 그림에 비유하고 있다.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 잘 사유하고 관찰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갖가지로 물들어 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해진다. 비유하면 화가가 잘 만든 새하얀 바탕에 여러 가지 채색을 갖추어 생각대로 갖가지 모양을 그려내는 것과 같다." 마음이 탐욕과 증오로 얼룩져 있으면 말과 행동이 지저분해져 보기 흉하다. 마음이 사랑과 친절로 가득 차 있으면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깨끗하다. 욕정에 불타고 있는 사람의 언행은 은밀하고 보기 싫다. 나쁜 생각을 지닌 사람을 일컬어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몸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에 그려진 그림은 단지 단순한 그림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심상(心象, mental image), 즉 마음에 그려진 그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유사한 심상의 에너지를 끌어 모은다. 마음에 도둑놈 하나를 그려 놓으면 이 도둑놈은 다른 도둑놈을 불러들인다. 도둑놈들이 서로 모의하여 도둑질을 하게 된다. 도둑놈 하나만으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도둑놈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다. 도둑질도 결국엔 마음이라는 화가가 도둑놈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마음이라는 화폭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지나간 날들을 잠시라도 기억해보면 수많은 심상들이 떠오른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최근의 일까지 숱한 그림들이 나타난다. 나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건이나 사람들의 그림, 나를 기쁘게 해 주었던 사람의 그림,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의 그림, 분노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얼굴들 등등 다양한 그림들이 마음에 그려져 있다. 마음에 그려진 그림들 중엔 오해로 그려진 것들도 많다.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려진 그림을 수시로 꺼내어 채색한다. 아름다운 그림도 있지만 보이고 싶지 않는 그림도 마음이란 화폭에 그려져 있다. 화폭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탐욕, 분노, 무지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부처님은 위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감정·행동·면역 체계에 큰 영향
'아름다운 心象' 원하면 탐진치 먼저 버려야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지상 백고좌

내 마음 맑아지면



월악산과 치악산이 대웅전 아래로 겹겹이 펼쳐진 제천 감악산 백련사. 수해로 무너진 백련사를 복원불사한 후 지금까지 26년간 주석하고 있는 담월 스님은 "불연(佛緣)의 지중함을 알고 수행에 매진해 참된 대승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담월 스님

(제천 백련사 주지)

서구사상·물질주의 가치관, 한계에 봉착
이타행·환경·통일 등 시대 요구 깨달아야

해발 850m, 대관령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충북 제천 감악산 백련사 가는 길. 산이 깊은 곳 어디나 그러하듯, 산사로 오르는 길은 차를 타고 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계곡물이 맑고 녹음은 짙다. 산자락을 따라 한참을 오르자 갑자기 한두 방울씩 비가 오기 시작한다. 여름을 재촉하는 빗소리는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무와 흙이 빗물에 젖어 향긋한 냄새를 피워 올린다.

어느덧 백련사에 다다랐다. 지난 3월 시작한 불사가 한창이다. 요사채 한 동을 짓는 불사였다. 이곳 백련사는 원래 신라시대의 고찰이었으나, 1976년 수해로 축대가 무너지고 인법당 한 채만 간신히 남게 됐다. 그러다 올해 세수 여든 하나인 담월(潭月) 스님이 78년 처음 이곳을 찾은 후 평생의 수행처로 삼고 손수 흙짐을 지어 나르고 돌을 쌓아 법당을 지은 후 오늘에 이른다.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불사에 대해 먼저 여쭈었다.

"불사가 한창입니다. 요사채 이름은 지으셨습니까?"

"무염당(無染堂)이에요. 절 이름이 백련사(白蓮寺)잖아요.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무상번뇌 속에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말자는 뜻으로 무염당으로 지었습니다."

"산과 계곡이 너무 맑아 오르는 길에 잡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왔다"고 다시 여쭈자, "그럼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네요. 내가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으니 내가 곧 산이고 계곡이고, 계곡 물 소리가 곧 내 소리지 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병든 늙은이한테 뭐 들을 말이 있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스님의 말씀에 무어라 답하지 못하는 기자의 우매함을 눈치 채셨는지, 스님은 오늘날 불자의 사명과 역할로 화제를 돌렸다.

"오늘날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요? 불자의 사명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마음과 경계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근본을 밝혀 맑은 거울과 같은 자성의 본체를 얻는 것이 첫째 문제요,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경계, 곧 내 몸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바르고 청정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만 해결하게 되면 그가 곧 부처요 대성자(大聖者)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마음 하나만 맑아지면 앞에 나타나는 경계, 곧 세계는 청정세계가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시비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시비의 세상으로 보일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보일 것이며 망상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망상의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 가운데 12선악과 망상분별이 끊어지고 탐욕이 적어지면 그 만큼 내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 곧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오탁악세(汚濁惡世)로 보이지만 마음이 청정한 불보살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청정한 정토세계인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마음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자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 size : 1500×820×400 가격 150,000원 – 할인가 130,000원
1800×1030×480 가격 220,000원 – 할인가 190,000원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 씻는 다이, 채소 등등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홍보 중 100대분에 한하여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 0305212호
의 장 제 0300518호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 : (063)323-3010~1
FAX : (063)323-3012
전국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현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훼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도 추가 판매합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 별도가격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이곳이 극락정토

좁고 소박한 방에서 서도 삼매

기자가 뵌 담월 스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소용없어요."

지난 2001년 위 절단 수술을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담월 스님은 "웃이라도 입고 있으니 사람 같아 보이지, 사실 뼈와 가죽 밖에 안 남았다"면서도 환히 웃어 보이신다.

1978년 복원불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 스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로도 유명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린 후 참선과 경전공부를 한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에는 1시간 정도 산행을 하며 건강을 추스른다. 나머지 오전 시간은 붓글씨를 쓰며 보낸다. 신도들이 자신이 쓴 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 시작하게 된 글쓰기는 스님이 '이 생에 마지막으로 하는 포교'인 셈이다.

스님의 방은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자리와 책상, 붓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전부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건 공부하는데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예 방에 들이질 않으셨다. 현재 불사 중인 요사채에 마련될 스님의 방도 지금의 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방이 크다고 수행이 잘 되는 건 아니잖소. 이만하면 극락이지."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3년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45년 서울 대원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50년 해인사 강원과 범어사 강원에서 강사를 지낸 후 속초 신흥사, 간성 건봉사, 서울 칠보사 주지를 거쳐 78년부터 제천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 1천6백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교는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민족의 종교이자 호국의 종교로 승화해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결을 이어 온 전통적 종교인 것입니다. 민족정기 함양의 근간이 되었고 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민족문화의 모체로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는 나라의 성쇠와 숨결을 함께 해 온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불교도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의 국가 현실을 직시하고 국난의 타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만 불교도가 다같이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관습을 탈피하고 보다 참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으로는 합리적인 불교 현대화 방안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호국사상을 함양해서 사회정화와 국민정신 순화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압도해왔던 서구사상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산업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숱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성 타락은 급기야 전세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병폐로 지구와 생물이 파괴 오염되어 존망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냉엄하게 우리 자신과 세계를 돌아봐야할 때가 왔습니다. 21세기의 인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참된 삶의 좌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가 요청하는 새로운 인간상, 이타행으로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정의구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도덕성 회복과 환경보호, 민족통일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아가 세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임을 깨달아 신행을 스스로 혁신하는 참된 대승보살이 됩시다. 천만 불교도가 다 같이 대승보살로 거듭난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중흥을 위하고 불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차게 정진해야 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수행만이 '불자의 길'이라는 뜻으로 스님의 말씀을 새겨본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하고 올바른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을 믿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戒)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행막식하며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과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는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경건한 생활인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불연(佛緣)을 맺기 위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9살부터 인근에 사는 장돌뱅이를 따라 전국을 떠돌았어요. 그 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중 한 가지라도 만족을 느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어요.



담월 스님은 직접 쓴 "전법도생(傳法度生), 부처님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의 붓글씨를 보여주었다. 글쓰기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의 또 다른 포교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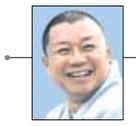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불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연이 될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잠시 맑은 하늘에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하늘, 한 줄기 햇살. 한참동안 말씀이 없던 스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신다.

"항상 이렇게만 깨어 있어도 좋겠죠?"

성불할 수 있음과 인과율을 굳게 믿어라
막행막식하며 수행 잘 한다는 건 어불성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영 스님(1)

아침 여섯시. 오늘은 도영 포교원장스님을 모시고 합천 해인사로 출장을 가는 날이다. 약속된 장소로 스님을 모시러 가야하니 서둘러야 한다. 사찰에서 아침 여섯시면 빠른 시간이 아니지만 직장인 처지에서 보면 이른 시간이다. 포교원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직장인 개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직책상 원장스님을 모시고 출장을 다녀야 할 때가 있다. 그러자면 미리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서 어른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원장스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한 배려이다. 나는 항상 서두른다고 번잡을 떨어도 매양 지각이다. 게으름과 굼뜸으로 어른을 불편하게 모시지는 않는지 매번 걱정이다.



그림 · 문병성

이번에도 부지런히 서두른다고 했지만 또 늦었다. 항상 그랬듯 오늘도 도영 스님은 큰길에서 내가 오는 쪽을 향해 바라보고 서 계셨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스님은 챙겨온 봉지에서 과일과 음료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아침도 못 먹었을 것이니 이것이라도 먹어봐." 나는 사실 약속시간도 못 지켜 스님께서 꾸중이나 하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 과일과 음료수까지 주신단 말인가? 말 그대로 송구했다.

도영 스님은 잠으로 자비하신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다. 내가 과일과 음료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어른을 모시게 되면 간식 같은 것은 아랫사람이 준비하는 게 보편적 정서다. 또 휴게소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조금 늦게 식당에 들어가면 스님은 벌써 내 밥까지 식탁에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윗사람에게 잘하기는 쉬워도 아랫사람에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들다.

도영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율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는 부안, 김제의 금산사 주지 소임을 오랫동안 보셨다. 스님이 금산사 주지로 계실 때의 전북불교는 밖에서 보기에도 활발했다. 스님은 기독교의 교세와 교당이 동양에서 규모가 몇 번째 크기로 유명한 전주시 도심에 지상 4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했다. 불자들의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서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한글로 알기 쉽고, 암송하기 쉽도록 번역해서 불자들에게 배포했다. 스님을 만나보면 부처님 법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전법일념으로 오로지 포교에 대한 열정의 말씀뿐이다.

그 의지가 말사 주지 임명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본사 주지로 계실때 스님이 말사 주지를 임명할 때는 그 인사기준을 포교에 대한 원력과 능력으로 정하곤 하셨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운영과 포교에 대한 능력에 상관없이 문중에서도 법랍이 많은 스님들이 말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용납하지 않았다. 말사주지에는 철저하게 능력위주의 스님을 임명했다. 그러다보니 지역포교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었다.

스님은 지역사회 복지에도 관심을 쏟았다. 스님 연배의 스님들은 대부분 산중에서 화두를 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법거량을 나누는 일화가

포교열정 식을 줄 몰라
인사, 능력위주로 철저

자랑스럽고, 세상사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수행자다운 모습이라고들 인식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도영 스님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는 말씀을 철직으로 받들고 평생 동안 쉼없이 실천하고 있다.

불교는 실천하는데 생명력이 있다. 스님은 포교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군인포교에 남이 따르지 못하는 열정을 갖고 계신다. 화주에도 열정이 넘친다. 공심이 아니라면 저렇게 당당할 수도 없고, 당신 절 불사에도 군인 포교처럼 저토록 간절한 열정 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도영 스님 법랍과 연세 정도면 이젠 상좌들 시중을 받고 신도들의 칭송만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는, 신심(?) 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앞날을 그려 보았다. 부끄럽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열정이 도영 스님의 절반만 따라줘도 우리나라에 부처님가르침이 더욱 더 널리, 알려질 텐데 하는 아쉬움만 든다.

원장스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나까지 저절로 수행이 된 듯한 착각이 든다. 스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오신 경험담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콕 콕 와 박히기 때문이다. 출장 갈 때 모시고 다니면서 듣는 말씀이 내게는 큰 행운이기도 하다. 스님은 아랫사람에게는 불론이고 웃어른도 당신의 평소모습처럼 편하게 모신다. 서울 구의동 영화사 조실이신 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도영 스님의 은사스님이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육 법 등(六法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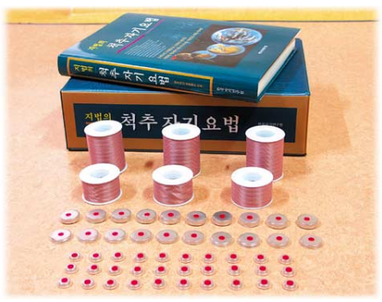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계(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주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산사서 정진하면 삶의 활력 UP

여름방학 · 휴가 앞두고 전국 사찰 50여곳서 수련회

웰빙 열풍 반영, 갯벌탐사 · 삼보일배 · 양생법 등 눈길

"여름무더위, 산사에서 수련회를 하며 이겨내요!"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두고 전국 50여개의 사찰 · 단체들이 150여개의 여름수련회를 준비, 불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올 여름수련회는 발우공양, 참선, 108배 등 기본적인 수행 프로그램에 더하여 요가, 산림욕, 소리체험, 불가전통양생법 등 최근 불어 닥친 웰빙열풍을 반영한 실용 프로그램들이 보완돼 눈길을 끈다. 또한 선무도, 불교무술 등 수행과 건강을 접목시킨 수련 프로그램과 새만금 갯벌 탐사, 삼보일배 체험 등 생태관련 프로그램 등 수련회 소재들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부부수련회'와 '가족수련회' 등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새로운 수련회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올해 각 수련회의 화두는 단연 '참가자들을 위한 수련회'이다.

보다 자세한 수련회 정보는 조계종 신행정보센터(info.buddhism.org)에 문의하면 된다. (02)2011-1974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2002년 해인사 여름수련회 참가자들이 수련에 앞서 사찰예절 등을 배우는 모습(왼쪽)과 팔만대장경을 탁본하는 모습(오른쪽).

●●● 전국 사찰 · 단체서 마련한 여름 수련회 일정 ●●●

지역	사찰	프로그램	기간	대상	연락처
서울 (02)	금강선원	1회 참선 수련회	7월 11일~14일	일반	445-8484
		2회	7월 16일~19일	일반인	
		3회	7월 23일~26일	일반인	
		4회	7월 30일~8월 2일	일반인	
	법장사	여름불교학교	7월 25일~27일	어린이	971-1331
	도선사	여름불교학교	7월 21일~23일	어린이	933-3161
	조계사	산중 철야정진	매월 음력 2일	일반인	732-2115
	화계사	철야 참선 정진 법회	매주 주말	일반인	902-2663
	봉은사	여름불교학교	7월말~8월초	어린이, 중 · 고등학생	3218-4815
경기 (031)	봉선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24일~26일	초등학생	527-1958
		2차	7월 29일~8월 1일	대학생, 일반성인	
		3차	8월 12일~15일	초등학생	
	용주사	불교학교	7월말	어린이	234-0040
	사나사	여름불교학교	7월 23일~25일	어린이	772-5182
	영평사	여름 숲속 학교	7월 23일~25일	어린이	857-1854
		(감자 구워먹기, 우리가락 배우기, 찬불가 배우기)			
		제 5회 청소년 금강 탐사	8월 18일~22일	청소년	
		(금강발원지 답사, 새만금 갯벌 탐사, 수질검사)			
		하계 참선 수련회	7월 16일~22일	14세~70세	
		(참선이론, 실습)			
		하계 참선 수련회	8월 6일~12일	14세~70세	
		템플스테이	연중 수련(7일간, 주말 가능)	일반인	
		주말 수련회	매월 1,3주 주말	일반인	
	흥국사	천년의 만남 참나를 찾아	매월 1,3주 주말	성인, 가족	381-7970
		여름불교학교	7월말	어린이	
		여름 수련회	7월말	청소년	
	용주사	여름불교학교	7월말	초등학생	855-5503
강원 (033)	월정사	1차 월정사 여름 수련회	7월 12일~ 15일	일반인	332-6664~5
		2차	7월 28일~ 31일	일반인	
		3차	8월 2일~ 5일	일반인	
		4차	8월 7일~ 10일	일반인	
	구룡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29일~8월 1일	20~55세	732-4800
		(참선, 불교유적지 탐방, 치악산 산행)			
		2차	8월 5일~8일	20~55세	
		3차	8월 14일~8월 15일	불교대학생	
	낙산사	사찰문화체험	년중 실시	개인, 가족	672-2448
		(소리체험, 108배, 다도, 참선)(본인이 원하는 날짜 가능)			
	칠불선원	산골마을 산사체험(명상수련)	매주	일반인	432-3312
경남 (055)	통도사	1차 여름 수련회(삼보일배 체험)	7월 12일~ 15일	일반인	382-7182
		2차	7월 17일~ 20일	일반인	
		3차	7월 22일~ 25일	일반인	
		4차	7월 27일~ 30일	일반인	
		5차	8월 1일~ 4일	중, 고등학생	
		6차	8월 6일~ 8일	초등학생	
		7차	8월 16일~ 20일	전국 초, 중등교원	
	해인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6일~ 10일	20세~60세	931-1001~3
		(발우공양, 좌선, 특강, 독경, 1080배, 암자순례, 사경)		일반인	
		2차	7월 13일~17일	20세~60세 일반인	

지역	사찰	프로그램	기간	대상	연락처
경남 (055)	해인사	3차	7월 20일~ 24일	20세~60세 일반인	
		4차	7월 27일~ 31일	20세~60세 일반인	
		5차	8월 3일~ 5일	14~19세 이하	
		6차	8월 10일~ 14일	20세~60세 일반인	
		7차	8월 17일~ 21일	20세~60세 일반인	
경북 (054)	골굴사	1차 여름 화랑 수련회	7월~8월 중 상시	10~70세(외국인포함)	744-1689
		2차	7월 18일~25일	10~70세(외국인포함)	
		3차	7월 18일~8월 1일	10~70세(외국인포함)	
		4차	7월 18일~8월 18일	10~70세(외국인포함)	
		선무도 주말수련	매주 주말	10~70세(외국인포함)	
		선무도 장기 수련	언제나	10~70세(외국인포함)	
		선무도 단기 체험 수련	매주 금~일(2박3일)	10~70세(외국인포함)	
		선무도 일일체험	상시 가능	10~70세(외국인포함)	
	청암사	여름 불교학교	7월 24일~ 25일	유치원, 초등학생	437-0038
		여름 불교학교	8월 16일~ 18일	어린이	
경북 (02)	길상사	1차 맑고 향기롭게	7월 25일~28일	중, 고등학생	3672-5945
		여름 특별 선 수련회(108배, 참선, 목언수행, 발우공양)			
		2차	8월1일~4일	일반인	
		3차	8월 8일~11일	일반인	
		4차	8월 16일~18일	어린이	
경북 (054)	직지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20일~23일	일반인	436-6174
		(전통문화 강좌, 태극권)			
		2차	7월 27일~31일	일반인	
		3차	8월 1일~3일	중, 고등학생	
		4차	8월 4일~6일	어린이	
		5차	8월 10일~13일	일반인	
		6차	8월 17일~20일	일반인	
		7차	8월 20일~22일	가족	
	고운사	1차 하계 수련회	7월 30일~8월1일	청소년	833-2324
		2차	8월 5일~8일	일반인	
	선본사	철야정진기도	매주 주말(7,8월도 시행)	일반인	851-1868
	부석사	철야참선 법회	매달 마지막 주 주말(4월~10월)	누구나	633-3464
		삼천배 철야 정진 법회	매월 마지막 주 주말	일반인	
전남 (061)	백양사	1차 하계 참사람 수련회	7월 28일~ 8월 1일	20~60세 일반인	392-7502
		2차	8월 4일~ 8월 8일	20~60세 일반인	
		3차	8월 11일~ 8월 15일	20~60세 일반인	
		4차	8월 18일~ 8월 22일	20~60세 일반인	
	송광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18일~22일	일반인	755-0107
		2차	7월 25일 ~29일	일반인	
		3차	8월 1일~5일	일반인	
		4차	8월 8일~11일	중, 고등학생	
	미황사	여름 한문학당	8월 1일~8일	초등학생 4~6학년	533-3521
		(문화체험, 발우공양, 예절)			
		여름 한문학당	8월 11일~18일	초등학생 4~6학년	
	불회사	1차 관음대참회 수련회	7월 17일~21일	고등학생 이상 60세 이하	337-3440
		(참회발원)			
		2차	7월 24일~28일	고등학생 이상 60세 이하	
		3차	7월 31일~8월 4일	단체	
		4차	8월 7일~11일	고등학생 이상 60세 이하	
		5차	8월 14일~18일	고등학생 이상 60세 이하	
	제석사	한국 선요가 주말 수련회	매주 주말	일반인	835-9594

지역	사찰	프로그램	기간	대상	연락처
전남 (061)	제석사	(요가, 선, 명상수련)			
		1차 하계 여름 수련회(참선위주)	7월 21일~24일	일반인	782-7600
	화엄사	2차	7월 26일~29일	일반인	
		3차	7월 31일 ~8월 3일	일반인	
		4차	8월 5일~8일	일반인	
		5차	8월 9일~12일	일반인	
	대흥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20일~24일	일반인	534-5502
		2차	8월 4일~8일	일반인	
		3차	8월 10일~15일	일반인	
		4차	7월 29일~8월1일	어린이	
	대원사	산사체험	매월1,3주 주말	일반인	852-1755
		(다도, 좌선, 명상, 연못 산책)			
		주말수련	매월2,4주 주말	일반인	
		(선법, 불가전통 양생법, 무예)			
	수미정사	산사체험	언제나	일반인	789-2300
		(새벽예불과 산책)			
전북 (063)	금산사	산사체험	언제나	일반인	246-3679
		(새벽예불, 다도, 삼보일배)			
광주 (062)	선덕사	어린이수행학교	7월 25일~27일	초등학생	263-4660
		(생태기행, 마음나누기, 다도)			
충남 (041)	마곡사	자비명상	7월 12일~16일	일반인	841-6221
		대전자혜원 불교학교	7월 17일~18일	대전자혜원	
		여름불교학교	7월 23일~25일	어린이	
		선수련회	7월 28일~8월 1일	일반인	
		가족 템플스테이	8월 13일~15일	가족	
		여름 수련회	8월 20일~22일	부부 10쌍	
	갑사	1차 여름 수련회	7월 23일~25일	청소년	857-8981
		(사찰예절, 산림욕, 참선, 불교무술)			
		2차	7월 30일~8월 1일	일반인	
		(사찰문화교육, 위빠사나, 철야기도)			
대구 (053)	법왕사	여름불교학교	7월 24일~26일	어린이	766-3747
대전 (042)	자광사	템플 스테이	상시 가능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	822-9220
부산 (051)	홍법사	제3회 숲속명상학교	7월 17일~19일	어린이	508-0345
	범어사	1차 여름불교학교	7월 17일~19일	초등부 1~3학년	508-3123
		2차	7월 21일~23일	초등부 4~6학년	
		3차	8월 6일~8일	일반인	
		4차 가족 템플스테이	8월 14일~15일	가족단위 10가족	
제주 (064)	우리절 원명선원	여름불교학교	7월 26일~28일	어린이	746-4233
		1차 여름 수련회	7월 30일~8월2일	20~60세 일반	755-3322
		2차	8월 6일 ~10일	20~60세 일반	
		3차	8월 14일~18일	20~60세 일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02)		한 · 몽 청소년 국제친선교류 캠프	8월 11일~16일	중 · 고등학생	723-6165
		한 · 일 공동미래 프로젝트	8월 18일~24일	중 · 고등학생	
		(조선통신사와 일본 국왕사의 우정만들기)			
대학생불교연합회 (02)		한국불교 1600년대회	8월 5일~8일	대학생	732-0239
		(불교문화 유적 답사 및 문화제)			

게시판

함께 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래프팅(사진) 한국청소년화랑단이 6월 20일, 27일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래프팅 체험행사'를 마련하다. 청소년 4만원, 성인 4만 5천원. (02)2235-2675

여성바둑대회 경기도 안양시가 안양여성바둑연맹과 함께 6월 19일 시청회의실에서 여성바둑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만20세 이상 안양시 거주 여성. (031)389-2482

비만 · 빈혈 무료검진 인천의료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빈혈을 무료로 검진한다. 비만도 검진은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032)580-6051



쌈바 배우기(사진) 과천 서울랜드가 '쌈바 배워보기' 행사를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에서 온 20명의 쌈바 무희와 함께 진행되며, 브라질 쌈바의 정수인 '리오 퍼레이드'와 '쇼 쌈바' 등도 관람할 수 있다. (02)504-0011

청계천 이야기 공모 서울시가 내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이야기 시 · 수필 공모전'을 개최한다. '만남이 있는 청계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계천에 얽힌 추억이나 전설, 미담, 에피소드 등 청계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7월 한달동안 접수 받는다. (02)731-6114

요실금예방 강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6월 17일 관내 대강당에서 '요실금 대국민 강좌'를 연다. '오팔(OPAL)세대, 웰빙을 위한 요실금 치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국내 최고 비뇨기과 교수들이 대거 나서 무료강좌와 상담을 진행한다. (031)919-8577



고우 스님 무여 스님 대원 스님 함주 스님 현산 스님 법장 스님 영진 스님 지환 스님 혜국 스님 현웅 스님 도현 스님 설정 스님

禪 법회 감동을 다시 TV로

불교TV, 6월 21일부터 매일 오후 3시 10분에

2004년 상반기 불교계를 강타했던 선원장법회의 감동을 TV로 느낀다.

불교TV는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렸던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일 오후 3시 10분에 방영한다.

고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무여, 대원, 함주, 현산, 법장, 영진, 지환, 혜국, 현웅, 도현, 설정 스님 등 선원장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선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불자들에게 다시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02)3270-3300

방영 일정

날짜	스님	주제	날짜	스님	주제
6월 21일	고우 스님	선의 본질과 의미	6월 28일	영진 스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6월 22일	무여 스님	화두 드는 법	6월 29일	지환 스님	선 수행의 요체
6월 23일	대원 스님	선과 깨달음	6월 30일	혜국 스님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6월 24일	함주 스님	마음은 무엇인가	7월 1일	현웅 스님	한국 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6월 25일	현산 스님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7월 2일	도현 스님	선-스스로 만드는 행복
6월 26일	법장 스님	경허, 만공 선사의 가르침	7월 3일	설정 스님	단박 깨침(돈오)이란 무엇인가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도	반		무		백		귀	의
마	야	부	인		유	마	거	사
	심		도	덕	경		래	
업	경	대		행		불	사	음
		성	화		심	야		
달	무	리		고		성	불	도
	량		수	궁	가		이	
문	수	동	자		야	단	법	석
집	전		상		산		문	양

신행수기

마음 찾아가는 길목 <하>

이정숙 (시인)

그러나 오로지 절 수행의 기쁨을 누리는 재미로 전국을 헤매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여자로 변해 있었다.

앞뒤 사람 피한다며 맨 앞자리에서 신나게 절을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 그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운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영하의 겨울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는 요란을 떨었다.

그것이 기도객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아만심이 생겼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수행이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몰래 하되, 결코 이웃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수행이 깊어질 수록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정진하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저절로 솟아나야 한다.

'나 정도는 해야지…' 아만심 생기면서 기도객들에 눈살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반드시 때에 맞는 스승이 나타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삼주 보살이 정법인지 아닌지, 아직 정법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없을 때였다.

"야, 동생아, 너 빨리 와라. 백련사에 서옹 큰스님 친견하러 가자."

삼주 보살과 가까워지자 우리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서옹 스님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냥 따라나섰다.

서옹 큰스님은 하얀 신선처럼 고운 스님이셨다. 삼주 보살을 따라서 3배를 올렸다.

"제게 자주 오는 동생인데, 기도를 시켜보았는데 곧잘 하네요. 점검 좀 해주셔요."



그림 · 김흥인

스님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셨다.

"무슨 기도를 하나?"

"그냥 절만 해요. 힘닿는데 까지요."

"기도는 왜 해요?"

"재밌지 않아요? 보너스로 바랐던 것 이루어지고요. 더러는 저축도 하구요."

스님은 빙긋이 웃으셨다.

"재밌다? 그렇지, 재밌지… 그러나 너무 과하면 그건 기도가 아냐… 절도 좋지만 염불도 좋은 기도야. 참선도 그렇고. 꼭 멀리 나서야 기돈가, 내가 있는 곳은 다 기도처야,"

하시면서 글씨 한 점과 <임제록(臨濟錄)>을 주셨다. 스님이 주신 책이어서 끝까지 읽었으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글이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지금도 나는 <임제록>에 대해서는 상식 정도일 뿐 글 행간에 감춰진 뜻을 잘 모른다.

하지만 서옹 스님을 친견한 후 나는 변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먼 기도도량으로 다니려 하지 않고 장소가 어느 곳이든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게 됐다. 남에게 보이려는 것처럼 맨 앞에서 하던 절 수행도 맨 뒷자리로 바뀌었다.

<임제록> 한 권을 겨우 읽은 것 같았는데, 그 뒤부터 불교에 관한 다른 책을 읽기가 수월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처님은 그릇 만큼 스승님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다. 부처님을 믿는 시댁으로 시집와서 마지못해 시어머님을 따르다가, 친구를 따라 점치러 갔다가, 그 인연으로 108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각 기도도량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지금은 타계하고 없지만, 삼주 보살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었을 수도 있다. 나에겐 목사동생이 있고 또 목사가 곧 될 조카가 둘이고 장로에, 권사에, 집사로 빽빽한 7남매의 맏딸인데 부처님과의 만남이 쉽지는 않았을 터이다.

또 그녀가 어떤 업으로 인해 삼주풀이로

"나 있는곳이 기도처" 서옹 스님 큰 격려 마음찾기 여행 계속

사람들의 운명을 상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옹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불자가 아니었다면 마음 찾아 떠나는 나의 여행은 뒤죽박죽이 됐을지도 모른다.

마음 찾기 시작한 지 30여년.

절하기, 염불하기, 참선하기, 사경하기, 성지 찾아서 스승님들의 숨결 느끼기 등 딴에는 숨가쁘게 신행하며 살아 왔다.

아직도 어느 하나 마음자리를 낙점(落點)을 얻지 못했지만 바로 거기,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곧 마음자리라는 말 뜻을 새겨들을 수는 있게 된 것 같다.

말 뜻이나마 알아 듣게 되니까 급해진다. 해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하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간다.

대문 앞에서 귀가 늦어진 자식을 걱정스레 기다라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부처님임을 알아 차릴 만큼도 됐다. 그래서 나는 큰 다짐을 했다.

"그래, 아직은 마음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부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겨 주실 거야. 자비의 넓은 가슴으로 보듬어 주실거야. 그래서 마음찾기를 계속할 거야. <화엄경> 안의 제불 보살님의 게송을 사경하며 마음찾기를 멈추지 않을거야." 라고.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정경문

법무사 '삼보선원' 지도법사

'무(無)'자 화두를 들 때는 앞뒤가 콱 막혀 답답했으나 돌이켜 보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는 스승님(종달 이희익 거사)께 입실하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입실이란 내가 참구하는 화두의 점검을 받기 위해 스승과 독대하는 순간을 말한다. 나는 토요일은 등촌동 스승님 댁으로 가서 입실했고, 일요일은 정릉 삼보선방에 나갔다. 그러기에 휴일은 자연히 수행정진하는 날이 되었다.

함께 공부하던 법장, 법천 거사와 나는 입실시간에 늘 참석했다.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좌선과 입실에 나태하지 않았다. 함께 시작하여 밀고 당겨줄 도반이 있다는 건 이 공부하는데 더할 수 없이 큰 원군이 된다. 법천은 1995년 해인사로 출가해 지각 스님으로 모습을 바꾸셨고, 법장 노장은 최근에 <생활 속의 좌선수련 20년>이란 책을 만들어 전국의 젊은이를 상대로 좌선 보급에 일이다. 89년 5월 21일 오후 3시50분 두 번째 좌선시간이었다. 죽비소리에 곧 입정했는데 법당 바깥에서 '깍! 깍!' 하고 산새 소리가 천둥치듯 울어댔다.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산산조각이 났다. 곧이어 새소리는 본래대로 작게 들려 올 뿐이었다. 89년 6월 4일 일요일 문경 봉암사 조실 서암 스님께 입실했다. 내가 스님한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스님의 본래면목입니까?" 서암·혜암 스님 등 친견 탁마받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삼보선원에는 법전 한기창, 도심 김기린, 법원 조보환 거사 등 뛰어난 선배들이 선방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 우리는 선배들의 지도아래 신심을 갖고 수련할 수 있었다. 물론 수행의 장소는 집이든 사무실이든 차속이건 가리지 않았다. 눈은 뜨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항상 화두가 맴돌았다. 화두 외의 바깥 사물에는 관심이 적어졌으나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우리들이라 그렇다고 생활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좌선공부를 5년쯤 해 나갔을즈음 스승님이 몸을 가누시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해 가셨다. 병중이신데도 토요일 입실 받으시는 것만은 거르지 않으셨다. 스승님은 말씀하시기가 불편해지자 벽에 기대앉아 손가락 끝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셨다. 우리는 스승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까지도 말씀 없는 법문으로 새기면서 스승님의 임종을 맞았다.

당신의 에너지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쓰고 가시는 모범을 보이신 그 때가 90년 6월 7일 오전 7시경이었다.

내가 삼보정사에서 좌선하던 때의 스님의 본래면목입니까?" 하니, 스님께서 "그대로다" 하셨다. 나는 합장한 후 자리에 앉아 잠시 동안 대화로서 근본자리를 확인한 후 되돌아 나왔다. 90년 4월 23일 진관사에 들르신 해인사 부방장 혜암 스님을 친견하였다. 스님은 말씀으로 탁마해 주셨는데, 자기 공부는 자기가 잘 안다면서 오매일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번 경계를 봐도 행위가 생멸심에 끌려 다닌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충고하셨다. 나는 나의 스승님 외에 두 분의 큰 스승께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밝은 말씀을 듣고 나의 내면을 되돌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 자위하지 않고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생활 속의 행위 하나하나가 선도리를 벗어남이 없다. 외계의 사물에 무심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살려는 태도와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한 마디 질문을 던지면서 끝맺고자 한다.

"나(我)는 누구인가?"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기도처 자광원 자연속에 보금자리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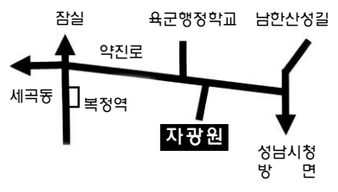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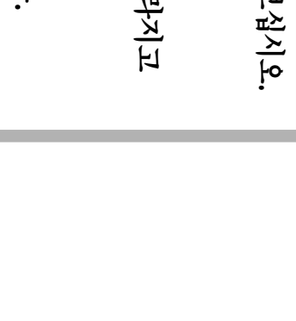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本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항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국내 최고茶 가린다"

'제1회 대한민국 茶 품평회' 7월 17~18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내 최고 품질의 차를 가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회'가 오는 7월 17, 18일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단체가 차 품평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지만 차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전국 규모의 차 품평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품평회에는 한국차인연합회와 한국차문화협회, 명원문화재단, 일지암 초의다문화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차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등 우리 전통 차 문화 형성과 전승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불교계도 함께 참여한다.

'차 품평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연 스님(대흥사 일지암 주지 · 사진)은 "우리나라 차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최근 차가 약리적 효능 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를 갖는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차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차의 종류만도 200여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차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소비자들이 질 낮은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의 품질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차 시장의 실질적인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차 관련 문화단체들이 차 품평회 개최에 발 벗고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차 관련 단체, 불교계 대거 참여
품질 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기대

행사 기간 중에는 품평회와 함께 품질경영 전문교육 세미나와 우리 차 산업 발전 대토론회, 국제명차 전시 및 설명회, 다구 및 다화 전시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여연 스님을 만나 품평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효과, 품평기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연 스님은 "우리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차 품평회는 왜 필요한가?

-현재 국내의 차 공급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지난해만 해도 국내 생산량은 약 1950톤 정도인데 수요량은 2950여 톤으로 1천여 톤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외국 차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일부 차는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차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마련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차의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중국은 50여년 전에, 일본만 해도 30여년 전에 차 품평을 시작했다.

우수 제품 발굴 통한 경쟁력 강화
마케팅, 생산기반 등에 지원 예정
정보 공유·소비활성·해외홍보 효과

▲어떤 차를 품평하게 되나?

-올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녹차 및 발효차 제품 모두가 품평 대상이다. 생산자협회나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제품을 유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해 품평하게 된다. 올해는 200여 업체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 품평기준은?

-차 품평에 있어 중국은 향기를, 일본은 색깔을, 우리나라는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출품된 차의 모양과 색깔, 향기 그리고 맛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또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명실상부한 'KS' 제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수제품에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는 대량 고정구매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고부가가치의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품평회 개최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차 품평회는 과학적 생산관리방법 및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차 재배 생산 유통업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인증을 통해 녹차소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품평회를 시작으로 우리 고유의 차 품평 기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차를 가려내고, 이를 국제 차 시장에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수령 기자

다유락, '금당다화' '한국의 차문화' 복간

20여 년 전 발간됐던 차 문화 관련 서적 두 권이 복간됐다. 최규용(1903~2002) 선생의 <금당다화(錦堂茶話)>와 운학 스님(1934~1981)의 <한국의 차문화>가 바로 그것.

대흥사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과 동방차문화연구회 박희준 회장, 도서출판 이른아침이 펴내는 '다유락 선고다인 총서'는 근대 이후 우리 차문화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1세대 다인들의 대표 다서를 선별해 복간하는 시리즈물이다.

1978년 발행된 <금당다화>는 해방 이후 차문화 확산운동에 앞장섰던 금당 최규용 옹의 우리차 연구서다. 이 책에는 우리 차의 역사와 문학작품, 초의선사 유적 기행문, 우리나라 최초의 차 상품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다신전>의 원문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한국의 차문화>는 스님이자 문학평론가인 운학 스님이 1981년 펴낸 책으로, 우리 차 문화 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에 '우리 차 바로 알기'를 기치로 씌어진 것이다. 스님은 우리 차문화가 그 설자리를 잃어버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든다. 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생수 맛이 좋고, 숭늉과 담배, 술 등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했으며, 외적으로는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면서 사원에 대한 차의 공출이 과도해지자 차나무를 베어버리는 일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다도로 우리 차문화가 왜곡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다법(茶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찰 차 모임 — 서울 불광사 다도반

졸업없는 평생 배움의 현장


지난해 10월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차 퍼포먼스 '찻잔에 담는 우리소리'에서 불광사 다도반 회원들이 행다시연을 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지난 1994년 11월, 날마다 부처님께 차 한잔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된 불광사 다도반은 그동안 차문화 보급과 차를 통한 수행문화 확산에 매진해 왔다.

다도반의 특징은 교육기간이나 커리큘럼, 졸업식, 수료증 등의 형식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매년 5월 모집하는 기초반 강좌 3개월을 마치고 나면 그 뒤로는 '졸업 없는' 강의가 계속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불광사 내 전통찻집 다경실에 모여 <동다송>이나 <다신전> 등의 다서와 차문화 이론을 배우고 행다법이나 제다체험,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다양한 교육이 이어진다. 우상화(46) 총무는 "굳이 교육기간이나 커리큘럼을 나누지 않는 것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차(茶)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형식, 규제없는 다양한 교육 실시
차퍼포먼스 등으로 안목 향상 주력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도반은 매주 일요일 법회 때 마다 헌다례를 하고 있다. 김혜영 실장은 "불광사 다도반은 차생활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주 일요일 마다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것도 이웃과 차를 나누며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다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다도반 회원들은 동지 때 육법공양을 올리는 동지차례와 가을마다 열리는 차퍼포먼스, 다산문화제 등의 행사 외에도 다른 사찰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행사에는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정동극장에서 국악인들과 함께 '찻잔에 담긴 우리 소리' 차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경남 하동의 일곱 군데 차 농가에서 재배한 차를 한 솥에 끓여내 나누어 마시는 칠가차(七家茶) 시연은 화합과 나눔을 상징하는 발표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초의 스님은 차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라는 뜻의 무착(無着) 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무착바라밀을 익혀 집착과 아집, 아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차를 통해 우리 삶에도 불법의 향기가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인터뷰

김혜영 실장
茶통한 공부 수행 봉사 공통 관심사



"불광사 다도반은 생활 속의 선(禪), 생활 속의 차(茶)를 익히는 수련장입니다."

다도반 김혜영(57) 실장은 다도반 회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차'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화합도 잘 되고 봉사활동이나 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차생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김 실장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검사회'에서 우리 차를 소개하고, 10월에는 정동극장에서 차퍼포먼스를 여는 등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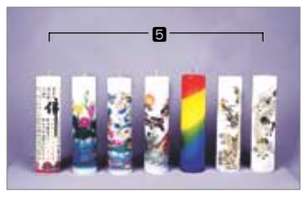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 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괘목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공부 간파할 수 없어

요새 날씨도 추워지는데 여러분 가정이 항상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진정코 깨닫는다면 정말이지 여러분 가정에도 모두 행복이 깃들 것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첨단을 간파하는 공부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실험하고 체험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나를 버리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신다면 그 공부는 간파를 못합니다.

나 하나를 버린다면 일천만 가지가 다 잠을 잡니다. 쉬게 됩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됩니다. 내가 살 양으로 하고, 내가 '나'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 물질세계에서의 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죽질 못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으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데에 순응하고 놓으라는 얘기죠. 물이 흘러가는데 거꾸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흘러내리고 있죠? 또 많은 비가 와서 한데 모여 흐르듯이 어떠한 문제든지 닥쳐오는 그 애고(哀苦)를,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흘리게 되면 바다로 들게 돼 있죠. 그 바다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이, 따로따로 흘어지는 게 없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맑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허무하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허무한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사실이 그러니깐요. 항상 말하듯이 우리 몸뚱이는 장갑 끼었다가 벗는 거와 같고, 우리 마음의 근본은 장갑 끼는 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갑이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저러니 하고 논의할 것이 못 되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과 질환이 없고 평탄하게 한마음으로써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면 내 마음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뭐든 잘못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또 잘되고 못되는 것을 겸해서 알아야 같이 작용을 할 때에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침이 없다면 빛도 없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해서 빛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공생 공용으로써 공심으로써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종교를 믿는다고, 이 종교 저 종교 모두 믿는다고는 합니다마는 종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에 매여서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어느 국한된 종교에 끄달리지 마시고, 어느 종교를 가졌든 그건 이름일 뿐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란 말입니다.

나는 종교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진정코 아픕니다. 내 마음은 속일 수 없겠죠. 양심은 속일 수 없겠죠. 내 양심을 속인다면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모두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은, 행동과 말과 그 뿌리가 성실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익이 갈 수가 없고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종교라는 이름을 떨쳐버리세요. 불교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란 얘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돼 있어서 일체가 다 같이 공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에 휘달리고, 요새는 학교 가는 자녀들 때문에 모두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음의 손길이 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개별적인 손이 가서는 절대로 모두가 불리합니다. 포괄적인 한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공덕의 한 손길이 미쳐야만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진실된 내용만 얘기했지 간접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밌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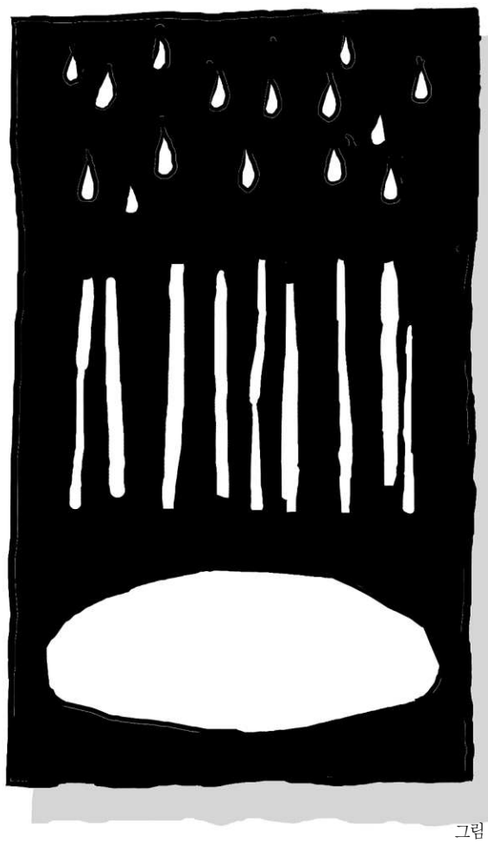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한테 속속들이 이를 테니 배우시려면 질문도 하십시오. 질문을 안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함이 없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걸어오는 길 자체에 발자취를 담아가지고 옵니까? 말씀도 담아가지고 있지 말고 하십시오. 걸음 걸어오면서 발자취를 담지 않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질문하시는 것도 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1: 소생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그냥 몸 떨어질 때의 업식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란 무엇인가요? 육신이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마음이 보입디까?

▲질문자1: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 마음이 보이지 않듯이 육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 자체의 그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의 근본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내세에 다시금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공(空)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업 선업의 그 의식들은 잘되고 못되고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스리는 생각이 미쳐야만이 그게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현실에 입력을 다시 한다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서 안팎을 잘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림 · 최주현

체가 없는 마음의 의식이 물질계의 관습에 의해서 죽어도 자기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체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체가 없어진 뒤에는 차원에 따라서 윤회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한데 모이면 개울물이 되듯이 그런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차원에 따라서 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체가 없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생시 때 마음은 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자기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죽어서 영혼이 발자취를 옮기려면 악업 · 선업의 그 애고에 의해서 전부, 크고 작은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갈래도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불에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이럭하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도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친구가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탁 막고서 "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고 악을 벽력같이 써도 그 영혼만이 듣는 말이죠. 그래도 이 생시의 사람들은 못 듣겠죠. 그래서 악을 쓰니까, "이 집이 2층, 3층으로 된 기와집이라서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타고난다면 다시 모습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서 개구리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냥 머리에 젖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 환생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어쭙지 않게 말을 하면은 또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질문자2: 스님께 여러 번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조 혜능 스님께 법을 구한 제자들 가운데 지통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법을 구한 뒤에 지은 게송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행을 일으킴은 모두가 망동이요, 머물러 지킨다 해도 또한 참이 아니라." 하셨는데 어떠한 경지를 일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이리 오십시오. 가르쳐드릴 테니까. (질문자에게 손짓을 하시며) 이리 오세요,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이리 오세요. 아,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리로 와야죠. 손 내미세요. (오른손으로 질문자가 내민 손바닥을 '딱!' 소리나게 치시고 질문자가 합장을 하자 답례로 합장하시며) 가르쳐드렸는데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2: 지금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3: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책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四無) 사유(四有)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요. 또 이렇게 제 아이가 축농증이 상당히 심한데 다른 사람은 뭐 신문을 5분도 못 보고 앉지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이런 신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집을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그분은 평상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2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렸더니 지금은 상당히 다 좋아졌다고 하던데 저의 아이의 일은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문도 나고요.

또 저에게 신도님들이 극락이 어디 있냐고 가끔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스님께 배운 대로 "네 마음 안에 극락이 있다.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산 사람이 죽어서도 극락을 간다." 아, 그러면 "극락을 간다는데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범천세계(梵天世界) 저쪽 어디에 극락이 있다고 그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동이 됩니다. 이 마음이 편안할 때 극락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우주법계를 벗어나는 어느 곳에 극락이 있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조금 더 절에를 다녔다는 신도로서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대할지 상당히 망설여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이렇게 감히 법을 여쭙니다.

▲스님: 보살님, 가만히 보니까 대답 잘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3: 저 자신도 그걸 잘 모르겠고요.

▲스님: 자신을 모르니깐 대답도 못하죠.

▲질문자3: 예.

▲스님: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남에게 대답을 함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범천(梵天)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문자3: 아, 범천(梵天)세상이 있다고 어느 책에 보니깐요, 쓰여져 있어요.

▲스님: 범천(梵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바로 범천도 있고, 또 천당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보세요. 일을 잘못해서 불잡혀가질 않나, 마음에 죄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 마음의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또 마음에서 벗어나서 활달하게 사는, 천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잘못하지 않아서 몸으로 또 받지 않으니 천당이요, 모두가 천당 지옥이 딴 데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질문자3: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물을 못 건너고, 블랙홀이라는 그걸 통과를 못하고 또 영원히 통과를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인지요?

▲스님: 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겠죠. 보세요. 넝마는 넝마대로 출현을 하고, 헌 무쇠는 무쇠대로 출현을 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또는 물건이 새로 나왔으면 나쁘든지 좋든지 새로 나온 물건으로 또 나옵니다. 연방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가공돼서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또 아까 딴 사람은 다들 잘 낫는데 왜 내 집 애는 안 낫느냐고 그랬는데 나부터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 아이에게 관하는 도리를 일러주었나. 그 룻을 들어야 얻어먹더라도 담아주죠. 마음이, 믿는 마음이 소상히 밝혀져야 그게 즉각적으로 들어가죠. 오래되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겉으로 끄달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겉으로 끄달리지 않는 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서 하루속히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내 안으로 모두 놓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십시오.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것은 보

☞30면으로 계속

> "마음공부라는 것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첨단을 간파하는 공부입니다"

>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실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십시오"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그림 · 최주현

나 하나를 버린다면 일천만 가지가 다 잠을 자고 쉬게 됩니다

☞29면에서 계속

이지 않는 세계의 50%, 보이는 세계의 50%를 사무사유라고 합니다.

▲질문자3: 그런데 저 아이는, 제가 스님한테서 배운 주인공에 관하는 도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을 꿈에서도 뵙고 또 굉장히 관하는 도리를 믿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스님: 그래도 잘못돼서 그렇죠. 수박 겉만 핥듯이 그렇게 핥아서 수박 속 맛을 알겠습니까?

▲질문자4: 오래 다녀도 스님 앞에 직접 와서 질문드리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스님 법문 중에 부(父)와 자(子)는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둘이 아닌 부와 자가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백지 한 장 차이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늘 일러주셨는데요. 그 백지 한 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법문 좀….

▲스님: 즉 말하자면 영원한 근본의 그 마음이 현실의 나를 진화시켜서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그 테두리는 부가 되고, 즉 마음내기 이전을 말합니다. 마음내는 것은 자가 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가 됩니다. 전력은 부가 되고 이 들어오는 전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력은 부가 되고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와 전력과 둘입니까, 어디? 둘이 아니죠. 전구가 없어도 안 되고 전력이 없어도 안 되죠. 그 가운데 가설이 되지 않아도 안 돼요. 찾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무난히 돌아갑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 자체가 바로 전력을 알아야 이게 상통한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끌고 다니는 나가 과거뿐이 아니라 현실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가 없으면, 부모한테 몸을 받았어도 영원한 내가 없으면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지지를 않아서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대로 업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연이 돼서 만남이 뭉쳐지는 거는 바로 이 몸속에 들은 의식들입니다, 생명들,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부와 자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자기가 온 데가 어딘지, 가는 데가 어딘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상세히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만이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자5: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하도 이 몸뚱이 아랫도리가 아프고 해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친구애가 자꾸 여기를 가보라고 해서 오늘 참 처음 여기를 왔는데 살려주는 셈 잡고 한번 좀 알아주세요, 왜 이렇게 아픈지요.

▲스님: 살려주는 셈 잡고요? 하하하. (대중 웃음) 어디가 아프신데요?

▲질문자5: 요기서 요기 아랫도리, 궁뎅이 요기가 아파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스님: 나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공부를 수행을 해나가면은 그 병 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병도 자세히 얘기하자면 몸속에 들은 의식들이 전부 모르니까 내 마음 쓰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악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댁에서 믿는 마음이 출중하다면 역시 나하고도 마음이 둘이 아니요,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의 그 손길이 간다면 금방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 병만 낫지, 도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것은 해결을 못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6: 저는 광주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왔습니다. 스님을 아미타불로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쓰레기를 어떻게 쓸어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님: 극락세계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이치가 참, 마음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황천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극락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내시니 아촉불도 될 수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즉 동방에 아촉이요, 서방에 아미타요, 세상에 관세음이요, 또 지천국(地天國)에는 지장보살이요. 이렇게 마음으로 내는 것이지, 그건 이름이지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 속에 같이 뭉쳐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저 한마음의 주인공, 여기에서만이 나의 몸을 이끌어줄 수 있고, 나의 죽음도 그냥 익지 않은 콩깍지 까듯 아프게 하지 말고 익은 콩깍지가 툭 터지듯이 되도록 믿어보십시오. 진짜로 거기서만이 나를 아프지 않고 죽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내생에도 진화해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자재천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6: 지난달에 여기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뒤로는 우리 자식들이 전부 모두 다 극락세계가 되었습니다.

▲스님: 하하하. 자식들이 극락세계 됐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합장하심)

▲질문자6: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맡겨버리니까, 머리가 가쁜해지고.

▲스님: 너무 집착을 하고 말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맡겨진 겁니다. 우리 살림살이 하는 거 그대로 일체 만법이 다,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고 상대성 원리로써 돌아가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턱 놓으시고 턱 믿고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네놈이 있으니깐 나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지."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질문자6: 감사합니다.

▲질문자7: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꼭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 질문하는 것도 공부려니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먼저 재가자로서 현실의 노동을 기피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스님: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겠지. 그리고 또 가는 거 일부러 잡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턱 놓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여하게 말이야.

▲질문자7: 부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님: 중생이 만들었겠지.

▲질문자7: 마음은 내는 겁니까? 나는 겁니까?

▲스님: 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야.

▲질문자7: 흔히 나를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발자취를 거둬가지고 왔느냐고.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에 한 발짝 떼어놨으니까 '한 발짝 떼어놨으니까' 이러고 걷나? 무심으로 그냥 걸어왔지. 그 말도 역시 그렇지 않아? 고정된 것도 없고 말이야.

▲질문자7: 감사합니다.

▲질문자8: 전에 법형제에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오는 경계가 있을 때에 주인공에게 맡겨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갔고 또 갑자기 많은 경계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 자신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또 제가 가는 길에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뵙는데요. 그래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도 주인공 자리에 다시 놓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라도 주인공 자리에 회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회향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스님께 회향의 도리가 어떤 것이며 회향의 공덕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앞에 나왔습니다.

▲스님: 항상 하시고 회향하시고, 항상 하시고 회향하시고 이러고 가는데 무슨 회향이 따로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써 지켜나간다면은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회향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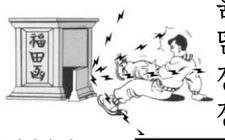
▲질문자8: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쇄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흡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8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대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약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향기나는 집안 위한 센스 만점 살림살이

알면 생활이 편해요

바닥에 유리파편이 흩어졌다면? 탈지면을 주먹만큼 뭉쳐서 닦아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파편까지 깨끗이 제거된다. 손에 기름때가 묻었다면?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 설탕으로 몇 번 비비면 기름때를 감쪽같이 날릴 수 있다.

알뜰살림 백배효율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손쉽고 발빠른 예방과 처방 몇 가지만 숙지해도 웰빙살림의 묘를 얻을 수 있다. 구역별 청소와 관리의 예방 및 처방책을 들여다보자.





▮ 욕실= 욕실 내 문제는 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타일 군데군데에 낀 곰팡이는 높은 습도로 욕실을 사용한 후에 물기(습기)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것.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아내고 락스를 흥건히 바른다. 그 위에 화장지를 붙여놓고 약 8시간 후에 떼어내면 곰팡이가 없어진다.

욕실도구들의 물때 청소도 중요하다. 세면대는 밀가루를 뿌리고 솔로 살살 닦아낼 경우 때제거는 물론이고 윤도 낼 수 있다. 변기의 경우 1컵 정도의 식초를 변기내부에 붓고 뚜껑을 닫은 채 하룻밤 놓아둔 후 아침에 솔로 닦으면 된다. 그러면 묵은 때도 빠지고 소독까지 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욕조는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짜내듯이 누르며 닦아낸다. 타일의 경우 주방용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세척도구로 사용한다. 세제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베이킹소다의 거친 입자는 일종의 스크럽효과를 낸다. 베이킹 소다에는 탈취성분도 들어있다.

▮ 거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해 벽면에 습기와 곰팡이 등의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발코니 및 현관문 주위에 쉽게 나타나는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습도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젖은 세탁물의 건조나 가습기 사용 등 습도상승의 행위를 차단하고, 가급적 통풍을 자주 시켜 공기 중의 습도량을 줄이도록 한다. 이미 발생된 곰팡이에는 세제용 왁스를 뿌리면 벽체가 마르면서 곰팡이가 깨끗이 제거된다. 이때 곰팡이를 걸레로 닦으면 벽지가 훼손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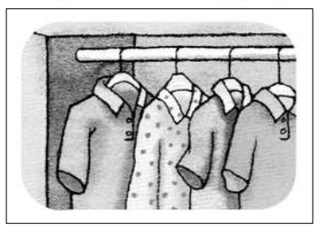
거실의 환기는 실내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 오염도가 실외보다 2~5배 높다고 한다. 잦은 환기를 통해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환기 외에도 벤자민 · 고무나무 등 유해물질 흡착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우거나, 페인트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양파 등을 잘라서 거실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드라이크리닝한 옷은 외부에서 용제를 충분히 증발시키고 실내로 들이는 등의 작은 실천도 뒤따르면 좋다.

▮ 침실 · 주방= 침실의 안전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다. 이불, 베개 및 매트리스는 가능한 높은 온도의 물로 세탁한 뒤 따뜻한 햇볕에 말려준다. 또한 3개월에 한번은 이불의 접고 펴는 위치를 바꿔 접히는 부분의 습기를 털어내도록 한다. 옷장의 습기제거 역시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 5~6장의 신문지를 함께 말아 이불 사이에 넣어두면 틈이 생겨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바닥청결도 간단한 조치로 해결 가능하다. 물왁스를 헝겊에 묻혀 골고루 발라주면 여름 내내 끈적거림없이 지낼 수 있다. 먼지가 잘 타지 않아 잦은 물걸레질도 필요없다. 바닥에 껌이 붙었다면 땅콩버터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껌을 제거할 수 있다.

욕실 곰팡이, 락스 바른후 화장지 붙이면 OK
잦은 환기 식물 배양으로 실내 공기 자연 정화
침구류 고온 세탁후 따뜻한 햇볕에 말려야 깨끗

깔끔한 주방 만들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씽크대 냄새의 주범인 배수구 거름망을 중성세제를 묻힌 칫솔로 꼼꼼히 닦아 하수구 냄새를 없앤다. 씽크대에 물이 차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시



금치 등 야채 삶은 물을 부어 배수구를 막고 있는 기름때를 제거한다.

냉장고 냄새가 심하면 먼저 악취의 원인인 습기를 제거하고 자연산 탈취제 사용을 고려해본다. 식빵을 검게 태워 쿠킹호일에 올린 뒤 냉장고에 두면 냄새가 쉽게 없어진다. 먹고 남은 녹차나 커피 찌꺼기 역시 효과적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자료제공: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생활 길라잡이>

염불 통한 불교 생활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0>

민병흥 씨 가족



나란히 앉아 금강경 독송에 전념하고 있는 민병흥씨 가족.

민병흥(서울 이문동 · 52) 씨 가족에게는 염불이 곧 생활이다.

아내 오애리(46) 씨는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금강경>을 5번씩 독경하고 짜투리 시간에도 진언명상에 젖어드는 것이 습관이 됐다. 딸 지영(12)이와 융기(11) 역시 마찬가지다. 차분한 지영이는 친구들과 다투는 등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전을 집어든다. 개구쟁이 융기는 놀이터에서 놀 때도 '신나는 나무아미타불'이다. 활기찬 목소리에는 맺은 민 씨 부부는 결혼예물도 한금대장경으로 대신할 만큼 불심이 남달랐다. 결혼 후에도 불교가정 의례를 일상에 적극 도입하면서 행동하는 불자로 거듭났다. 서울 불광사 법주였던 故광덕 스님으로부터 사사받은 기본지식을 토대로 불교식 제사를 수년 째 꾸려오는 것은 물론, 목탁집전 등의 의식교육 또한 늦추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린이 불서를 읽으며 내면의 불성을 옹골차게 키우고, 부모 역시 부처님의 감로법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풀어내며 불법에 기

108배 · 경전독송으로 똘똘 뭉친 불자 가정
결혼예물도 대장경…불교 가정의례 일상화

스님들의 고성 염불가락까지 살아있다. 민병흥 씨는 이러한 생활이 부처님의 큰 선물이라 했다.

"불교의 생활화를 고민하다가 염불을 시작하게 됐지요. 일념으로 외는 염불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화합까지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족들에게 경전독송과 염불을 독려한 민 씨는 금강경독송회와 동산반야회 등에서 '목탁법사'로 통하는 신실한 불자. 아침 저녁으로 예불과 108배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은 물론, 늦은 밤에는 2시간을 꼬박 <금강경> 독송에 매진한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이어온 그의 '실천'에는 변함이 없다.

그 진실한 실천이 빛을 발해서일까, 민 씨 가족은 모범 불자 가정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동산반야회에서 연을 반한 가정의 화목을 꿈꾼다.

그래서인지 지영이와 융기는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 법왕정사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다. 지난 해에는 3일에 걸친 1만배 대장정에 성공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절을 기차게 잘 하는' 청견 스님마저 "만배를 올리고도 이렇게 가뿐한 아이들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

"언제 어디서건 불법을 삶의 좌표로 삼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품고 수행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속에 가족과 함께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의 길이 멀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민 씨의 말에 조용히 두손을 모으는 '염불 가족'의 정진은 오늘도 그렇게 이어진다.

강신재 기자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 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 仁 製 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정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치발란스 Dangchee Balance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금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금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조상천도 낙태아천도 병괴를 가져오는 객귀풀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봉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염력천도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지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라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K선도 골사도 점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룸비니 선물로 부모님 건강장수 기원

갑신년 名品특집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사은품 증정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관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 불자님께 순금도금한 삼고 금강저(사진)를 특별증정한다.

왜! 삼고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삼고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불경에 입각한 수호신인 삼고금강저를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하는 분께 평생 지니고 다닐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축원불공을 마치고 특별증정 한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노인과 어린이는 주머니속이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제작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소원성취 향로'화제집중

99% 청동으로 만든 국보급 명작



관음예술원

불경에 입각한 성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회제가 되고 있다.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 여의주 백연화 수진언 향로"는 불경에 입각해 영험으로 제작된 국내 향로 7-운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서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말하는 것으로 번영과 소원성취의 바람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수진언은 그동안 큰 스님들을 통해 그림으로 그려져 불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긴급비방으로 전해져 왔다. 사업이 어려울 때의 향로의 비방은 동쪽,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자녀를 기다리는 임태의 비방은 북쪽, 승진과 취업의 비방은 서쪽, 병고 회복의 비방은 북쪽, 개업을 준비중인 성공 사업기원의 비방은 동쪽, 인연의 짝을 찾는 비방은 동쪽, 법적 문제 승소의 비방은 서쪽, 가정의 우기 또는 개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등 비방에 따라 향로를 놓고 진언, **"옴 바아라 바다리, 옴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를 아침마다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성심으로 지혜를 얻으며 가지가지 보배 재물이 들어오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워 진다 했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도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수진언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두께 2.7kg,높이22cm,넓이17cm 가격295,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들어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묻히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검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겨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제일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갑신년이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이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추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듯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새상품 살빼는 신발 스피필드 인기

독일 뮌헨 다이어트 기능대회 대상수상



착지시 뒷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살빼는 신발' 국내외 인기폭발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고 독일 뮌헨 다이어트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살빼는 다이어트신발, 스타필드"가 국내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신으면 살이 빠지는 신발"을 개발한 부산 삼덕통상(주)는 초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지에 전량을 수출,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메이커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에는 이 신발이 비만의료기로 수출되고 있다.

래외에서 성공을 거둔 삼덕통상측이 이제 국내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것이다.

이 신발을 신고 30분만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이상의 운동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신발은 하체와 허리를 날씬하고 튼튼하게 단련시키거나 허리를 반듯하게 균형잡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도입됐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복부비만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출의 날 대통령상과 산업평화상도 받은 스타필드 신발은 "마라톤 선수들이 발의 앞부분으로만 뛴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며 "돈금을 잃애 까치발식 걸음으로 복부와 다리에 힘을 쏟도록 한다"는 원리를 원용한것이다. (080-555-3030)

부산=이영자 기자 yj3119@hot.co.kr

하루1시간 운동으로 월 2kg빠져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자들의 승리와 안전의 수호신



험한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 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 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부모님께 건강의 선물!
남편에게 승리의 선물!
학생에게 지혜의 선물!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 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 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福 지갑

룸비니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佛力!



120년 만에 온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쏠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몰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때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부터는 므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갑신년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 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금의 해라 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 지갑으로 바구면 방황하는 돈이 새 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은 갑신년이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성구 八자를 지갑 정면에 넣고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 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으로 출시된지 1년동안 안되든 장가가 잘되고 어려운 사업이 풀리는 등 숫한 화제를 낳은 지갑이다.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 양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구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녀공용 반지갑은 55,000원, 여성용장지갑은95,000원에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 신청하면 보내준다.

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